

보험동향

Insurance Trends

◆ 테마진단

보험회사의 부유층 자산관리사업 운영 필요성 및 시사점
외국의 자연재해보험제도 운영현황과 시사점

◆ 보험산업 환경

◆ 보험지표동향

◆ 보험제도 및 시장동향

고령화 사회의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방향
금감원, 2003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
금감원, IT 및 전자금융 관련 감독·검사업무 개선방안 추진

◆ 해외보험동향

미국, 금융기관 공시규제 시대와 보험회사
미국, 2004년 보험시장 전망
미국, 직접판매채널 현황 및 전망
2003년 세계 재해/재난 피해 현황
영국,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설문조사
일본, 공적연금제도 개혁안 내용 및 평가
일본, 자동차보험 직접판매 전문회사 현황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목 차

테마진단	1
1. 보험회사의 부유층 자산관리사업 운영 필요성 및 시사점	1
2. 외국의 자연재해보험제도 운영현황과 시사점	14
보험산업 환경	25
1. 해외 경제	25
2. 국내 경제	27
3. 보험시장 여건	29
보험지표동향	31
1. 보험산업 총괄	31
2. 생명보험	33
3. 손해보험	48
보험제도 및 시장동향	63
1. 고령화 사회의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방향	63
2. 금감원, 2003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	69
3. 금감원, IT 및 전자금융 관련 감독·검사업무 개선방안 추진	72
해외보험동향	75
1. 미국, 금융기관 공시규제 시대와 보험회사	75
2. 미국, 2004년 보험시장 전망	82
3. 미국, 직접판매채널 현황 및 전망	86
4. 2003년 세계 재해/재난 피해 현황	92
5. 영국,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설문조사	97
6. 일본, 공적연금제도 개혁안 내용 및 평가	103
7. 일본, 자동차보험 직접판매 전문회사 현황	109
통계표	114

테마진단

◆ 보험회사의 부유층 자산관리사업 운영 필요성 및 시사점*

이 경 희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선임연구원

1. 문제 제기

외환위기 이후 부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부유층의 이익기여도가 높아지면서 금융기관간 부유층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향후 규제완화시 경쟁의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

-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이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금융기관에 대한 부유층 고객의 이익기여도가 크게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금융기관들도 부유층 고객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하였음.
- 소득집중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1996년 0.295에서 2000년에는 0.352, 금융자산 지니계수 역시 1993년 0.593에서 1998년에는 0.63으로 급격히 높아져 부유층으로 소득 및 자산이 매우 빠르게 집중되고 있음.
 - 전체 저축성예금 계좌의 0.044%에 불과한 5억원 이상 거액계좌가 전체 예금 금액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금융자산이 상위 소수계층에 집중되어 있음.
-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 개별 금융기관에 대한 부유층의 이익기여도는 20:80의 법칙¹⁾을 능가할 정도로 매우 높은 것으로 파악됨.
- 현재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종합자산관리(wealth management)서비스는 은행, 보험, 증권 등 개별 법에서 정한 업무영역에 의거하여 개별 법의 테두리 내에서 수행해야 하는 제약조건이 있음.

* 본 논문은 보험개발원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필자 개인의 견해를 밝힘.

1) 상위 20%가 전체의 80%를 차지한다는 법칙

- 이로 인해 금융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는 선진 외국 금융기관과 비교할 때 상당히 제한적이며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은행의 경우 보험상품 및 수익증권 판매가 가능하고, 투자신탁 상품도 취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권이나 보험회사에 비해 유리한 위치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증권이나 보험회사는 자사의 부유층 고객을 타사로 빼앗기지 않도록 방어적 입장에서 노력하고 있는 실정임.
- 특히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타 금융기관과의 제휴나 투자자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 자산관리와 관련된 업무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있음.
- 그러나, 향후 금융자유화로 인해 업무영역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될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본격적으로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런 환경에서는 모든 금융기관이 부유층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고, 그 결과 금융기관간 성패도 명확히 갈릴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보험회사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적절한 전략 수립 및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함.

2. 부유층의 자산관리사업

저금리 현상의 정착, 금융자산의 실질가치 유지에 대한 욕구, 은퇴 후 잔존여명의 급증 등과 같은 수요측 요인과 금융기관의 새로운 수익원 확보라는 공급측 요인이 상호 작용하여 부유층에 대한 자산관리사업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

가. 자산관리사업의 정의

- 자산관리사업은 은퇴 및 노후준비, 상속준비, 가족보장 등 생애주기에 따른 종합적인 자산포트폴리오 구성과 재무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컨설팅서비스를 의미함.
- 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투자, 상속 및 세금, 위험관리, 은퇴, 부동산, 자녀

교육, 기타 부가서비스 등과 관련된 계획(planning) 수립과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상품, 서비스가 요구됨.

□ 자산관리서비스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은 반복적인 과정으로 순환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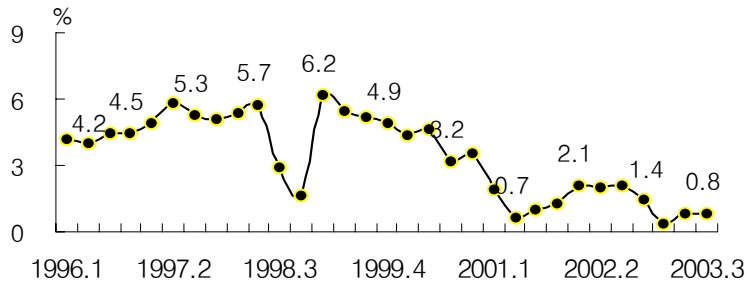
- 우선, 고객의 가족상태, 재무상황 등을 파악하여 종합적인 자산상태를 분석한 후, 고객의 재무목표 및 위험선호도(risk tolerance) 등 투자성향을 파악함.
- 다음 단계에서는 진단된 재무상태와 재무목표간 차이를 분석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다양한 금융상품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관리하게 됨.
- 구성된 포트폴리오는 경제 및 금융환경, 조세제도 등 시장상황과 고객의 자산상황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재구성함.
-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금융기관은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이와 관련된 자문수수료(fee)나 상품증가에 수반되는 중개수수료(commission)를 수취하게 됨.

나. 자산관리사업의 성장 요인

1) 수요측 요인

- 향후 부유층의 자산관리사업은 규제완화와 같은 제도적 요인뿐만 아니라,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모두에서 성장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판단됨.
- 수요 측면에서는 저금리 현상의 지속, 외부 변동성으로부터 자산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기 위한 니즈 증대,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인한 은퇴 후 잔존여명 증대 등으로 인해 자산관리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증대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실질금리는 1990년대 중반까지만해도 4%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2001년부터는 크게 낮아지기 시작하여 2003년에는 0.65% 수준에 머물러 부유층이 예·적금 이외의 다양한 투자상품에 관심을 갖게 되었음.

<그림 1> 우리나라의 실질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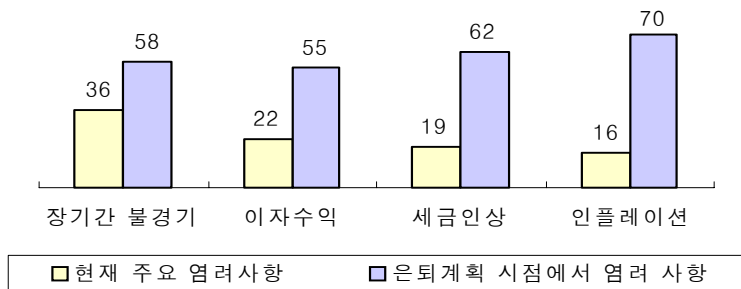


주 : 실질금리=예금은행의 저축성 수신금리-소비자물가상승률
 자료 : <http://ecos.bok.or.kr>

- 경제의 불확실 요인이 증대함에 따라 하락하는 이자율, 인플레이션, 과세정책의 변화, 장기간의 경기침체 등 보유자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는 우발적인 위험에 대비하여 자산의 실질가치를 유지하고자 하는 니즈가 증대하고 있음.
- 미국의 부유층이 보유한 소득·자산의 변동성에 대해 현재 염려하는 사항은 장기간의 불경기 36%, 이자수익 22%, 세금인상 19%, 인플레이션 16% 등으로 나타났다.
- 은퇴를 계획하는 시점에서는 이러한 변동요인에 대한 염려가 더 높아지고 있어 소득·자산의 변동성에 대한 관심이 높음.

<그림 2> 소득·자산의 변동성에 대한 부유층 은퇴자의 염려

(단위 : %)



자료: LIMRA International, *Retirement and the Affluent*, p. 25.

- 우리나라는 1955~1963년 동안 출생한 1차 베이비붐 세대²⁾가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은퇴시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됨.
- 55세 은퇴 후에도 잔존여명이 20~30년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유자산보다 오래 생존할 위험이 상존하고, 이로 인해 퇴직 부유층에 대한 자산관리서비스가 요구됨.

2) 공급측 요인

- 부유층의 이익기여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제한적이지만 겸업이 허용되면서 동일한 고객을 기반으로 한 금융기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부유층 고객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업무의 특성상 리스크가 낮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점이 모든 금융기관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음.
- A은행의 경우 전체 고객의 0.8%를 차지하는 부유층고객이 전체 가계수신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³⁾, 상위 15% 고객의 이익기여도가 85% 정도에 달할 정도로 부유층의 이익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짐.
- A생명보험회사는 상위 15% 고객의 이익기여도가 6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비록 은행보다는 낮지만 보험회사 역시 부유층의 이익기여도가 매우 높음.
- 금융기관들이 안정적인 수익원 확보를 위해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수익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있음.
- 부유층 고객은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수익증권, 보험, 신용카드 등 다양한 상품의 교차구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수수료 수익의 중요한 원천임.

3. 부유층의 고객의 특성

- ☐ 보험회사가 부유층 고객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특성, 니즈 등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 우리나라의 금융자산 규모가 5억원 이상인 부유층과 미국의 금융자산 25만 달러 이상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를 통해 부유층 고객의 특성 및 인식을 분석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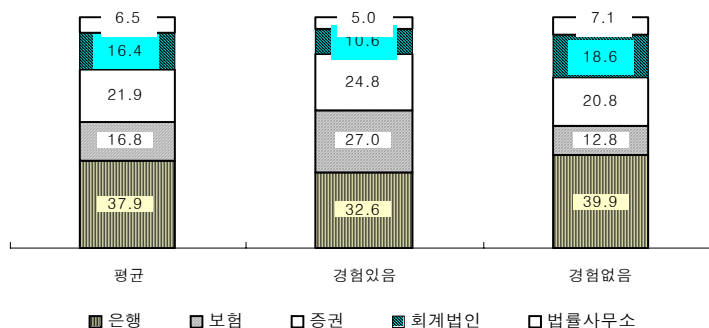
2) 이 시기에는 매년 100만명~106만명 정도가 출생하였음.

3) 매일경제신문, 2002년 1월 3일.

우리나라 부유층의 60% 정도가 향후 재무설계서비스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며, 유경험자가 무경험자에 비해 니즈가 더 높고, 재무설계서비스에 적합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은행, 증권, 보험 순으로 응답

- 우리나라 부유층 중 90% 정도는 재무설계서비스(financial planning service)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동 서비스를 이용할 의향도 60% 수준으로 나타나 자산관리 서비스 이용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음.
- 재무설계 내용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20억 미만 고객은 21%에 불과하지만, 30억 이상 고객은 43%로 높게 나타나, 금융자산 보유 규모가 많을수록 재무설계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기존에 재무설계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의 향후 이용 의향은 85.1%, 경험이 없는 사람은 50.8%로 나타나, 유경험자의 수요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재무설계서비스에 적합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은행(37.9%), 증권(21.9%), 보험(16.8%) 순으로 나타났는데, 동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 비해 경험이 없는 계층의 은행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보험회사를 통해 재무설계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부유층은 12.8%만이 보험회사가 재무설계서비스에 적합한 기관이라고 인식한 반면,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는 27.0%가 적합한 기관이라고 응답하여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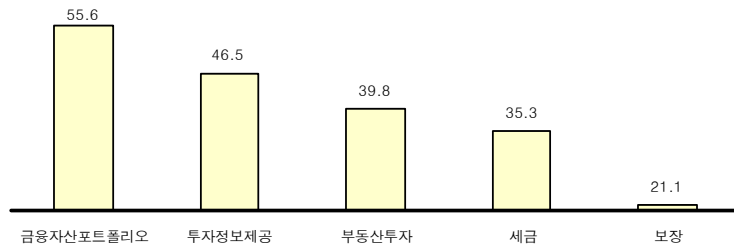
〈그림 3〉 우리나라 부유층의 재무설계서비스 적합기관에 대한 인식



자료: ACNielsen 내부자료, 2003.

- 개인의 특성에 따라 재무설계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니즈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동 서비스에 만족하는 미국 부유층의 경우 대다수가 은퇴 및 투자 관련 설계, 리스크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재무설계서비스에 만족하는 미국 부유층의 경우, 은퇴소득(90%), 투자계획(80%), 생명보험(73%), 세금계획(63%), 상속계획(60%), 자산배분(54%) 등과 같은 분야를 중점적으로 포함하고 있음.
- 이밖에도 소득보상보험(47%), 자녀교육(40%), 배상책임(37%), 자선계획(34%), 장기간병(29%) 등이 포함되었음.
- 우리나라 부유층이 원하는 재무설계서비스의 우선순위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투자정보 제공, 부동산 투자, 세금, 보장 순으로 나타났음.
- 특히, 금융자산 보유 규모가 큰 집단일수록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4> 우리나라 부유층의 재무설계서비스 니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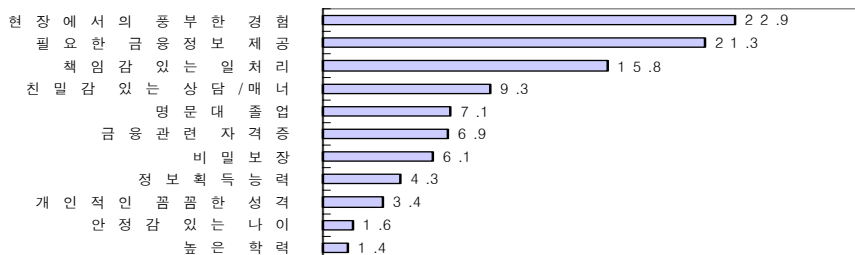
자료: ACNielsen 내부자료, 2003.

미국 부유층의 77% 정도는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여 의사결정을 내리고, 고연령층·고액자산가일수록 전문가 활용도가 높으며, 전문가와의 관계지속 기간과 부유층의 충성도는 비례

- 미국 부유층은 의사결정을 스스로 내리는 경향이 높지만, 77% 정도는 의사결정시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문가의 활용 및 이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 고연령층일수록 관리할 자산의 규모도 크기 때문에 전문가 활용도가 높은 반면, 보유자산 규모가 작고, 저연령층일수록 자산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는 경향이 높음.
- 미국 부유층은 친척, 친구, 동료, 다른 전문가 등 지인의 소개를 통해 금융전문가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조사됨.
- 우리나라 부유층은 재무설계를 해줄 전문가 선택시 풍부한 경험, 금융정보 제공 능력, 책임감 있는 일처리 등 전문성 측면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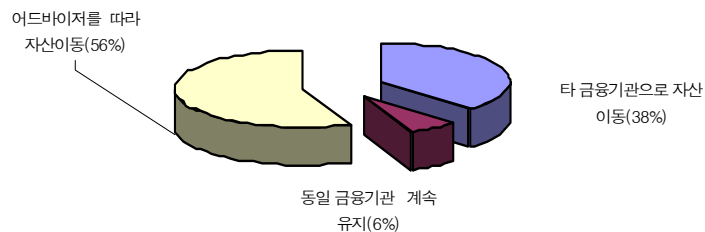
<그림 5> 우리나라 부유층이 FP 선택시 고려사항



자료: ACNielsen 내부자료, 2003.

- 부유층 고객과 금융전문가와의 관계 지속기간이 길면 길수록 부유층 고객의 충성도가 높아져 담당 전문가가 금융기관을 옮길 경우 자신의 자산을 따라서 옮기겠다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전문인력의 확보와 이들과 부유층 고객과의 신뢰관계(relationship)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건임을 시사함.

<그림 5> 미국 부유층의 전문가에 대한 충성도



미국 부유층이 보험회사를 주거래 금융기관으로 인식하는 비중은 낮지만, 주거래 금융기관으로 인식하는 요인은 오랜 기간 동안의 거래관계와 신뢰에 기인

- ☐ 미국 부유층은 대다수가 은행·신용금고 등 저축기관을 주거래 금융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음.
- 부유층의 61%가 은행·신용금고를 주거래 금융기관이라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이들 금융기관과 가장 자주 접촉하고, 당좌예금계좌(checking accounts)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임.
 - 투자 관련 기관을 주거래 금융기관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18% 수준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 부유층이 투자자산의 대부분을 증권사, 뮤추얼펀드회사에 위탁하고 있기 때문임.
 - 보험회사를 주거래 금융기관이라고 응답한 미국의 부유층은 4%에 불과하였는데, 보험회사의 경우 가장 오랜 기간 거래한 장기간의 관계형성 및 신뢰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였음.

<표 1> 미국 부유층이 해당 금융기관을 주거래 금융기관으로 인식하는 요인

(단위: %)

	전체	은행/ 신용금고	보험회사	뮤추얼 펀드회사	증권회사	채무 설계회사
가장 자주 접촉	51	58	33	40	39	47
당좌예금계좌 보유	49	71	28	1	7	23
대부분의 자산 보유	42	27	38	57	72	66
가장 오랜 기간 거래	37	39	49	43	32	28
가장 신뢰	20	16	40	19	33	29
담당 어드바이저 근무	19	6	21	12	56	64

자료: LIMRA International, *Financial Advisors and Institutions Serving the Affluent.*, p.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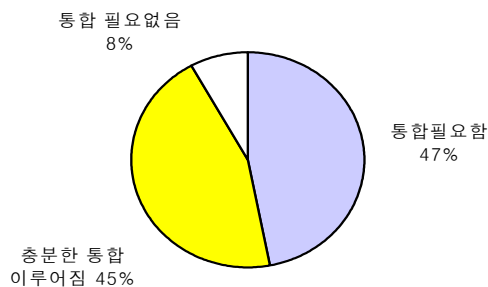
- ☐ 미국 부유층의 금융기관별 투자자산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69%의 자산이 은행·신용금고, 뮤추얼펀드, 증권사 등 3개 금융기관에 집중되어 있음.

- 투자자산의 28%가 은행·신용금고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30%는 증권사, 20%는 뮤추얼펀드, 8%는 보험회사를 통해 관리되고 있음.

미국 부유층은 프라이버시 보호, 금융기관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한 개의 금융기관으로 자산을 통합하여 관리하기를 기피, 통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통합계좌에 대한 수수료 인하, 특별혜택 등의 인센티브 필요

- 미국 부유층 중 자산을 한 개의 금융기관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비중은 37% 수준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통합의 수준은 낮은 편이며, 금융기관통합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음.

<그림 7> 미국 부유층의 금융기관통합에 대한 인식



- 자산을 한 개의 금융회사로 통합하여 관리하기를 기피하는 이유는 프라이버시 보호, 금융기관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다각화를 선호하기 때문임.
- 즉, 미국의 부유층은 다수의 금융기관을 이용할 경우 다양한 종류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높은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을 이동할 필요가 있고, 금융기관 변경에는 비용이 수반된다고 생각하고 있음.
- 한편, 부유층이 금융기관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는 비용 절약, 서비스 수준, 편리성, 전문가나 금융기관의 권유 등인 것으로 나타났음.
- 따라서, 금융기관을 통합하도록 고객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는 수수료 인하, 특별혜택 제공 등과 같은 방법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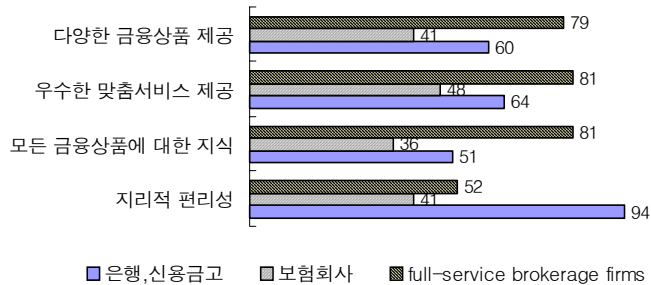
4. 보험상품 활용 및 보험회사에 대한 인식

부유층은 전반적인 인식 및 선호도 측면에서 보험회사에 대해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보험회사가 자산관리에 필요한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기인

- 미국의 부유층은 일반가구에 비해 생명보험 가입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험보장 이외에 부의 이전 수단(wealth transfer)으로 생명보험 상품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배우자 사망시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부부연생보험(survivorship)에 가입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높은 가입률에도 불구하고 본인 및 배우자를 위한 추가 가입 의향이 존재함.
 - 우리나라 부유층이 향후 가입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상품유형은 종신+건강보험(77.1%)이 가장 높고, 종신보험(75.5%), 간병보험(74.0%) 등 전반적으로 보장성보험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⁴⁾.
 - 부유층의 잠재수요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재무설계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부유층은 향후 자신의 자산을 한 개의 금융기관으로 통합하여 관리할 경우, 전반적인 인식 및 선호도 측면에서 보험회사에 대한 선호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보험회사가 경쟁열위적 위치에 있다고 판단됨.
 - 보험회사를 통한 자산통합의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은행, 투자 관련 금융기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미국 부유층이 보험회사가 그들의 자산을 통합하도록 유인하는 자원이나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식한 데 기인한 것임.
 - 즉, 생명보험회사는 부유층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금융상품에 관한 지식과 다양한 유형의 금융상품을 제공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4) ACNielsen 내부자료, 2003.

<그림 8> 미국 부유층의 금융기관에 대한 선호도



주: 매우 우수 또는 우수하다는 응답 집계임.

- 이러한 이유로 인해 생명보험 설계사는 부유층에 대해 보완적인 자문활동(secondary advisors)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에 대한 수요도 주로 세금, 은퇴나 재무계획, 보장선택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 o 우리나라의 부유층 역시 생명보험회사의 재무설계서비스 이용에 부정적인 의향을 갖고 있는 계층은 그 주된 이유로 불안함·전문성 부족, 비밀보장 우려, 투자정보 불만족 등 불안함과 전문성 부족을 약점으로 지적하였음.
- 반면, 보험회사를 통해 재무설계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보험회사의 전문성과 정보제공능력 등을 주요 요인으로 응답하였음.
- 따라서, 보험회사가 부유층을 대상으로 자산관리(재무설계 포함)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는 전문성 및 신뢰성 확보라고 판단됨.

5. 시사점 및 과제

보험회사는 단계적 전략을 수립하여 자산관리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데, 현재와 같은 규제하에서는 부유층과의 관계 강화를 통한 신뢰획득이 우선이며, 규제완화시에는 대상 고객을 확대하고, 본격적인 수수료 수익 확보 필요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유층의 인식, 선호 측면에서 미국이나 우리나라 모두 보험회사가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자산관리사업을 영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함.

- 현 시점에서는 제반 약점과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지만, 향후 업무영역 관련 규제가 크게 완화될 경우 보험회사가 현재 관리 중인 자산을 타 금융기관에 잠식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부유층 고객과의 관계를 더욱 강화해야 함.
- 보험회사는 규제 환경에 따라 단계적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
 - 현재와 같이 투자자문서비스 영위가 제한되어 수수료 수익 창출이 어려울 경우 기존 부유층 고객에 대한 재무설계서비스를 통해 추가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자산관리사업 영위에 따른 비용 요인을 부분적으로 상쇄하는 방안이 요구됨.
 - 부유층은 재무설계를 해 준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은퇴설계를 중심 축으로 한 금융자산 포트폴리오, 투자정보제공, 부동산 투자, 세금 및 보장 부문에 대한 재무설계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부유층의 수익에 대한 기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임.
 - 또한, 부유층은 보험에 대한 추가가입 여력과 가입의사가 있기 때문에 상속 측면을 고려한 부부연생보험, 장기간병보험 등 잠재수요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함.
- 보험회사가 부유층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하여 이들의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담당 전문가의 역할이 중요함.
 - 따라서 보험회사도 풍부한 경험과 다양한 투자 관련 정보제공 능력을 갖춘 금융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채용하고, 지속적으로 보유해야 할 것임.
- 중·장기적으로는 보험회사가 전문성을 제고시킴으로써 자산관리회사로서 갖고 있는 약점인 낮은 인지도와 신뢰성을 향상시켜야 함.
 - 자산관리사업에 대한 보험회사의 규제가 완화되는 환경에서 보험회사가 고객의 총자산 중 더 많은 비중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상품 및 서비스의 범위를 확충해야 하며,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함.
 - 또한, 보험회사가 단순히 보험상품만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능력을 갖춘 금융기관이라는 것을 고객에게 인지시켜야 할 것임.

❖ 외국의 자연재해보험제도 운영현황과 시사점*

유 지 호
보험개발원 화재해상보험팀장

1. 국내 현황 및 도입 필요성

최근 들어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자연재해 위험에 대하여 국가 위험관리정책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한 정책보험으로서 자연재해보험제도를 도입할 필요

-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세계적으로 빈발하는 자연재해는 우리나라에도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주고 있음.
- 최근 10년간(1993년~2002년) 연평균 인명피해(사망 및 실종)는 129명, 재산피해는 약 1조 2,999억 원에 달함.
- 특히, 1998이후 태풍과 집중호우로 인하여 재산피해는 2000년 한해를 제외하고는 매년 1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음.
- 2003년에는 전년도 태풍 ‘루사’에 의한 사상최대피해 6조 1,153억원에 이어 약 5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기록하고 있음.

<표 1> 최근 10년간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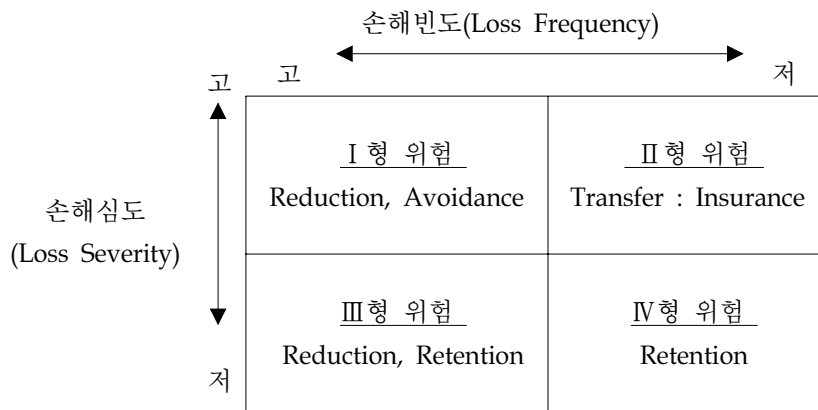
(단위 : 명, 십억원)

구분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인명피해	69	72	158	77	38	384	89	49	82	270
재산피해	197	153	601	483	191	1,583	1,220	645	1,256	6,115

* 본 논문은 보험개발원의 공식견해가 아니라 필자의 개인견해를 밝힘.

- 기상변화에 따른 자연재해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리스크로서 보험화가 어려운 위험으로 분류되어 왔으나, 선진국에서는 축적된 경험과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 자연재해에 대한 예측력을 강화하고 보험의 제도적 효율성을 기초로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보험위험화를 확대하고 있음.
- 자연재해위험은 일반적으로 II형 위험으로 분류되어 보험위험화가 어려운 위험으로 분류되어 왔으며, 그 외에도 누적위험성, 손해평가의 취약성 및 그로 인한 도덕적 위험, 보험회사의 역선택위험 등이 내재된 위험으로 평가되어 왔음.

<그림 1> 위험관리방법 결정 행렬 모형



- 자연재해위험은 충분한 필요 통계 및 정보 등과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하여 위험에 측력이 증대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불확실성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객관적 위험평가 등 보험기술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 2가지 위험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보험수요는 손해가능성이 평균보다 클 때 크게 나타난다는 역선택(anti-selection) 문제가 손해 가능성과 손해액 평가에 대한 정보를 숨길 수 있는 자연재해위험의 경우에서 심각할 수 있음.
 - 자연재해위험에서도 보험가입으로 손해를 방지하려는 유인을 감소시키는 경향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는 보험회사의 시장참여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음.

□ 자연재해 피해 중 사유시설물에 대한 피해는 무상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국가리스크관리의 효율성, 정책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보험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정부의 무상피해복구비지원은 적정복구비 수준에 미흡하여 주민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는 반면, 정부로서는 사유시설물에 대한 피해복구에 지출되는 예산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어 정책적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임.

- 위험관리 주체인 주민들의 자발적 재해예방노력보다는 사후적으로 정부의 복구대책에만 의존하려는 도덕적 해이 현상이 발생되기도 함.

- 또한 지원되는 사유시설물의 대상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고 정부책임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적 근거를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반면, 자연재해보험은 실손보상제도, 신속한 보험금지급, 부수적인 사고예방기능 등 보험기능이 발휘되어 자연재해위험에 적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음.

- 실손보상제도는 현행 사유시설물 무상복구비지원 수준이 실제손해의 약 10%~20%내외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보상수준의 확대가 가능한 제도임.

- 신속한 보험금지급은 피해주민의 입장에서 신속한 복구로 추가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복구가 전제되지 않는 보상기능으로 피해시설에 대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함.

- 또한 민영보험에서는 자기부담제도, 보험요율 할인할증제도 등을 통하여 위험관리주체인 주민 스스로 피해예방활동에 노력하도록 하는 기능을 내포하고 있음.

- 민영보험의 재보험을 통한 위험분산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자연재해위험분산에 적합하고 세계적으로도 일반적인 위험분산 방식임.

□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성공적으로 자연재해 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제도 현황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향후 국내 자연재해보험 제도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 보고서에서 자연재해보험이라 함은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로 주택, 농경지, 비

닐하우스, 축사 등 사유시설물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서, 정부의 지원 및 참여가 전제되는 정책보험으로 개발·운영하는 제도를 말함.

2. 외국의 자연재해보험제도 운영형태

자연재해를 위한 보험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로는, 미국의 연방홍수보험, 캘리포니아주의 지진보험, 일본의 지진보험, 프랑스, 스위스 등 유럽 각국의 화재보험의 강제특약으로 담보하는 자연재해보험 등이 있음.

- ☐ 자연재해보험제도의 보험가입대상은 공통적으로 주거용 건물과 그 수용동산(가재)이 포함되며, 국가별로 보험대상을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음.
 - 미국 홍수보험의 가입대상은 가구, 주거용 건물, 중소기업건물, 교회, 주거 또는 사업용 재물, 농작물, 민간 비영리조직, 주정부 또는 지방정부 소유재물 등이며, 지진보험의 가입대상은 주택건물, 가재임.
 - 프랑스 자연재해보험의 가입대상은 주거용 건물, 동산, 공업 및 사업용 설비, 장치, 동산, 지방자치단체 건물, 동산, 농업용 건물, 온실, 차량임.
 - 스위스 자연재해보험의 가입대상은 건물, 동산(영업용 비품, 동산 및 가재임).
 - 일본 지진보험의 가입대상은 주택, 생활용 동산임.
- ☐ 보험상품(담보위험, 보험가입금액)
 - 미국의 경우 지역별 위험특성에 따라 필요한 보험제도가 개발됨에 따라 단일위험을 담보하는 형태로 운영됨.
 - 프랑스 및 스위스의 경우 자연재해에 대한 포괄적인 담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스위스는 향후 지진담보를 포함할 예정임.

<표 2> 주요국의 보험상품 운영형태

구분	미국(홍수, 지진)	프랑스(자연재해)	스위스(자연재해)	일본(지진)
담보 위험	- 홍수보험 : 홍수 - 지진보험 : 지진	- 홍수, 진흙사태, 지진, 산사태, 함몰, 해일, 물·진흙·용암의 흐름, 얼음·눈의 대량 이동 - 이상적 강도의 재해로 인한 직접손해	- 자연재해 및 자연력과 관련된 위험을 담보 - 지진을 제외한 모든 자연재해	- 지진, 분화 또는 이들에 의한 해일을 직간접 원인으로 하는 화재, 파손, 매몰 또는 유실
보험 금액	- 홍수(First Loss) o 개인물건 건물/동산 25/10만불 o 상업물건 건물/동산 각 50만불 - 지진 o 건물 보험가액 o 가재 5천불(기본) o 임시비용 1만5천불(기본)	-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별도의 제한 없음	- 개인에 대하여 건물/동산 각각 CHF 2천5백만 - 사고당 건물/동산 각각 CHF 2억5천 - 시장전체 CHF 5억(약 4700억원)	- 화재보험가입금액의 30% ~ 50% 수준 - 건물 5천만엔한도 동산 1천만엔한도

□ 보험판매 및 운영체계

o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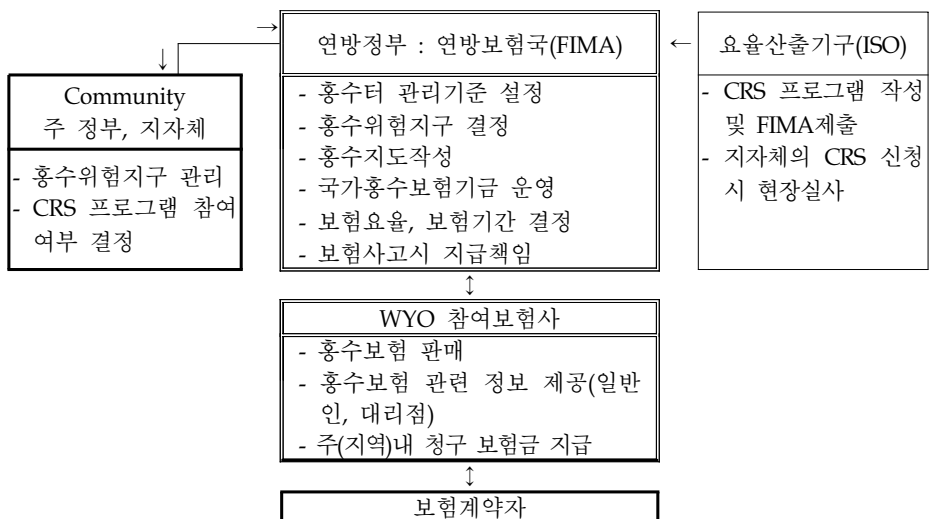
- 홍수보험의 경우 홍수지구관리기준(1968년 국가홍수보험법 1361절)을 충족시키는 홍수관리규칙을 지역공동체가 채택하고 실행할 경우에만 홍수보험을 제공함.
- NFIP의 홍수보험의 판매는 (1) FEMA와 직접 상대하는 주 면허를 받은 재물 및 손해보험 대리점 및 중개인, (2) 1983년 수립된 프로그램인 “Write Your Own(WYO)”에 참여하는 민영보험사에서 이루어짐.
- NFIP 이외의 홍수보험의 경우 일부 보험사들이 홍수보험에서 제공하는 담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초과담보(Difference In Conditions) 형태로 홍수보험을 판매함.
- 홍수위험의 특성상 주거용 주택소유자의 경우 홍수담보를 민간 보험시장에서 구매하기 어려우며, 기업성물건에 대해서만 보험인수하는 것이 일반적임.
- 캘리포니아주의 지진보험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주내에서 가정종합보험

을 판매하는 보험사로 캘리포니아지진담보기구(CEA)회원에 지정되어야 함.

<표 3> 미국의 자연재해 운영현황 요약

구분	미국(홍수)	미국(지진)
운영 형태	- 국가통제(NFIP)(1968년) - 인가대리점 및 민간보험사에 의한 보험계약체결 및 손해사정(WYO, 모든 증권의 95%)	- 주정부 통제(CEA)(1966년) - CEA에 의한 지진보험제도 운영 - 지진전문보험회사에 의한 담보도 제공 - FAIR PLAN 운영
관련 법률	- 1968년 국가홍수보험법	
담보 형태	- 홍수손해 임의담보, - SFHA 저당권자에 대한 의무담보	- 지진손해 임의담보
상품 형태	- 별도의 홍수보험 운영 - 지진은 가정종합보험의 특약으로 운영	-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운영
재보험	- 재보험은 없고 정부보증 - 1999년 재무성에서의 채무USD 922백만	- CEA를 통한 정부의 재보험담보 제공 (총보상한도액 기준)
특징	- 역선택위험이 극히 높고, 높은 보험요율수준 유지 - 보험요율산정시 Hazard zonation 사용 - 연방정부가 무한보증	- 화재보험에 부대하는 의무담보로 역선택위험 감소 - 정부가 CEA를 통한 재보험담보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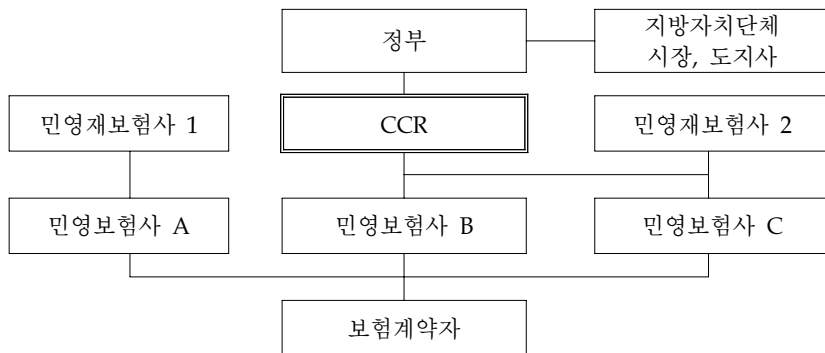
<그림 2> 미국 홍수보험의 운영시스템



○ 프랑스

- 보험계약자는 화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의무적으로 자연재해담보를 가입하고 이에 대한 추가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보험사도 이를 의무적으로 담보해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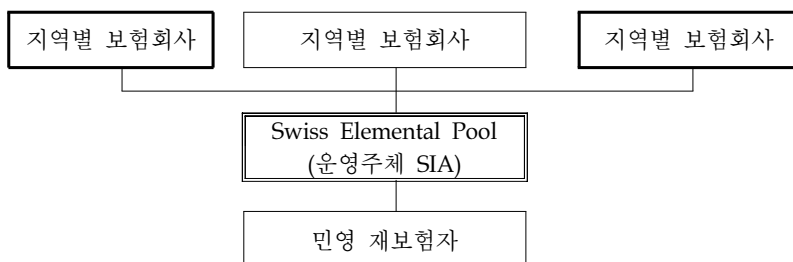
<그림 3> 프랑스 자연재해보험의 운영체계도



○ 스위스

- 보험계약자는 화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의무적으로 자연재해담보를 가입하고 이에 대한 추가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며, 보험사도 이를 의무적으로 담보해야 함.
- 자연재해 Pool 운영에 있어서 정부가 개입하는 사항은 없으며 순수하게 민간 베이스에서 운영되고 있음.
- Pool은 그 구성원에 대한 공통의 재보험 도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여, 민영재보험 시장에 재보험을 처리함.

<그림 4> 스위스 자연재해보험의 운영체계도



o 일본

- 보험사가 화재보험을 판매할 경우 보험계약자의 거부 의사 없는 한 지진담보 특약을 자동적으로 부대하여 담보를 제공함.
- 거대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거액의 보험금 지급이 예상되지만, 손해보험사의 담보력에 한도가 있기 때문에 재보험에 의해 정부가 보험책임을 분담하는 민관일체의 제도를 운영함.

<표 4> 프랑스 · 스위스 · 일본의 운영현황 요약

구분	프랑스	스위스	일본(지진)
운영 형태	- CatNat프로그램운영 - 국가규제 - 보험회사 인수 및 CCR에 재보험(무한보증), - 민간재보험사에 재보험 가능	- 국영보험과 민영보험 공존 - 민영보험 Pool은 9개 주를 대상으로 운영 - 주의 2/3가 건물을 국영 보험에 가입	- 국가통제(1966년) - 가계성지진보험제도 - 보험회사가 인수하여 JER에 재보험, JER이 다시 손해보험사 및 정부에 재재보험
관련 법률	- 1982 자연재해 손실보상에 관한 법	- 1990 자연재해법 (1950부터 실시)	- 지진보험에관한법률 - 지진재보험특별회계법
담보 형태	- 모든 자연재해를 의무담보	- 모든 자연재해(지진 제외)를 의무담보	- 지진손해 의무담보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기본담보로 운영)
상품 형태	-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운영	-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운영	- 가계성화재보험의 특약으로 운영
재보험	- CCR을 통한 정부의 무한보증 제공 (Quota Share, Stop Loss 혼합방식) - 95%의 회사에 대하여 동일 기준 적용	- 공영보험은 정부보증 - 민영보험은 정부보증 이 없으며 Pool에 의하여 위험분산 및 재보험 출재	- 정부, 지진재보험사, 보험사가 위험분산(Excess of Loss 방식) - 참여기관별 책임 한도액을 사전에 확정 - 정부는 특별회계에 의한 재보험기금운영
특징	- 화재보험에 부대하는 의무 담보로 역선택위험 감소 - 정부가 CCR을 통하여 무한보증 제공	- 화재보험에 부대하는 의무 담보로 역선택 위험 감소 - Pool을 통한 위험분산	- 화재보험에 부대하는 의무 담보로 역선택위험 감소 - 정부가 JER과 계약관계에 의하여 담보제공

3. 시사점 및 결론

외국에서는 정부가 보험료 및 사업비의 지원, 재보험의 참여 등을 하고, 보험회사는 담보위험에 대한 인수능력의 확대를 위하여 재보험의 적절한 활용, 보험료의 구성 등을 하여 상호 긴밀한 협조속에서 자연재해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 자연재해보험제도는 외국에서는 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국가별 사회문화적 환경과 경제적 능력 및 전통적인 관습 등에 영향을 받아 국가의 특성에 맞게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측면이 강함.
- ☐ 현재 행정자치부는 무상피해복구비지원제도의 전환제도적 차원에서 자연재해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나, 보험대상과 보험가입한도의 설정 등에 의한 우리나라 정책목적에 적합한 보험제도 구축이 필요함.
 - 보험담보의 범위를 결정할 때 제도적으로 현행의 무상피해복구비 지원규모를 고려할 수는 있으나, 무상피해복구비제도의 유지보전적 제도 전환이 아니라 제도 폐지에 대응하는 제도 전환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보험대상의 선정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사유시설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공시설물(10년간 평균 피해비 중 73.6%)에 대해서도 정부지원과 무관하게 보험위험화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 자연재해보험의 도입을 위한 과제
 - 보험위험화를 위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첫째, 자연재해위험을 분석·평가하여 그 발생가능성과 사고발생시 손해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관리가능한 위험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피해 및 대상시설물에 대한 통계 및 정보의 확보가 필요함.
 - 둘째, 정부의 지원 및 참여범위의 결정 측면에서, 자연재해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민영보험에서 기본적으로 높은 가격을 요구하여 계약자의 부담능력을 초과하므로 보험료 및 보험제도 운영경비의 지원이 필요하며, 보험공급 측면에서도

민영보험의 인수능력을 초과하는 대재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 셋째, 국민적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한데, 유럽 국가들이 위험도는 다르지만 평균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자연재해위험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위험분담에서 차별성 또는 공평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임.
- o 보험회사는 사전적인 위험평가를 근거로 자연재해위험 인수를 위한 조건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자연재해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한 정부지원은 민영보험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동 제도의 시행을 전제로 적정가격의 산출 및 제시, 인수능력의 확대, 재보험확보에 대한 사전적 평가 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정책당국에 제시함으로써 정부가 지원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자연재해보험 도입에 대한 전망

- o 자연재해보험제도의 도입을 위한 법률 제정을 2004년 중 완료하여 2005년 중 시범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
- 보험대상은 비닐하우스와 축사 2개의 사유시설물로 제한하고 무상피해복구비지원에 해당하는 재원은 자연재해보험의 순보험료재원으로 전액 전환하고,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기본으로 시범사업의 실시를 일부 지역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것임.
- 또한 기존 무상피해복구비지원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없이 시설물소유자가 추가로 50%까지 보험금액을 증액하여 가입할 수 있음.
- o 그러나, 아직도 자연재해보험의 시범사업실시를 위하여 결정되어야 할 부분과 민영보험회사의 요구사항은 다양할 수 있음.
- 보험대상에 대해서도 비닐하우스와 축사는 지역적 편중이 있고 농축협시설로 위험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시설로, 시설소유자의 보험료 부담능력이 낮아 적정한 보험료 부과에 한계가 있어 사업성 확보가 원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또한, 사업경비와 재보험참여에 대한 정부의 지원에 대한 결정이 없는 상태임

로 보험회사의 최종적인 비용 및 위험부담 범위가 유동적인 상황에 있음.

- 따라서, 자연재해보험제도가 도입되어 시범사업이 실시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보험회사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공동대책반을 가동하여 보험제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보험산업 환경

1. 해외 경제

전반적인 실물 경제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향후 지속 여부에 대한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달러 및 금리 약세가 지속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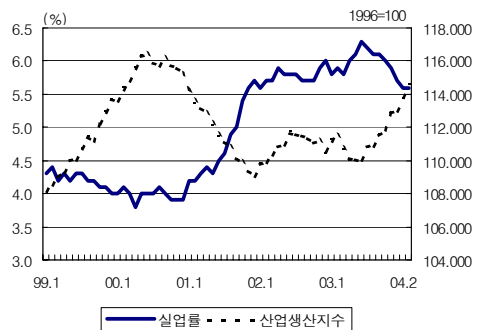
- 현재 세계 실물 경제는 흐름은 회복 국면을 지속하고 있으나 지속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하반기 이후 회복세가 정체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가 제기됨.
- 미국은 2004년에 들어서도 산업생산이 증가하고 실업률이 하락하는 등 회복국면을 지속하고 있으나 회복 속도는 다소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산업생산지수는 114.59를 기록하여 2000년 12월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미경제의 전반적인 회복세를 반영함.
 - 그러나 실업률은 1월에 이어 2월에도 5.6%를 기록하고 소비자신뢰지수가 같은 기간 96.4에서 87.3으로 하락하는 등 회복세가 약화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대규모 경상수지 및 재정적자도 하반기 이후 경기 회복에 부담이 될 것임.
- 일본 경제는 생산, 투자, 소비 등에서 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은 고성장을 지속하고 있으나 동시에 과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음.

<표 1> 주요지역 성장률 추이

	2002 연간	(전기대비 연율 %)				
		연간	2003			
			1/4	2/4	3/4	4/4
미 국	2.2	3.1	2.0	3.1	8.2	4.1
독 일	0.2	-0.1	-0.2	-0.2	0.2	0.2
일 본	0.2	2.7	0.6	0.8	0.6	1.6
중 국	8.0	9.1	9.9	6.7	9.1	9.9

주 :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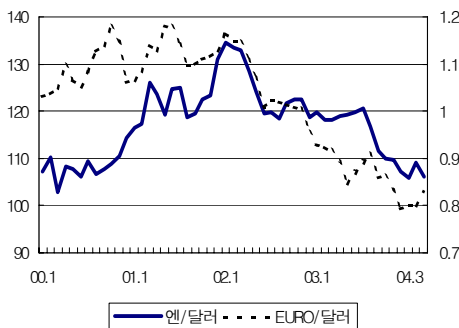
<그림 1> 미국의 생산과 실업률 추이



보험산업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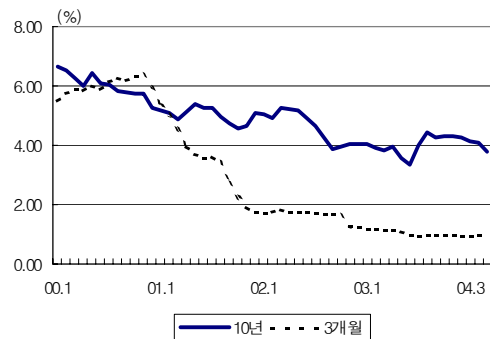
- EU경제는 뚜렷한 경제 지표의 개선 없이 2003년 하반기와 유사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 유로지역 실업률은 2004년 1월에도 2003년 4/4분기와 동일한 8.8%를, 2월 경기체감지수는 2003년 11월과 동일한 96.0으로 나타났음.
- 세계 금융시장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달러화 약세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임.
- 2003년 4/4분기 이후 진행된 달러 약세 기조가 2004년에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는 상태임.
- 엔/달러는 2003년 4/4분기 이후 달러당 105~110엔 수준이 유지되고 있음.
- 달러/유로는 2003년 12월 1.2 (유로/달러 0.83)를 상회하여 2002년말 대비 약 20%의 절상률을 기록했으며 2004년 3월에도 유로 강세를 유지하고 있음.
- 미연준은 경기 회복세가 아직 확고하지 못하다는 판단 하에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단기금리가 1% 전후의 초저금리 상태를 지속하고 있음.
- 장기금리는 2003년 중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로 빠르게 상승한 이후 오히려 완만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최근 미국 경기의 불투명성을 반영함.

<그림 2> 국제환율 추이



주 : 뉴욕시장 종가기준 (월말)
3월은 26일지표 사용

<그림 3> 미국 국채 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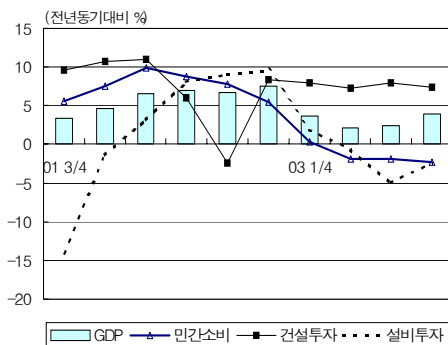
주 : 3월은 19일지표 사용
자료 : FRB St. Luise

2. 국내 경제

우리 경제는 저금리와 원화 약세의 기조 속에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내수는 아직 부진한 상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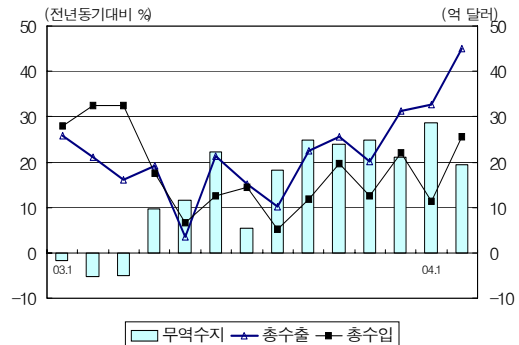
- 내수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은 2003년 2/4분기 2.2%에서 4/4분기에는 3.9%로 회복함.
- 2003년 4/4분기 민간소비와 설비투자는 각각 -2.2%, -2.4%를 기록하여 3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음.
 - 건설부문은 기수주 물량에 의한 공사로 2003년 중 꾸준히 7%대의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건설 수주 물량이 4/4분기부터 급속히 감소하고 있어 향후 증가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높음.
- 수출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급증하면서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경제 성장도 견인하고 있음.
 - 세계 경제 회복세로 수출이 급증한 반면, 수입은 내수 부진에 따라 상대적으로 저조한 증가세를 보여 2004년 초 이례적으로 큰 폭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함.
 - 1, 2월 수출증가율은 32.7, 45.0%를 기록, 같은 기간 수입증가율 11.2, 25.5%를 크게 추월하면서 약 48억달러의 대규모 흑자를 기록함.

<그림 4> 부문별 성장률 추이



자료 :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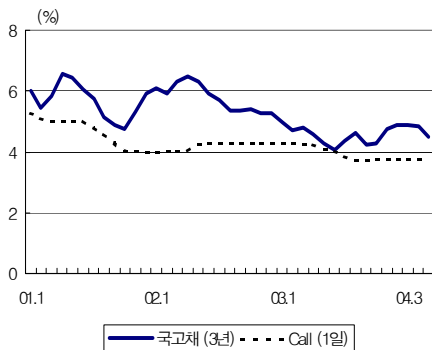
<그림 5> 형태별 수출증가율 추이



자료 : 산업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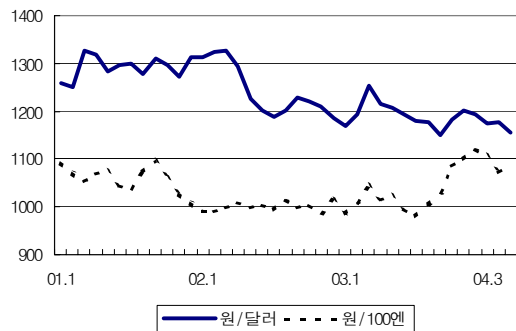
-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환율은 2003년 4/4분기에 나타났던 환율 상승(원화 약세)분을 원상 회복하는 수준의 강세를 시험함.
- 내수 경기 부진의 지속에 따라 통화당국은 단기금리를 3%대로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기조는 내수 회복세가 가시화 될 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 장기금리는 4/4분기 들어 소폭 상승하였으나 이후 횡보 또는 하락세를 나타내며 전체적으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함.
 - 금리 추이는 국제 금리와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 향후 미연준 등 주요 금리 결정 기구의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원/달러 환율은 전세계적인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의 불안정성과 정책 당국의 의지에 따라 2003년 10, 11월 중 상승세를 보였으나 2004년 1, 2월 중 하락세를 보여 2003년 9월 수준으로 회귀함.
 - 2003년 12월 이후 원화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달러화 약세 기조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규모 국제 수지 흑자도 지속되고 있어 당분간 원화는 강세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최근 원화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엔화 역시 강세기조를 보이고 있어 원/엔 환율은 전체적으로 11:1의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임.

<그림 6> 국내 장단기 금리 추이



주 : 3월은 26일자 지표
자료 : 한국은행

<그림 7> 원화 환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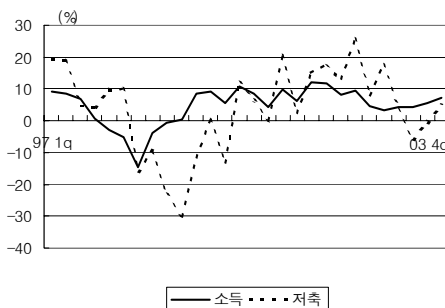
주 : 3월은 26일자 지표
자료 : 한국은행

3. 보험시장 여건

기업의 생산 활동이 수출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계 부문의 경제 여건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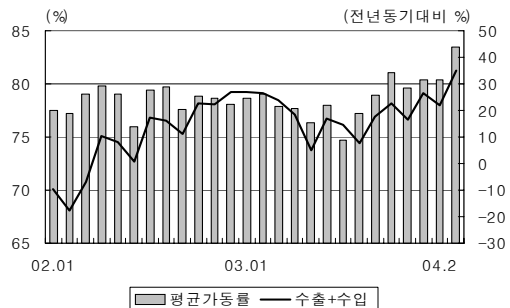
- 수출을 중심으로 산업 부문이 높은 가동률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가계 부문의 경제 여건도 소득과 저축 모두 다소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근로자가구의 경상 소득 증가율은 2003년 상반기 중 4%대의 저조한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었으나 3/4, 4/4분기에는 각각 5%대 7%대로 회복되어 완만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 증가율의 정체와 함께 감소세를 보였던 저축도 2003년 4/4분기에는 소폭 증가세로 반전되어 가계 경제가 재정 운영에 있어 다소 여유를 확보해가는 것으로 판단됨.
- 2004년에 들어서도 수출의 급증세가 지속되면서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8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내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에 의해 파생되는 수입 증가로 교역(수출+수입) 증가율이 30%를 상회함.

<그림 8> 가계 소득·저축 증가율



자료 :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주 : 저축=소득-비소비지출-소비지출

<그림 9> 교역량, 가동률 추이



자료 : 통계청, 산업자원부
주 : 교역량=수출액+수입액

보험산업 환경

- 2003년 4/4분기(FY03 3/4분기)중 시중자금은 카드사 문제에 따른 금융 시장 불안과 금리 상승으로 은행과 보험사에 큰 폭으로 유입되었음.
- 보험은 4/4분기(FY 3/4분기) 중 방카슈랑스 채널을 통한 일시납 형태의 보험가입이 크게 증가하면서 2003년 1/4~3/4분기 대비 분기 평균 4조가량 초과하는 자금 유입이 발생함.
- 카드사 유동성 위기와 더불어 금리가 약 0.5%p(국고채 3년 기준) 상승하면서 투자형 상품의 수익성이 악화되었고 이에 따라 투신사, 종금사, 은행 신탁계정으로 부터 약 25조의 자금 유출이 발생함.
- 반면, 은행의 일반 계정에는 약 22조원의 자금유입이 발생하여 사실상 투자형 금융 상품으로부터 유출된 자금이 대부분 흡수된 것으로 판단됨.
- 보험산업의 환경은 산업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문의 경제여건도 완만하나마 개선되고 있어 대내 여건의 변화 방향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됨.
- 그러나 미국, 중국 등 성장주도 국가의 지속적인 경기 상승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련 동향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임.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 억원, %)

	2002		2003			
	3/4	4/4	1/4	2/4	3/4	4/4
보 험	68,236	76,573	45,805	50,356	47,189	88,743
생명보험	51,278	62,076	30,629	34,893	34,893	74,824
손해보험	16,958	14,497	15,176	15,443	12,296	13,919
은 행	92,267	138,510	23,484	73,895	-30,594	189,814
일반계정	111,084	140,221	45,937	144,380	1,512	221,476
신탁계정	-18,817	-1,711	-22,453	-70,485	-32,106	-31,662
증 권	-15,666	-2,879	35,535	-2,503	-6,525	5,843
투 신	49,664	-2,159	-80,618	-90,539	63,286	-178,020
종 금	-9,672	-2,463	24,512	-61,400	-21,375	-38,056

주 : 1) 보험사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한 금액

2) 본 표는 다수의 동향보고서에서 정리한 것으로 한국은행 공식통계는 아님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이태열 연구위원)

보험지표동향

1. 보험산업 총괄

가. 수입보험료

FY2003 3/4분기 보험산업의 수입보험료는 경기회복지연에도 불구하고 신채널의 약진으로 전년동기 대비 견실한 성장을 이룸.

- FY2003 3/4분기 보험산업의 전체 수입보험료는 생명보험이 안정적 성장을 하고 손해보험이 소폭 증가하면서 21조 1,837억원을 기록, 전년동기대비 견실한 성장을 함.
- 생명보험은 방카슈랑스 시행에 따른 생존보험의 큰 폭 증가와 사망보험의 지속적 증가에 힘입어 수입보험료가 전년동기대비 6.5%의 견실한 성장을 함.
- 개인보험의 경우 사망보험의 성장률감소에도 불구하고 생존보험을 위시한 방카슈랑스 허용 보험상품의 수입보험료 증가로 전년동기 대비 15.8% 증가한 반면 단체보험은 계절적 요인에도 감소세가 지속됨.

<표 1> 생/손보사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연도 종목	FY2002				FY2003		
	2/4	3/4	4/4	연간	1/4	2/4	3/4
생명보험	113,917	145,448	115,697	490,668	114,004	114,759	154,927
	2.5	4.8	3.6	3.6	-1.4	0.7	6.5
손해보험	51,409	54,958	50,083	205,944	51,163	52,768	56,910
	10.9	10.5	7.4	10.2	3.4	2.6	3.6
합계	165,326	200,406	165,782	696,614	165,167	167,527	211,837
	5.0	6.3	4.7	5.5	0.04	1.3	5.7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손해보험은 장기손해보험과 특종보험의 수입보험료 증가에 기인하여 FY2003 3/4 분기 수입보험료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하여 성장이 다소 회복됨.
- 자동차보험은 마이너스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질병보험 중심의 장기손해보험 성장과 일부 특종보험 실적이 호전되면서 다소 성장함.

나. 총자산

FY2003 3/4분기 국내 보험산업 총자산의 경우 생명보험 5.2%, 손해보험 2.4%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전분기 대비 4.7% 증가함.

- FY2003 3분기 보험산업 총자산 규모는 221조 1,018억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분기에 비해 안정적 성장을 이루어 전분기대비 4.7% 증가함.
- 생명보험 총자산은 183조 2,379억원으로 수입보험료의 안정적 증가에 따라 금융시장 변동성에 따른 투자이익 축소에도 불구하고 전분기 대비 5.2% 성장함.
- 손해보험 총자산은 투자이익의 증가 및 원수보험료의 성장둔화와 발생손해액 증가로 전분기 대비 2.4% 증가한 37조 8,639억으로 성장함.

<표 2> 생/손보사 총자산

(단위 : 억원, %)

연도 종목	FY2002				FY2003		
	2/4	3/4	4/4	연간	1/4	2/4	3/4
생명보험	1,537,809	1,632,661	1,642,225	1,642,225	1,692,543	1,741,212	1,832,379
	3.6	6.1	0.6	14.8	3.1	2.9	5.2
손해보험	339,338	352,114	353,683	353,683	361,677	369,919	378,639
	2.9	3.8	0.4	8.1	2.2	2.3	2.4
합계	1,877,147	1,984,775	1,995,908	1,995,908	2,054,220	2,111,131	2,211,018
	3.4	5.7	0.6	13.6	2.9	2.8	4.7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분기 및 전년 대비 증가율임.

2) 특별계정이 포함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및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김진익 선임연구원)

2. 생명보험

가.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FY2003 3/4분기 생명보험산업은 방카슈랑스의 일시납보험 급증으로 전년동기 대비 6.5% 증가한 15조 5천억원 규모의 수입보험료를 기록하였으며, 총자산 규모는 183조 2천억원을 시현하여 전분기말 대비 5.2% 증가함.

- FY2003 3/4분기 전체 생명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는 생존보험과 사망보험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결과 전년동기 대비 6.5% 증가한 15조 4,927억원 수준을 기록함.
- 개인보험의 경우 방카슈랑스 시행 후 일시납 보험의 큰 폭 증가와 사망보험의 지속적인 증가에 힘입어 수입보험료가 전년동기 대비 15.8% 증가한 12조 4,091억원을 시현하였음.
 - 단체보험의 경우 퇴직보험의 수요가 집중된 계절적인 요인으로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전년 동기의 상대적 비교에서 19.6% 감소한 3조 836억원을 시현함.

<표 3>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2				FY2003		
	2/4	3/4	4/4	연간	1/4	2/4	3/4
총 자 산	1,537,809	1,632,661	1,642,225	1,642,225	1,692,543	1,741,212	1,832,379
	3.6	6.1	0.6	14.8	3.1	2.9	5.2
수입보험료	113,917	145,448	115,697	490,668	114,004	114,759	154,927
	2.5	4.8	3.6	3.6	-1.4	0.7	6.5

주 : 1) 총자산 및 수입보험료는 변액보험 및 퇴직보험 특별계정을 포함한 실적임.

2) 하단의 비율은 전분기(총자산) 또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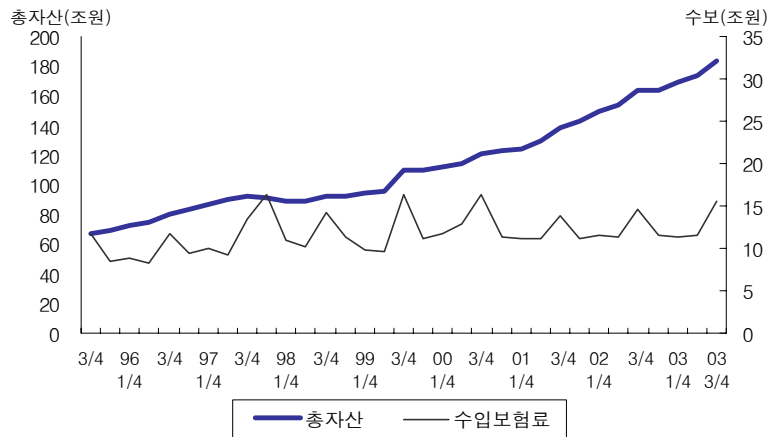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3 12월말 총자산 규모는 183조 2,379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5.2% 증가함.

- 보유계약의 지속적인 증대에 따른 계속보험료의 증가 및 준비금 규모의 증가, 투자수익 증대 등으로 총자산은 건실한 성장을 한 것으로 분석됨.

<그림 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총자산 변동추이



□ FY2003 3/4분기 개인보험의 종목별 수입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15.8% 증가한 12조 4천억원 이상의 실적을 거두었으나, 방카슈랑스의 실적을 제외할 경우 전년동기 대비 4.3% 감소하여 생보사 본체영업에 의한 실적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사망보험은 전년동기 대비 7.0% 증가하여 5조 7,714억원의 수입보험료 실적을 거두었으나, 전년도 연평균 증가율(21.4%)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2003년 12월말 현재 종신보험의 초회보험료가 전년동기 대비 29.7% 감소하는 등 신계약 감소에 따른 종신보험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나, 반면 종신보험을 제외한 보장성보험의 초회보험료는 3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연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생존보험은 세제지원 축소의 직전효과와 방카슈랑스의 일시납 보험의 급증으로 전년동기 대비 5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방카슈랑스를 제외한 생보사 본체에 의한 판매는 13.6% 증가함.

- 단기 저축성보험이 대부분인 생사혼합보험은 외환위기 이후 판매된 5년만기 고금

리저축성 상품의 만기도래 및 저축성보험에 대한 지속적인 판매 축소로 인하여 전년대비 9.5% 감소하였으며, 방카슈랑스를 제외할 경우 18.4% 감소함.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2				FY2003		
		2/4	3/4	4/4	연간	1/4	2/4	3/4
생존	보험료	22,121	23,611	24,311	91,424	23,901	26,555	37,028
	성장률	23.5	25.9	19.0	22.0	11.8	20.0	56.8
	구성비	19.4	16.2	21.0	18.6	21.0	23.1	23.9
사망	보험료	52,684	53,949	54,756	211,701	55,609	55,989	57,714
	성장률	22.5	19.7	15.1	21.4	10.5	6.3	7.0
	구성비	46.4	37.6	47.3	43.1	48.8	48.8	37.3
생사혼합	보험료	26,869	28,877	26,959	110,392	23,465	22,985	26,139
	성장률	-16.5	-12.4	-10.7	-14.1	-15.2	-14.5	-9.5
	구성비	23.6	19.9	23.3	22.5	20.6	20.0	16.9
변액보험	보험료	145	679	1,059	1,976	920	1,136	3,210
	성장률	-	-	-	-	887	682.7	372.6
	구성비	0.1	0.5	0.9	0.4	0.8	1.0	2.1
개인계	보험료	101,818	107,116	107,084	415,493	103,895	106,665	124,091
	성장률	9.2	10.6	9.0	10.0	4.4	4.8	15.8
	구성비	89.4	73.6	92.6	84.7	91.1	92.9	80.1
단체	보험료	12,098	38,332	8,613	75,175	10,108	8,094	30,836
	성장률	-32.5	-8.6	-35.9	-21.6	-37.3	-33.1	-19.6
	구성비	10.6	26.4	7.5	15.3	8.9	7.1	19.9
합계	보험료	113,917	145,448	115,697	490,668	114,004	114,759	154,927
	성장률	2.5	4.8	3.6	3.6	-1.4	0.7	6.5

주 :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 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 최근 5개월간('03.9 - '04.1) 방카슈랑스를 통한 생명보험 영업실적은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2조 433억원이며, 보험계약 건수 기준으로 222,609건으로 나타나 건당 평균

918만원의 초회보험료의 실적을 거두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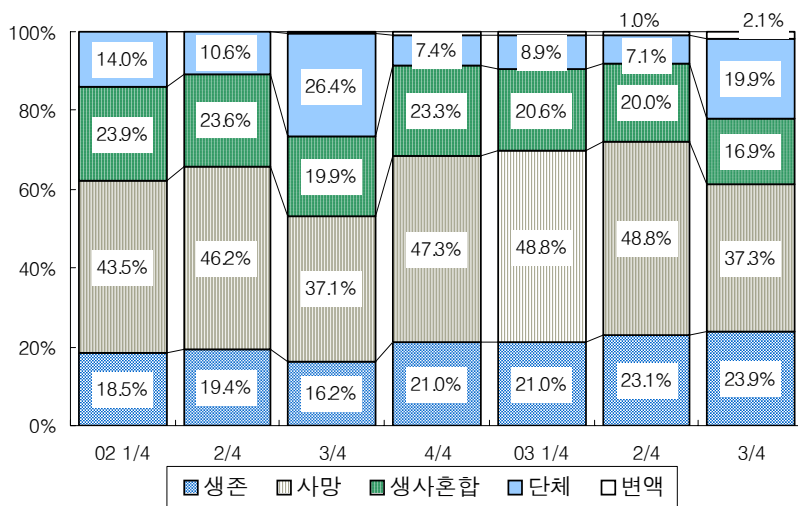
- 상품별 실적은 연금보험이 1조 4,592억원으로 전체 초회보험료의 71.4%, 저축성보험이 5,842억원으로 28.6%를 나타냈음.
- 시행 초기 3개월간(2003년 9~11월)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의 시장점유율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11.7%, 계약건수 기준으로 3.1%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나, 방카슈랑스를 통한 신규보험 수요 창출이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됨.
 - 2003년 11월말 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은 1단계 방카슈랑스 허용종목(연금/저축성보험)의 경우 초회보험료 기준 85.6%, 수입보험료 기준 23.1%를 기록하였으며, 생명보험시장 전체에서는 각각 73.5%, 11.7%를 기록함.
 - 신계약건수를 기준으로 볼 때 1단계 허용종목(연금/저축성보험)의 경우 39.0%, 생명보험 전체의 경우 3.1%의 점유율을 기록함.
- '90년대 중반 외국사를 중심으로 판매되던 종신보험은 2001년 대형사의 집중적인 시장공략으로 판매량이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이후 종신보험의 시장포화로 판매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음.
 - 종신보험의 초회보험료는 외국사 위주로 영위된 2000년에는 월 142억원에서 국내사의 시장 진입으로 2001년 월 697억원을 정점으로 2002년 544억원, 2003년 12월에는 486억원으로 하향 안정적인 추세를 보임.
 - 종신보험시장은 회사 장기금리의 불확실성에 따른 금리리스크 증대와 소비자의 건강보장에 대한 니즈 증가에 따라 종신보험에 대한 상품판매 포트폴리오가 바뀌고 있음.
 - 종신보험 유형별로는 확정금리를 보장하는 확정금리형이 2001년 89.8%에서 2003년 12월말에는 40.1%로 크게 감소한 반면, CI종신보험과 금리연동형 종신보험은 동기간에 높은 성장률을 보임.
 - 특히, CI종신보험의 경우 2002년 개발되어 2003년 12월 한달 초회보험료가 167억원으로 종신보험의 34.2%을 점유하고 있음.
 - 향후 금융시장이 안정화되고 방카슈랑스 시장이 확대될 경우 복합금융상품, 투자형상품, 건강보험형 상품 등에 대한 소비자 니즈의 증가로 변액종신보험, 장기간

병보험, CI종신보험 등 투자형 및 건강보험형 종신보험시장의 활성화가 예상됨.

- 저금리기조의 지속으로 소비자의 금리민감도가 높아지면서 금리의존도가 높은 소비자를 중심으로 금리연동형 및 실적배당형 등의 금융형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
 - 자산운용 환경의 개선으로 변액보험이 전체 생명보험회사로 확산되는 추세에 있고, 변액종신보험 및 변액연금의 판매에 이어 2003년 7월부터 변액유니버설보험이 처음으로 판매되는 등 투자형 보험상품의 개발 및 판매가 확대되고 있음.
 - 변액종신보험의 경우 FY2003 3/4분기 652원의 실적을 기록하여 전분기 대비 14.6% 증가하였으며, 2002년 10월 이후 판매된 변액연금도 12월말까지 2,419억원의 실적을 기록하여 전분기 대비 349% 증가하였음. 변액유니버설보험도 139억원을 기록함.
- 단체보험 실적이 감소세를 보인 원인은 경기침체 지속으로 기업의 보험수요가 크게 위축되어 신규 수요가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임.
 - FY2003 3/4분기 단체보험의 수입보험료는 기업의 결산이 집중된 계절적인 요인으로 분기중 퇴직보험의 수입보험료가 크게 증가하는 효과가 있으나, 전년동기 대비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퇴직보험을 제외한 일반 단체보험의 경우도 전년동기 대비 19.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단체보험이 감소한 것은 퇴직보험의 경우 기업의 퇴직금 중간정산과 종퇴보험의 퇴직보험 전환계약 소진으로 인하여 신규계약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 단체보험은 저금리 기조의 지속에 따른 시장금리 하락으로 주력상품인 금융형상품의 수입보험료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기 때문임.
- FY2003 3/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구성비는 사망보험이 3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다음으로 생존보험 23.9%, 생사혼합보험 16.9%, 단체보험 19.9%순인 것으로 나타남.
 - 보험종목별 구성비의 특징은 첫째, 기업의 회계결산이 집중된 계절적인 요인으로 단체보험의 구성비가 큰 폭으로 증가함.
 - 둘째, 고금리저축성 상품에 대한 지속적인 판매 축소의 영향으로 2003년부터 생존보험이 생사혼합보험보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구성비의 순서에 변화가 발생

- 셋째, 종신보험시장 정체 현상으로 사망보험의 비중이 2002년 2/4분기 이후 4분기만에 30%대로 하락함.
- o 개인 보장성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비중이 41.9%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계약 건수 기준으로 86.0%를 차지하는 등 생명보험회사에서 판매되는 보험상품의 과반수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2> 생명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동추이



- FY2003 3/4분기중 수입보험료 기준 회사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이 감소한 반면 국내 생보사의 시장점유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o 상위 3사의 경우 내실위주의 경영전환으로 FY2002 2/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3/4분기 현재 71.5%의 시장점유율 기록함.
- o 국내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경우 방카슈랑스 도입후 초회보험료의 급증과 TM·CM·홈쇼핑 등 새로운 판매채널을 통한 적극적 판매전략으로 시장점유율이 각각 15.5%, 13.0%로 나타남.
- 외국사의 경우 알리안츠생명의 시장점유율 하락의 영향으로 분기중 시장점유율은 1%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5> 생명보험시장 회사별 분기중 시장점유율(수입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2				FY2003		
	2/4	3/4	4/4	연간	1/4	2/4	3/4
상위 3개사	75.4	76.3	74.5	75.8	74.2	71.7	71.5
상위 9개사	92.3	92.1	91.8	92.3	91.4	89.9	87.7
외 국 사	10.7	9.4	12.0	10.5	12.5	14.0	13.0
국내중소형사	13.9	14.2	13.6	13.7	13.3	14.3	15.5
허편달지수	0.2267	0.2254	0.2201	0.2271	0.2157	0.2015	0.1969

주 : 1) 퇴직보험 및 변액보험 특별계정 수입보험료를 포함한 실적임.

2) 허편달지수는 각사 시장점유율을 제공한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냄.

3) 외국사는 지분변동을 기준, 2003년 12월말 알리안츠 등 11사이며, 하나, ING, SH&C는 국내지분이 있으나 외국사로 간주함.

4) 국내중소형사(9개사)는 상위 3사와 외국사를 제외한 보험사로 함.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나. 수지상황

FY2003 3/4분기 당기손익은 흑자를 시현하였으나, 보험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흑자규모가 전년동기 대비 약 1조 7천 5백억원 정도 감소한 2조 474억원을 시현함.

□ 보험수지차는 경기침체의 지속에도 불구하고 수입보험료가 증가하고 지급보험금이 감소됨에 따라 전년동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지급보험금은 종신보험의 보험금 지급 증가 및 슈퍼재테크 보험의 만기도래의 영향으로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였으나, 지급보험금의 기여도가 높은 환급금의 지급이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보험수지차 개선에 주 요인이 된 것으로 분석됨.

- 가계신용 불안의 확대 및 노동시장 불안 등으로 개인 금융자산에 대한 유동성 확보를 위한 실효·해약이 증가하면서 개인보험의 환급금은 증가하였으나, 퇴직보험을 포함한 단체보험의 환급금이 전년동기 대비 61% 감소하면서 환급금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침.

- 이에 따라 FY2003 3/4분기 보험수지차는 전년동기 대비 1조 1천 5백억 정도 증가한 5조 1,822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음(단, 사업비는 이연신계약비 상각전 실제사업비 기준).

<표 6> 생명보험 지급보험금 및 사업비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2				FY2003		
	2/4	3/4	4/4	연간	1/4	2/4	3/4
수입보험료	113,917	145,448	115,697	490,668	114,004	114,759	154,927
	2.5	4.8	3.6	3.6	-1.4	0.7	6.5
지급보험금	62,639	82,372	85,068	294,180	79,111	75,550	80,103
	-27.2	-13.5	27.9	-14.4	23.4	20.6	-2.7
사 업 비	21,029	22,758	21,407	85,196	19,947	20,426	23,002
	10.5	12.5	3.8	8.9	-0.3	-2.9	1.1

주 : 1) 특별계정을 포함하였으며, 사업비는 신계약비 상각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사업비임.

2) 하단의 비율은 증감률로 전년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 FY2003 3/4분기 당기손익은 보험영업이익 및 투자영업이익의 감소의 영향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여 전년동기 대비 1조 7,565억원 감소한 2조 474억원을 시현하였음.
 - 보험영업이익은 퇴직보험을 제외한 일반계정의 지급보험금 증가와 종신보험의 판매증에 따른 신계약비상각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손익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됨.
 - 투자영업이익은 투자영업수익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LG카드의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의 투자비용이 크게 확대되어 전년동기 대비 436억원 감소한 6조 5,585의 흑자를 기록하였음.
 - 한편, FY2003 3/4분기 생명보험산업은 전년동기 대비 흑자규모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적자를 기록한 회사가 23개 생보사중 4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표 7> 생명보험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2			FY2003		
		2/4	3/4	4/4	1/4	2/4	3/4
총 수 익	보험영업	224,636	341,200	457,713	111,565	225,632	356,191
	투자영업	52,974	79,625	105,707	28,480	57,164	84,098
	기타	4,895	8,053	8,951	3,572	8,323	5,638
	계	282,505	428,878	572,371	143,617	291,119	445,928
총 비 용	보험영업	144,796	237,824	337,132	93,112	185,220	281,384
	투자영업	8,862	13,604	23,368	5,001	10,121	18,513
	기타	9,907	13,094	15,951	9,188	15,850	15,437
	계	163,566	264,522	376,451	107,301	211,191	315,334
수 지 차	보험영업	79,839	103,376	120,581	18,453	40,412	74,807
	투자영업	44,112	66,021	82,339	23,479	47,043	65,585
	기타	-5,012	-5,041	-7,000	-5,616	-7,528	-9,798
	계	118,939	164,356	195,920	36,316	79,928	130,593
준비금전입		92,719	126,316	160,325	28,134	61,671	109,932
법인세		-	-	7,275	96	187	187
당기순이익		26,221	38,039	28,320	8,086	18,069	20,474

주 : 1) 분기실적은 누계치임.

2) 특별계정을 제외한 일반계정 실적이며, 기타손익은 기타수지 및 특별손익의 합계임.

자료 :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다. 자산운용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 규모는 전분기 대비 5.2% 증가한 183조 2,379억원이고, 유가증권, 대출채권, 부동산, 현·예금 순으로 자산운용 포트폴리오가 구성되었으며, 채권중심의 투자유가증권 보유비중의 확대가 지속됨.

□ FY2003 12월말 생명보험회사의 총자산은 183조 2,379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5.2% 증가함.

○ 보험사 그룹별 자산점유율을 살펴보면, 대형3사의 경우 79.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중소형사는 8.2%, 외국사 12.3%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음.

□ 생명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유가증권이 총자산의 53.7%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출채권 27.0%, 부동산 5.3%, 현·예금 2.1%의 구성을 보이고 있음.

○ 유가증권의 항목별 구성비는 채권 등의 비중이 45.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식의 비중이 4.8%, 수익증권의 비중이 3.8% 수준임.

<표 8> 생명보험회사 자산구성 및 투자수익률

(단위 : %)

구 분	FY2002				FY2003					
	3/4		4/4		1/4		2/4		3/4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현·예금 및 예치금	2.3	5.1	2.1	5.3	2.1	4.1	1.9	3.4	2.1	2.9
유 가 증 권	51.1	8.0	50.8	10.8	51.2	7.7	52.3	7.0	53.7	6.9
○ 상품유가증권	5.5	10.9	4.0	11.3	3.6	20.1	3.7	10.3	3.2	11.3
- 주 식	0.2	15.3	0.1	19.4	0.1	115.0	0.2	66.5	0.2	82.5
- 채권 등	2.4	21.6	2.2	25.9	2.4	24.6	1.9	10.7	1.9	9.6
- 수익증권	3.0	3.9	1.7	4.7	1.3	6.7	1.6	5.8	1.2	8.2
○ 투자유가증권	45.6	7.7	46.8	7.8	47.6	6.7	48.6	6.8	50.5	6.6
- 주 식	4.2	4.0	3.5	5.2	4.1	2.7	4.2	3.7	4.6	2.9
- 채권 등	38.6	8.0	40.5	11.0	40.7	7.5	41.6	7.4	43.3	7.1
- 수익증권	2.8	7.5	2.8	6.5	2.9	2.1	2.9	2.6	2.6	4.5
대 출 채 권	28.7	10.8	28.8	10.8	28.6	10.1	27.9	10.3	27.0	10.3
부 동 산	6.1	4.1	6.0	3.6	5.7	3.2	5.5	3.2	5.3	3.3
운 용 자 산 계	88.2	8.6	87.8	8.6	87.6	8.1	87.6	7.7	88.1	7.7
비 운 용 자 산	11.8	-	12.2	-	12.4	-	12.4	-	11.9	-
일반계정 자산 계	100.0	7.8	100.0	7.7	100.0	7.5	100.0	7.5	100.0	7.2
	91.6		92.0		92.2		92.4		91.7	
특 별 계 정 자 산	8.4	-	8.0	-	7.8	-	7.6	-	8.3	-
총 자 산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주 : 1)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반계정의 하단 () 및 특별계정의 경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자산별 투자수익률은 각 사 월말보고서 재산이용명세표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일반계정의 총투자수익률 계산에서는 손익계산서 상의 투자수익을 사용하였음.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안정적인 투자수익 위주의 자산운용전략에 따라 투자유가증권의 비중은 전분기 대비 1.9%p 증가한 50.5% 수준인 반면,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비하여 단기매매 목적의 상품 유가증권의 비중은 전년대비 0.5%p 감소한 3.2% 수준임.
- 부동산의 경우 전분기 대비 0.2%p 감소한 5.3%의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신용리스크 증대의 영향으로 대출채권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추세임.
- 3/4분기에 퇴직보험의 수요가 집중되는 계절적 요인으로 특별계정자산의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총자산 대비 비중은 8.3%로 전분기 대비 0.7%p 감소하였음.

라. 경영효율

FY2003 3/4분기는 전년동기 대비 수입보험료의 증가로 보험금지급률이 개선되고 사업비율도 감소함.

- FY2003 3/4분기 보험금지급률은 전년동기 대비 수입보험료의 증가(6.5%)와 지급보험금의 감소(2.7%)로 4.9%p 하락한 51.7%를 기록함.
 - 특히 일반연금의 경우 수입보험료가 급증(80.5%)하고 지급보험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증가(26.3%)하여 평균보다 낮은 보험금지급률(30.3%)보였으나, 생사혼합보험의 지급보험금이 증가하면서 개인보험의 전체 보험금지급률은 4.0%p 상승함.
 - 단체보험의 경우 저축성 단체보험의 지급보험금이 크게 감소(74.5%)하면서 단체보험 보험금지급률이 177.1%p나 감소하여 전체보험금지급률을 하락시킴.
- FY2003 3/4분기 사업비율은 14.8%로 전년동기대비 0.8%p 감소하였는데, 이는 단체보험의 사업비율이 소폭 증가하였으나 개인보험 수입보험료의 증가에 따라 개인보험 사업비율이 소폭 감소했기 때문임.

<표 9> 생명보험회사 보험금지급률 및 사업비율

(단위 : %)

구 분	FY2002				FY2003		
	2/4	3/4	4/4	연간	1/4	2/4	3/4
보험금지급률	55.0	56.6	73.5	60.0	69.4	65.8	51.7
사업비율	18.5	15.6	18.5	17.4	17.5	17.8	14.8

주 : 1) 보험금지급률은 지급보험금/수입보험료, 사업비율은 사업비/수입보험료이며, 사업비는 이연신계약비를 감안하지 않은 실제사업비임.

2) 보험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음.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 보험종목별로는 전년동기 대비 단체보험 수입보험료의 큰 폭 감소(22.2%)와 사업비의 소폭 증가(0.9%)로 단체보험 사업비율은 3.4%p 증가하였으나, 개인보험의 경우 수입보험료의 증가(13.6%)와 사업비의 소폭 증가(1.0%)로 사업비율이 2.3%p 감소함.

- 상품별로는 종신보험이 신계약비 감소(8.9%)와 계속보험료 증가로 인해 9.6%p의 사업비율 감소가 있었고, 장기건강보험 사업비율이 신계약비의 큰 폭 증가에 따라 56.4%로 증가하였으며, 질병보험 또한 신계약비 증가로 사업비율이 22.1%로 증가하였음.

□ 생명보험회사들의 주요 경영효율지표를 분석한 결과, 3/4분기 해약률은 12.9%로 전년동기대비 악화됨.

○ 경기침체의 지속의 영향으로 해약률은 전년동기대비 1.7%p 상승하여 12.9%가 되었으며, 이는 지난 분기 상승률과 동일한 것으로 상승률악화는 둔화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악화된 것으로, 계약자들이 종신보험의 납입을 중단하고 생사혼합보험을 해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채권위주의 안정적 자산운용 정책으로 채권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시중금리의 소폭 상승기조로 3/4분기 운용자산투자수익률은 정체되었으며 보험미수금 등의 증가로 총자산 수익률은 0.3%p 감소함.

<표 10> 생명보험회사 주요 경영효율 지표

(단위: %)

구 분		FY2002			FY2003		
		2/4	3/4	4/4	1/4	2/4	3/4
계약률		7.5	11.2	14.8	4.9	9.2	12.9
자산운용율		88.1	88.2	87.8	87.6	87.6	88.1
투자	운용자산	8.7	8.6	8.6	8.1	7.7	7.7
수익률	총자산	7.9	7.8	7.7	7.5	7.5	7.2
계약유지율		81.9	-	79.3	-	72.8	-
보험설계사정착률		31.2	-	31.2	-	30.5	-

주 : 1) 계약률, 자산운용율 및 투자수익률은 일반계정 기준임.

2) 계약유지율은 13회차, 보험설계사정착률은 13월차 기준임.

자료 :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월보』, 각 월호 및 「보험사의 경영효율」, 반기별 보도자료.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 각 월호.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마. 판매채널

방카슈랑스채널이 본격 활성화되면서 보험상품 유통구조의 변화가 진전되기 시작했으며 전통채널도 축소기조 속에 내부적 구조변화가 진행됨.

- FY2003 3/4분기 초회보험료를 기준으로 모집형태별 비중을 분석한 결과, 방카슈랑스 채널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보험설계사 채널의 점유율을 크게 앞섬.
- 이는 방카슈랑스 채널의 약진과 더불어 일시납을 중심으로 한 방카슈랑스 채널의 납입방식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됨.
- 회사직급의 판매비중은 기업의 회계연도말 퇴직보험 수요가 몰리면서 3.5%p 증가 하였으나, 지속적인 단체보험의 부진과 신채널의 도입으로 비중이 전년동기보다 크게 감소함.

<표 11> 보험모집 형태별 비중(초회보험료 기준)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2				FY2003		
	2/4	3/4	4/4	연간	1/4	2/4	3/4
회사직급	50.0	57.1	22.9	46.0	24.2	14.6	18.1
보험설계사	41.9	36.7	63.4	45.8	61.1	42.2	25.7
대 리 점	6.9	4.9	11.8	7.0	11.6	7.3	6.1
중개인	-	-	-	-	-	-	-
T/M	-	-	-	-	2.5	2.9	1.7
C/M	-	-	-	-	0.2	0.1	0.05
방카슈랑스	-	-	-	-	-	32.7	48.2
기 타	1.2	1.3	1.9	1.3	0.5	0.2	0.2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2,784	18,346	10,844	54,668	8,824	11,984	29,943

주 : 1) 모집형태별 통계 중 일부 회사의 업무보고서 자료를 수정함.

2) 보험사 퇴출시 해당사 통계를 제외하였음.

3) FY2000부터 특별계정을 포함함.

자료 : 생명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 보험설계사 판매채널은 초회보험료가 52.0% 증가하였으나 방카슈랑스 판매채널의 초회보험료가 268.5% 증가하면서 모집비중이 대폭 감소함.

- 이는 설계사들의 주력상품인 종신보험의 신계약 성장세둔화로 인한 수요둔화와 연금 및 저축성보험의 방카슈랑스 채널의 약진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

□ FY2003 3/4분기 전통판매채널의 전문성강화를 위해 남성보험설계사를 늘린 반면 여성보험설계사를 줄였으며, 외국사의 경우 대리점을 늘려 외국사도 질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 보험설계사 수는 144,666명으로 전분기 대비 209명이 소폭 증가(0.3%)한 반면, 전년동기 대비 10,727명(6.9%)이 감소하여 감소세는 지속됨.

○ 대한생명을 제외(10.0% 증가)한 대형사들과 중소형 내국사들은 보험설계사를 줄이고(2.1%, 2.0%) 대리점수도 감소(7.9%, 0.0%)시켰으나, 외국사들은 보험설계사를

줄인(3.1%) 반면 대리점을 대폭 증가(61.1%)시켰음.

<표 12> 판매채널 규모 및 생산성

(단위 : 명, 개, 천원)

구 분	FY2002			FY2003		
	2/4	3/4	4/4	1/4	2/4	3/4
임직원	26,729	26,561	26,726	26,356	26,231	25,616
보험설계사	160,324	155,393	151,064	145,613	144,457	144,666
생산성	18,943	-	19,933	-	21,247	-
대리점	6,868	7,056	7,267	7,416	7,604	8,947
생산성	63,374	-	46,723	-	60,337	-

주 : 보험설계사생산성은 월평균 1인당 수입보험료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음.

$$\frac{\text{누적 보험설계사[대리점] 수입보험료}}{(\text{기초보험설계사[대리점]수} + \text{기말보험설계사[대리점]수})/2}$$

자료 :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금융감독원, “보험사의 경영효율”, 반기별 보도자료.

(이상우 선임연구원, 김진익 선임연구원)

3. 손해보험

가.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FY2003 3/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특종보험 및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증가로 인해 전년 동기 대비 3.6% 성장률을 나타내면서 성장이 다소 회복되었음.

- FY2003 3/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규모는 5조 6,9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하여 전분기보다 성장이 다소 회복되었음.
- 자동차보험의 마이너스 성장에도 불구하고, 장기손해보험의 보험료 수입증가와 특종보험의 성장에 기인하는 것임.
-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보유대수 증가율 둔화와 시장내 가격경쟁 심화로 인하여 FY2003 이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특종보험의 경우 상해보험 및 종합보험의 실적이 호전되었으며, 장기손해보험은 질병보험 부문의 성장이 지속됨.

<표 13>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2				FY2003		
	2/4	3/4	4/4	연간	1/4	2/4	3/4
총자산	339,338	352,114	353,683	353,683	361,677	370,015	378,918
	2.9	3.8	0.4	8.1	2.2	2.3	2.4
원수보험료	51,409	54,958	50,083	205,944	51,163	52,768	56,910
	10.9	10.5	7.4	10.2	3.4	2.6	3.6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증감율로 총자산의 경우 전분기 대비,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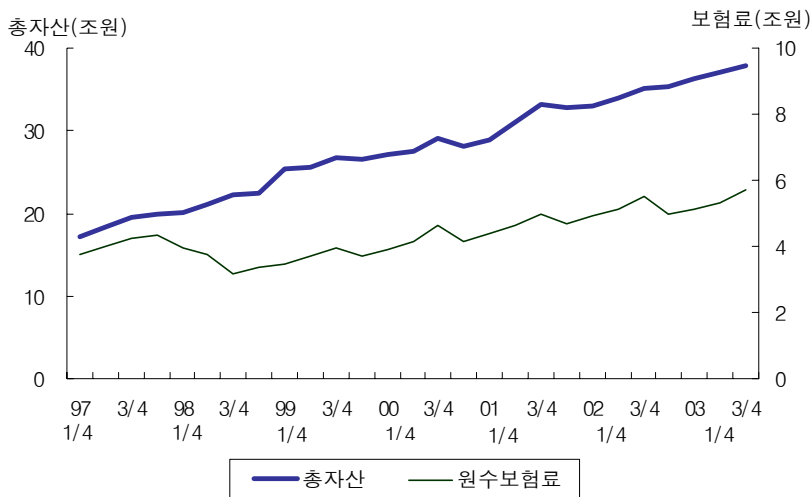
2) 원수보험료는 특별계정 포함, 부수사업은 제외된 실적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총자산 규모는 투자영업이익 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저성장세와 발생손해액 증가에 따른 보험수지 악화로 성장이 제한되어 전분기 대비 2.4% 증가한 37조 8,918억원을 기록함.

- FY2003 3/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37조 8,918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4% 증가하였음.
- 투자영업이익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보험료 성장 둔화 및 손해를 증가에 따른 보험수지 악화로 인하여 총자산 성장세가 제한됨.
- 즉, FY2003 3/4분기 투자영업이익은 1조 1,12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32억원 증가한 반면, 보험수지 규모는 2,418억 적자를 나타내었음.

<그림 3>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총자산 연도별 변동추이



- FY2003 3/4분기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장기손해보험이 3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이 35.7%의 점유율을 나타냄.
- 특종보험 9.0%, 보증보험 4.0%, 해상보험 2.0%, 화재보험 1.5%의 점유율을 보이면서 일반손해보험의 성장 둔화세가 지속되고 있음.

<표 14>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2				FY2003		
		2/4	3/4	4/4	연간	1/4	2/4	3/4
화 재	보험료	755	910	750	3,219	825	761	881
	성장을	2.2	2.6	7.4	6.1	2.5	0.9	-3.1
	구성비	1.5	1.7	1.5	1.6	1.6	1.4	1.5
해 상	보험료	1,388	1,293	1,418	5,605	1,396	1,385	1,151
	성장을	9.6	-12.6	1.1	5.9	-7.3	-0.2	-11.0
	구성비	2.7	2.4	2.8	2.7	2.7	2.6	2.0
자동차	보험료	20,917	20,529	18,358	79,138	18,939	20,662	20,311
	성장을	7.5	6.5	1.9	6.1	-2.0	-1.2	-1.1
	구성비	40.7	37.4	36.7	38.4	37.0	39.2	35.7
보 증	보험료	2,235	2,413	2,530	9,362	2,423	2,261	2,259
	성장을	28.1	27.2	29.5	30.8	11.0	1.2	-6.4
	구성비	4.3	4.4	5.1	4.5	4.7	4.3	4.0
특 종	보험료	4,319	4,641	3,472	16,734	4,546	4,454	5,140
	성장을	27.2	18.5	11.6	20.6	5.7	3.1	10.7
	구성비	8.4	8.4	6.9	8.1	8.9	8.4	9.0
해외 원보험	보험료	121	146	153	564	137	155	163
	성장을	-2.1	63.8	-1.8	12.3	-4.6	27.3	11.9
	구성비	0.2	0.3	0.3	0.3	0.3	0.3	0.3
장 기	보험료	19,707	20,342	20,783	80,134	20,871	20,996	21,801
	성장을	11.0	9.6	7.8	10.0	8.1	6.5	7.2
	구성비	38.3	37.0	41.5	38.9	40.8	39.8	38.3
개 인 연 금	보험료	1,684	1,701	1,740	6,786	1,704	1,705	1,716
	성장을	0.4	1.7	4.8	1.6	2.6	1.3	0.9
	구성비	3.3	3.1	3.5	3.3	3.3	3.2	3.0
퇴 직 보 험	보험료	282	2,982	879	4,401	322	388	3,488
	성장을	38.9	50.7	127.3	53.6	24.7	37.6	17.0
	구성비	0.5	5.4	1.8	2.1	0.6	0.7	6.1
계	보험료	51,409	54,958	50,083	205,944	51,163	52,768	56,910
	성장을	10.9	10.5	7.4	10.2	3.4	2.6	3.6

주 : 1) 성장을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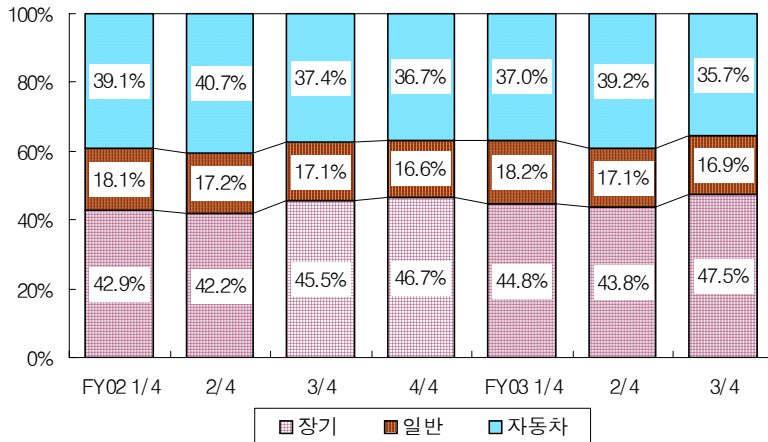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FY2003 3/4분기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는 2조 31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함.
 - 이는 온라인 자보시장의 급속한 성장세로 인한 시장내 가격경쟁 격화, 소비 등 내수 부진에 따른 자동차등록대수 증가율 감소에 기인하는 것임.
 - 온라인 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3개사의 시장점유율이 5.5%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격경쟁력 외에도 보상 및 부가서비스 강화에도 주력함에 따라, 온라인 자보시장 확대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 그러나, 최근 손보사간 과당 경쟁으로 인한 자동차보험 성장 둔화, 손해율 급등은 회사의 적자구조를 야기한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합리적 보험료 적용과 적절한 보험금 지급 등 관련 대책이 필요할 것임.
- 장기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는 2조 1,8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하면서 FY2003 이후 성장률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경기불황으로 인한 내수 침체 등으로 장기손해보험의 초회보험료 성장률이 현저히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상품별 성장률을 살펴보면, 저축성보험의 원수보험료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관련 상품의 개발 등으로 질병보험의 성장률은 30%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보증보험은 전년 동기 대비 6.4% 감소한 2,259억원을 나타내면서 2003 2/4분기 이후 성장이 대폭 감소하였음.
 - FY2002 급성장하였던 상업신용(-30.1%), 할부신용(-15.0%), 신용카드신용(-3.8%) 등 신용보험 시장 성장이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금융기관들의 대출심사 강화 등에 따라 대출용 보증보험 판매가 감소하였기 때문임.
- 해상보험의 원수보험료는 1,15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0% 감소,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함.
 - 9.11 테러사태로 급상승하였던 요율이 안정화되면서 항공보험의 마이너스 성장(-52.0%)이 지속되고 있으며, 선박보험 10.5%, 적하보험 5.9%, 운송보험 7.4%의 성

장률을 나타내고 있음.

- FY2003 3/4분기 특종보험의 원수보험료는 5,1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 증가하면서 전분기보다 성장이 회복되었음.
- 전체 특종보험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종합보험의 경우 방카슈랑스 판매 등에 힘입어 전년동기 대비 12.9% 증가하였음.
- 그 외에, 책임보험은 5.6%, 상해보험 6.2%, 기술보험 12.1%, 기타특종 24.5% 등의 성장률을 나타내었음.

<그림 4> 손해보험 종목별 구성비 변동추이



- 주 : 1) 원수보험료 기준임.
 2) 장기보험은 개인연금 및 퇴직보험을 포함한 실적임.
 3) 일반보험에는 화재, 해상, 보증, 특종, 권원보험, 해외원보험이 포함되었음.

- FY2003 3/4분기 보험사 그룹별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상위 4개사의 시장점유율이 전분기보다 0.2%p 증가하면서 일반 손해보험사의 비중이 다소 증가하였음.
- 반면, 전업사의 경우 보증보험의 성장 둔화로 인하여 전분기보다 0.1%p 감소하였으며, 외국사는 전분기 대비 0.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는 허핀달지수는 0.1579로 나타났으며, 상위사 시장점유율이 확대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15> 손해보험시장 회사별 시장점유율 (원수보험료 기준)

(단위 : %)

구 분		FY2002				FY2003		
		2/4	3/4	4/4	연간	1/4	2/4	3/4
점유비	상위4개사	70.4	70.0	69.6	70.0	69.8	70.1	70.3
	일반사 계	94.9	94.6	94.0	94.6	94.4	94.6	94.7
	전 업 사	4.4	4.7	5.2	4.7	4.8	4.5	4.4
	외 국 사	0.7	0.7	0.9	0.7	0.8	0.8	0.9
허 편 달 지 수		0.1604	0.1560	0.1557	0.1571	0.1555	0.1578	0.1579

주 : 1) 일반사 계에는 교보자동차 실적이 포함되었으며, 전업사는 보증사와 재보 4사, 외국사는 AIG, ACE, 페더럴, 로알, 퍼스트아메리카 5개사임.

2) 허편달지수는 “회사별 시장점유율 제공의 합”으로 산출하였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나. 수지상황

FY2003 3/4분기 손해보험 발생손해액은 태풍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한 3조 8,150억원을 나타내었으며, 사업비 지출 규모는 1조 1,836억원으로 14.1% 증가함.

□ FY2003 3/4분기 전체 손해보험의 발생손해액은 3조 8,1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6% 증가함.

- 자동차보험의 경우 태풍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증가로 1조 4,253억원의 발생손해액을 나타내면서 손해액 규모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 보증보험은 발생손해액에 해당하는 항목 중 8월에 대규모 보험금 환입이 발생하여 손해액 규모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FY2003 3/4분기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총 1조 1,836억원의 사업비가 지출되어 전년 동기 대비 14.1% 증가함.

- 전체 사업비 중 48.0%는 자동차보험, 39.3%는 장기손해보험(개인연금 포함)에서 지출된 것으로 조사됨.

- FY2003 3/4분기에도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3.2%로 둔화추세를 지속하는 데 반하여 태풍피해 등의 영향으로 발생손해액은 전년동기 대비 12.6% 증가하고 사업비 증가율도 14.1%로 보험영업수지가 악화되었음.

<표 16> 손해보험회사 발생손해액 및 사업비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2				FY2003		
	2/4	3/4	4/4	연간	1/4	2/4	3/4
발생손해액	33,120	35,892	34,916	134,670	34,770	35,361	38,150
	10.5	22.2	-24.8	2.3	12.9	6.8	12.6
사 업 비	11,793	10,370	13,948	47,032	11,655	12,336	11,836
	9.7	-0.2	22.7	10.9	6.7	3.8	14.1

주 : 1) 주요지표의 각 하단 수치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2) 퇴직보험과 부수사업은 제외된 수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3.5% 증가한 6,451억원을 나타냈으나, 보증보험사를 제외한 일반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3,226억원으로 보험영업비용 증가로 인하여 손익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음.

- FY2003 3/4분기 손해보험 산업의 총수익은 16조 7,009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하였으며, 보험영업수익이 14조 5,055억원, 투자영업수익은 1조 6,571억원임.
- 보험영업수지는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성장률 둔화 및 손해율 감소에 기인하여 전 분기에 이어 2,418억 적자로 적자폭이 증가하였음.
 - 이러한 보험영업수지 적자는 자동차보험의 매출 부진 및 손해율 악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됨.
 - 즉, 자동차보험의 원수보험료 성장률은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음에 반하여 손해율은 예정손해율(72.5%)을 상회하고 있어 보험영업수지 적자를 초래함.
- FY2003 3/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투자영업수지는 전년 동기 대비 28.0% 증가한 1조 1,120억원 흑자를 나타내었음.

- 투자영업수익이 전년 동기보다 599억원 증가하고 투자영업비용은 1,832억원 감소한 데 기인하는 것임.
- FY2003 이후 투자여건이 개선되면서 단기매매증권처분 및 평가이익은 2,446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38억원 증가하였으며, 단기매매증권처분 및 평가손실 규모는 전년 동기보다 3,272억원 감소한 583억원을 나타냄.
- FY2003 3/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6,451억원으로 전년 동기 4,497억원보다 1,954억원 증가함.
- 그러나 보증보험사를 제외할 경우의 당기순이익은 3,226억원으로 손보업계의 당기손익 감소세가 3/4분기에도 지속된 것으로 나타남.
- 즉, 투자영업이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손해율 악화로 보험영업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대형사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일반손해보험사의 손익 규모가 감소하였음.

<표 17> 손해보험회사 총수익 및 총비용

(단위 : 억원)

구 분		FY2002			FY2003		
		2/4	3/4	4/4	1/4	2/4	3/4
총수익	보험영업	89,670	135,707	185,350	47,545	95,760	145,055
	투자영업	11,037	15,972	21,000	5,896	11,631	16,571
	기 타	1,507	4,912	6,516	830	1,584	5,384
	계	102,215	156,591	212,875	54,271	108,975	167,009
총비용	보험영업	88,397	135,555	185,148	47,263	96,480	147,472
	투자영업	5,724	7,284	12,141	1,503	3,052	5,452
	기 타	3,056	7,154	9,648	1,439	2,780	6,182
	계	97,177	149,993	206,937	50,205	102,313	159,106
수지차	보험영업	1,274	151	210	283	-720	-2,418
	투자영업	5,313	8,688	8,860	4,393	8,579	11,120
	기 타	-1,549	-2,242	-3,132	-609	-1,196	-798
	계	5,038	6,598	5,937	4,067	6,662	7,904
법 인 세		1,417	2,101	2,689	769	1,244	1,453
당기순이익		3,621	4,497	3,249	3,298	5,418	6,451

주 :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다. 자산운용

FY2003 3/4분기 중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어 안전자산 위주의 투자
유가증권의 보유비중과 주식시장의 호황에 힘입어 주식의 보유비중이 증가함.

- FY2003 3/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37조 8,918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6%, 전분기 대비 2.4% 증가하였음.
- 보험회사 그룹별 자산점유율을 살펴보면, 대형사(상위 4개사)의 경우 66.3%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형사는 18.4%, 보증보험사 8.0%, 재보사 6.8%, 외국사 0.5%의 점유율을 나타내고 있음.
-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면, 유가증권이 일반계정 자산의 53.7%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출채권 17.3%, 부동산 8.9%, 현·예금 5.7%의 구성을 보이고 있음.
- 외국인 순매수지속과 기업실적 호전 등의 영향으로 주식시장의 호황에 따라 주식의 보유비중은 증가하였음.
- 상품유가증권의 보유비중은 주식 보유비중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특수채 등의 보유비중의 하락에 따라 전분기 대비 2.6%p 하락한 14.3%를 기록함.
- 그러나, 카드부문의 불안 여파로 인한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어 안전자산 위주의 투자유가증권의 보유비중이 2.1%p 증가하였음.
- 반면, 저금리 지속에 따른 투자유가증권의 수익성 악화로 안정적인 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대출채권의 보유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율은 86.2%로 전분기 대비 0.3%p 증가함.
- 대형사의 자산운용율은 90.8%로 높은 수준이며, 중소형사의 경우 85.6%, 외국사는 전분기 대비 2.6%p 감소한 77.0%를 나타내고 있음.
- FY1999 이후 도입된 퇴직보험을 운용하는 특별계정의 자산비중은 연말 퇴직보험 수입보험료 증가 요인으로 전분기 대비 0.6%p 증가한 3.4%를 기록함.

<표 18> 손해보험회사 자산운용 포트폴리오

(단위 : %)

구 분	FY2002			FY2003					
	2/4	3/4	4/4	1/4		2/4		3/4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구성비	수익률
현 금 과 예 금	7.0	6.1	5.9	5.2	4.5	5.1	4.2	5.7	3.8
유 가 증 권	53.6	54.2	53.2	54.6	8.8	54.2	8.4	53.7	7.9
○상품유가증권	20.8	19.3	17.5	17.7	11.4	16.9	10.9	14.3	11.0
- 주 식	1.0	0.8	0.5	0.7	107.7	0.9	71.6	1.1	85.8
- 채 권 등	13.0	12.7	12.2	12.0	9.6	10.5	10.0	8.7	9.0
- 수익증권	6.8	5.8	4.8	4.9	5.3	5.5	5.6	4.5	5.3
○투자유가증권	32.8	34.9	35.7	36.9	7.5	37.3	7.2	39.4	6.6
- 주 식	5.1	5.3	4.7	5.5	3.9	5.2	3.0	5.9	2.7
- 채 권 등	27.5	29.1	30.8	31.1	8.1	31.9	7.5	33.1	7.1
- 수익증권	0.2	0.5	0.2	0.3	0	0.2	5.0	0.3	2.8
대 출 채 권	15.1	15.6	17.1	16.8	8.4	17.1	8.6	17.3	8.7
부 동 산	9.3	9.1	9.1	9.0	3.3	8.9	3.1	8.9	3.0
운 용 자 산 계	85.0	85.1	85.3	85.7	7.9	85.9	7.7	86.2	7.4
비 운 용 자 산	15.0	14.9	14.7	14.3	-	14.1	-	13.8	-
일반계정 자산 계	100.0 (97.8)	100.0 (97.2)	100.0 (97.1)	100.0 (97.2)	6.8 -	100 (97.2)	6.7 -	100 (96.6)	6.4 -
특 별 계 정 자 산	2.2	2.8	2.9	2.8	-	2.8	-	3.4	-
총 자 산	100.0	100.0	100.0	100	6.6	100	6.5	100	6.2

주 : 자산구성비는 일반계정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기준으로 제시하였으며, 일반계정의 하단 () 및 특별계정의 경우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라. 경영효율

FY2003 3/4분기 손해보험 산업의 합산비율은 전분기대비 사업비율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등의 손해를 악화에 기인하여 전년동기 대비 2.2%p 증가함.

□ FY2003 3/4분기 손해보험 산업의 합산비율은 100.1%로 전년동기대비 2.2%p 증가함.

○ 태풍피해에 따른 보험금 지급증가로 인한 자동차보험과 특종보험 등의 손해율의 악화에 기인하는 것임.

- FY2003 3/4분기 전체 손해보험 산업의 사업비율은 보증보험의 사업비율의 증가로 인해 전년동기대비 0.4%p 상승한 24.8%를 기록함.
-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의 사업비율은 하락한 가운데, 보증보험의 사업비율은 쌍용양회 전환사채 취득 손실 및 자산공사 3차 매각채권 정산으로 사업비가 증가하여 전년 동기대비 26.7%p 증가한 7.7%를 기록함.

<표 19> 손해보험회사 합산비율

(단위 : %)

구 분	FY2002			FY2003		
	2/4	3/4	4/4	1/4	2/4	3/4
경과손해율	71.1	73.5	72.9	73.7	73.8	75.2
사업비율	25.3	24.4	25.5	24.7	25.2	24.8
합산비율	96.4	97.9	98.4	98.4	99.0	100.1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2) 퇴직보험은 제외된 실적임.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손해보험 산업 전체 손해율은 75.2%로 전년 동기 대비 1.7%p 증가함.
- 자동차보험은 75.8%의 손해율을 나타내어 전년 동기 대비 8.9%p 증가하여 손해율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저가형 상품을 공급하는 온라인시장 확대에 따른 수입보험료 감소와 보험금지급 기준 확대 및 태풍 피해로 인한 보험금지급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 특종보험은 태풍피해 등의 영향으로 재산종합과 기타특종의 손해율 증가로 손해율이 전년대비 9.6%p 상승한 51.0%를 기록함.
- 반면, 보증보험은 보험금환입 증가로 손해율이 전년동기대비 53.9%p 개선된 23.8%를 기록함.

<표 20> 손해보험 종목별 손해율

(단위 : %)

구 분	FY2002			FY2003		
	2/4	3/4	4/4	1/4	2/4	3/4
화재보험	46.9	57.0	54.3	62.7	63.9	61.6
해상보험	49.5	53.4	51.6	45.7	53.6	57.4
자동차보험	64.7	66.9	68.4	72.9	74.8	75.8
보증보험	42.4	77.7	42.0	33.8	10.1	23.8
특종보험	46.0	41.4	47.5	43.1	50.9	51.0
해외원보험	52.6	54.5	50.4	46.5	47.7	48.5
장기보험	81.4	81.4	81.5	80.9	80.5	81.3
개인연금	113.7	114.4	118.7	114.6	115.6	116.1
전 체	71.1	73.5	72.9	73.7	73.8	75.2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FY2003 3/4분기 손해보험 산업의 운용자산 수익률은 주식시장의 호황에도 불구하고 저금리와 금융시장의 불안 지속으로 유가증권의 수익률이 하락하여 7.4% 기록

□ FY2003 3/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총자산 수익률은 7.4%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음.

○ 주식시장의 호황에 따른 높은 주식투자수익률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지속과 금융시장의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전자산의 비중 확대와 운용자산의 수익성 악화로 인해 운용자산 수익률이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상품유가증권의 주식수익률은 주식시장의 호황에 힘입어 85.8%를 기록하였음.

<표 21> 손보사 자산운용 및 총자산 수익률

(단위 : %)

구 분		FY2002			FY2003		
		2/4	3/4	4/4	1/4	2/4	3/4
자산운용율		85.0	85.1	85.3	85.7	85.9	86.2
수익률	운용자산	8.1	7.6	7.5	7.9	7.7	7.4
	총자산	6.7	6.3	6.1	6.6	6.5	6.2

주 : 1) 분기별 누적치이며 운용자산은 특별계정을 제외한 수치임.

2) 총자산수익률=(투자영업수익×2)/(기초총자산+기말총자산-투자영업수익)×(연기준 환산).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마. 판매채널

FY2003 3/4분기에도 저가형 상품을 공급하는 온라인보험시장의 점유율 확대가 지속되고 있음.

- FY2003년 3/4분기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비중을 살펴보면, 회사직급 9.5%, 보험설계사 35.6%, 대리점 50.4%, 중개인 0.9%, TM 2.0%, CM 0.6%, 방카슈랑스 0.3%, 공동인수 0.8%임.
- 지난 8월 방카슈랑스 도입 이후 손해보험의 보험슈랑스 판매비중은 0.3%로 미미한 수준이며, 종합보험, 상해보험 등이 판매됨.
- 저가형 상품을 공급하는 온라인보험시장의 점유율은 2.6%로 낮은 편이지만,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 온라인보험시장(TM, CM)의 85.2%를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자동차보험의 자동차보험시장 점유율은 전분기 대비 1.2%p 증가한 5.9%를 기록하였음.

<표 22> 손보사 모집형태별 원수보험료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2			FY2003		
	2/4	3/4	4/4	1/4	2/4	3/4
회사직급	11,162	16,962	22,179	5,019	10,190	14,833
	11.1	11.1	11.0	9.9	9.9	9.5
보험설계사	37,214	56,111	74,411	18,021	36,877	55,697
	37.1	36.8	36.9	35.3	35.7	35.6
대 리 점	50,923	77,726	102,932	26,130	52,676	78,901
	50.7	51.0	51.1	51.4	51.0	50.4
중개인	-	-	-	248	577	1,378
	-	-	-	0.5	0.6	0.9
TM	-	-	-	755	1515	3,153
	-	-	-	1.5	1.5	2.0
CM	-	-	-	231	460	974
	-	-	-	0.5	0.4	0.6
방카슈랑스	-	-	-	-	62	401
	-	-	-	-	0.1	0.3
공동인수	1,064	1,540	2,019	436	863	1,307
	1.1	1.0	1.0	0.9	0.8	0.8

주 : 1) 각 하단 수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2) 원수보험료에서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내수경기 회복 지연에도 불구하고 모집조직 정비로 FY2003 3/4분기 대리점당 원수 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5.7% 증가함.

○ 반면, 내수경기회복 지연과 모집조직의 확대 등의 영향으로 보험설계사 생산성(보험설계사당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 대비 7.5% 감소함.

<표 23> 손보사 모집조직 생산성

(단위 : 명, 개, 천원)

구 분	FY2002			FY2003		
	2/4	3/4	4/4	1/4	2/4	3/4
임 직 원	20,950	20,736	20,886	20,569	20,768	20,800
	53,281.2	81,799.0	106,191.8	24,402.6	49,107.0	71,314.6
보험설계사	54,459	55,258	54,291	56,762	57,063	59,286
	68,333.6	101,543.4	137,060.2	31,748.7	64,625.6	93,945.9
대 리 점	52,975	52,066	50,877	50,828	51,068	50,021
	96,126.7	149,283.8	202,316.3	51,409.6	103,148.6	157,735.0

주 : 1) 각 상단 수치는 인원수(대리점수), 각 하단 수치는 모집조직단위당 생산성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 부분은 제외됨.

3) 임직원당 원수보험료 = 임직원 원수보험료/임직원수

4) 보험설계사당 원수보험료 = 보험설계사 원수보험료/보험설계사수

5) 대리점당 원수보험료 = 대리점 원수보험료/대리점수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조혜원 선임연구원, 신동현 연구원)

보험제도 및 시장동향

1. 고령화 사회의 노후소득보장정책의 방향*

<인구의 고령화와 퇴직금제도>

고령화 진전
현행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등으로
관련 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 필요성
대두

- 우리나라는 이미 1999년 노인인구가 7.1%(337만명)으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19년에는 고령사회(14%)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통계청, 2000).
-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용구조상 정년을 짧은 데 비해 평균수명은 점점 길어져, 퇴직 후 노후소득보장 대책은 사회정책적으로 더욱 중요시됨.
- 따라서,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대비한 인력정책 및 노후소득 보장체제의 강화가 시급함.
- 현행 퇴직금제도는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한 자'를 적용 대상으로 하며, 금액은 '근속연수 1년당 30일분 평균임금(1개월분 임금)'으로 '퇴직시 일시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동 제도는 평생고용의 종말과 잦은 직장이동, 연봉제 및 퇴직금 중간정산 확산 등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약하며, 퇴직적립금의 사외적립여부는 사업주 재량으로 수급권 보장이 미흡함.
- 기업입장에서도 미적립퇴직금 채무 증가로 구조조정시 일시금 부담이 가중되면서 경영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한다는 단점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복지가 취약한 4인 이하 및 1년 미만 단기 근속 근로자들이 적용배제됨.

* 동 자료는 보험개발원 주최, "제18회 보험경영인 조찬간담회", 2004.3.12 발표자료를 요약·정리한 것임.

- ☐ 이에 따라, 퇴직금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왔음.

<일반적인 기업연금제도 개요>

기업연금제도란 퇴직후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경제적 급부를 제공하는 제도

- ☐ 기업연금제도란 사업주가 그 기업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퇴직 후 정기적으로 경제적 급부를 제공하는 제도로써, 연금기금의 관리에는 민간금융기관 등이 담당하며, 공적·개인연금과 함께 3층형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성하는 것임.

- ☐ 사용자 측면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확보(장기근속)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며, 근로자 측면에서는 안정된 노후소득원 확보, 이연과세로 실질소득 증가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기금운용으로 인한 위험부담 주체별로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로 구분

- ☐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은 노사가 사전에 부담할 기여금을 확정하는 제도로써, 적립금을 근로자가 자기책임으로 운용하고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그 운용결과에 기초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것임.

- ☐ 반면에,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은 노사가 사전에 급여의 수준·내용을 약정하는 제도로 근로자가 일정한 연령에 달한 때에 약정에 따른 급여를 지급함.

확정기여형(DC형)/확정급여형(DB형) 비교

구분	확정기여형(DC형)	확정급여형(DB형)
기여금	확정	산출기초 변경시 변동
급 여	기금 운용실적에 따라 다름	확정(급여의 일정비율)
위험부담	물가,이자율변동 등 근로자 부담	물가,이자율 변동 등 사업주 부담
기업부담	관리비용 경감	축소 가능(수익률이 높을 경우)
통 산	용이	매우 어려움
연금수리	용이	매우 어려움
선호계층	단기근속자,젊은층(연봉제 근로자 등)	장기근속자(공기업, 대기업)

<퇴직연금제도 도입방안>

**DC형 및 DB형
모두 도입,
적용대상 확대
추진, 각종
안전장치 마련
등 제도 도입의
기본방향 마련**

□ 제도설계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음.

- ① 퇴직금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퇴직연금 도입
 - 퇴직금제 유지하면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 선택의 폭 확대
 - 확정급여형 및 확정기여형 모두 도입
 - 퇴직적립금은 계속 적립할 수 있는 장치(개인퇴직계좌) 마련
- ② 4인이하 사업장 및 1년미만 단기근속 근로자 적용확대 추진
 - 사업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유예기간 설정 및 부담률 단계적 인상
- ③ 확정급여형은 그 성격이 유사한 퇴직보험을 보완하여 도입
- ④ 확정기여형은 적립금의 운용책임이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
- ⑤ 사용자 및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연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일정한 책임을 부과

1) 퇴직연금 형태별 세부내용

**DB형의 경우,
현행
퇴직보험을
보완하여 도입,
사업주가 급여
책임을 부담**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현행 퇴직보험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도입할 예정임.
- 사용자 부담 : 확정급여형은 최종적으로 사업주가 급여의 책임을 지므로 적정 적립금 수준은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
 - 적립금 관리계약 : 보험계약 및 신탁계약
 -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 퇴직보험과 동일
 - 적립금 운용 : 사업주와의 계약에 의해서 금융기관이 운용
 - 급여수준은 일시금 수령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동일하되, 연금의 경우 일시금을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지급

DC형의 경우,
근로자별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급여 지급,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준 필요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용자 부담 : 현행 퇴직금의 사용자 부담이 근속년수 1년당 30일(약 1월분)의 임금(평균임금)이므로 근로자별 '연간 임금총액의 1/12(8.33%)'로 설정
 - 적립금 관리계약 : 보험계약 및 신탁계약
 -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 : 적립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일정한 재무건전성 등의 기준을 설정
 - 적립금 운용 : 근로자가 적립금 운용지시를 하므로 투자위험과 기회에 직접 노출되므로 적립금 운용방법에 원금보장 상품 제시 의무화, 주식투자 한도 설정 등 보완장치 마련
 - 급여수준 및 지급방법 : 근로자별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지급되며, 급여지급 방법은 확정급여형과 동일

2) 적용대상 확대

4인이하 사업장
근로자, 1월미만
근속 근로자
등에 적용 확대

- 현행 적용 제외인 4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및 1월 미만 근속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 확대할 예정임.
 - 비정규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4인 이하 사업장 및 1년 미만 단기근속 근로자에 대한 법정 복지격차를 해소하기 위함.
 - 다만, 4인 이하 사업장의 적용확대시 영세사업장의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 2년 6월의 시행 유예기간 설정
 - 사업주의 부담률은 국민연금의 조정사례를 참조하여 단계적으로 조정

3) 통산장치

**개인퇴직계좌
(IRA) 마련으로
은퇴시까지
계속 적립 가능**

- ☐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s)란 직장이동성 및 단기근속자 증가, 중간정산 및 연봉제 확산 등으로 퇴직금이 소액의 일시금으로 수령·소진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직장이 동시에도 은퇴시까지 계속 적립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임.
- o 동 계좌에 일시금을 적립하는 경우, 연금을 수급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시키고, 수급권 보장 등 안정장치를 마련함.
- o 개인퇴직계좌의 가입자격은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임.
- o 개인퇴직계좌의 가입방법, 취급금융기관, 적립금 운용방법 등은 확정기여형과 동일하게 함(다만, 부담금의 부담 및 납부주체는 근로자가 됨).
- o 급여수준은 가입자별로 적립금의 운용결과에 따라 지급하며, 55세 이후에 연금수급이 가능함.

4)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

**퇴직급여제도의
설정·변경시
근로자대표의
동의 필요**

- ☐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중 하나 이상의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토록 함.
- ☐ 퇴직급여제도를 설정·변경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불이의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을 들어야 함.
- o 다만, 기존의 퇴직금제 적용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도록 함.

5) 책무 및 관리·감독

**제도 실시와
관련하여
사용자,
퇴직연금사업자
책무 및
관리·감독방안
마련**

- ☐ 사용자 책무
 - 사용자는 부담금의 수준 및 납부시기 등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 퇴직연금사업자의 책무
 - 퇴직연금사업자는 퇴직연금제도의 운영상황을 파악·개선할 수 있도록 매년 퇴직연금운영 실적을 제출하도록 함.
- ☐ 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고의 징구, 현장조사 실시
 - 사용자의 퇴직연금제도 설정·운영이 법령,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 시정·개선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퇴직연금의 운영정지 또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계약이전을 명할 수 있음.

(조혜원 선임연구원)

2. 금감원, 2003년도 보험사기 적발현황

〈연도별 적발 건수〉

(단위 : 건, %, 백만원)

보험사기
건수(2003)
9,315건
전년대비
61.8% 증가

구분	2000	2001		2002		2003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적발건수(A)	4,726	5,749	21.6	5,757	0.1	9,315	61.8
적발금액(B)	31,421	40,440	28.7	41,132	1.7	60,605	47.3
건당금액(B/A)	6.6	7.0	5.8	7.1	1.4	6.5	-8.5

〈사기유형별 현황〉

1) 적발건수

사기유형,
운전자
바뀌치기(33.2%) 가장 큰 비중 차지

(단위 : 건, %, 백만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고의 보험사고	296 (6.3)	585 (10.2)	97.6	486 (8.4)	-16.9	1,271 (13.6)	161.5
보험사고 가공	152 (3.2)	315 (5.5)	107.2	302 (5.2)	-4.1	619 (6.6)	105.0
발생보험사고의 피해과장	222 (4.7)	467 (8.1)	110.4	410 (7.1)	-12.2	884 (9.5)	115.6
사고발생 후 보험가입	1,017 (21.5)	845 (14.7)	-16.9	818 (14.2)	-3.2	1,156 (12.4)	41.3
운전자 바뀌치기	2,036 (43.1)	2,452 (42.7)	20.4	2,637 (45.8)	7.5	3,091 (33.2)	17.2
사고차량 바뀌치기	766 (16.2)	526 (9.1)	-31.3	559 (9.7)	6.3	737 (7.9)	31.8
기타	237 (5.0)	559 (9.7)	135.9	545 (9.5)	-2.5	1,557 (16.7)	185.7
합계	4,726 (100.0)	5,749 (100.0)	21.6	5,757 (100.0)	0.1	9,315 (100.0)	61.8

주 : ()는 구성비

2) 적발금액

(단위 : 천, %, 백만원)

적발금액

606억원

전년대비

47.3% 대폭

증가

구분	2000	2001		2002		2003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고의 보험사고	6,162 (19.6)	10,815 (26.7)	75.5	11,298 (27.5)	4.5	10,648 (17.6)	-5.8
보험사고 가공	1,180 (3.7)	2,085 (5.2)	76.7	3,638 (8.8)	74.5	8,020 (13.2)	120.5
발생보험사고의 피해과장	2,992 (9.5)	4,256 (10.5)	42.3	3,773 (9.2)	-11.3	10,462 (17.3)	177.3
사고발생 후 보험가입	4,357 (13.9)	4,045 (10.0)	-7.1	2,824 (6.9)	-30.2	4,872 (8.0)	72.5
운전자 바꿔치기	10,210 (32.5)	11,685 (28.9)	14.4	11,363 (27.6)	-2.8	13,593 (22.4)	19.6
사고차량 바꿔치기	3,291 (10.5)	3,371 (8.3)	2.4	2,983 (7.3)	-11.5	3,694 (6.1)	23.2
기타	3,229 (10.3)	4,183 (10.4)	29.5	5,253 (12.8)	25.6	9,336 (15.4)	77.7
합계	31,421 (100.0)	40,440 (100.0)	28.7	41,132 (100.0)	1.7	60,605 (100.0)	47.3

주 : ()는 구성비

3) 건당 평균금액

(단위 : 천, %, 백만원)

건당평균금액,

6.5백 만원

보험사고

가공, 1천3백

만원, 최고

기록

구분	2000	2001		2002		2003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고의 보험사고	20.8	18.5	-11.2	23.2	25.4	8.4	-63.8
보험사고 가공	7.8	6.6	-14.8	12.0	81.8	13.0	8.3
발생보험사고의 피해과장	13.5	9.1	-32.4	9.2	1.1	11.8	28.3
사고발생 후 보험가입	4.3	4.8	11.8	3.5	-27.1	4.2	20.0
운전자 바꿔치기	5.0	4.8	-5.0	4.3	-10.4	4.4	2.3
사고차량 바꿔치기	4.3	6.4	49.2	5.3	-17.2	5.0	-5.7
기타	13.6	7.5	-45.1	9.6	28.0	6.0	-37.5
합계	6.6	7.0	5.8	7.1	1.4	6.5	-8.5

〈생·손보별 적발 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보험사기

건수(2003)는
9,315건

손해보험

8,677건(93.2%)

생명보험

638건(6.8%)

차지

구분		2000	2001		2002		2003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생보	적발 건수	104 (2.2)	148 (2.6)	42.3	84 (1.5)	-43.2	638 (6.8)	659.5
	적발금액	6,165 (19.6)	4,817 (11.9)	-21.9	5,728 (13.9)	18.9	7,619 (12.6)	33.0
	건당금액	59.3	32.5	-45.2	68.2	109.8	11.9	-82.5
손보	적발 건수	4,622 (97.8)	5,601 (97.4)	21.2	5,673 (98.5)	1.3	8,677 (93.2)	53.0
	적발금액	25,256 (80.4)	35,623 (88.1)	-0.6	35,404 (86.1)	-0.6	52,986 (87.4)	49.7
	건당금액	5.5	6.4	16.4	6.2	-3.1	6.1	-1.6
합계	적발 건수	4,726 (100.0)	5,749 (100.0)	21.6	5,757 (100.0)	0.1	9,315 (100.0)	61.8
	적발금액	31,421 (100.0)	40,440 (100.0)	28.7	41,132 (100.0)	1.7	60,605 (100.0)	47.3
	건당금액	6.6	7.0	5.8	7.1	1.4	6.5	-8.4

주 : ()는 구성비

(신동현 연구원)

3. 금감원, IT 및 전자금융 관련 감독·검사업무 개선방안 추진

<검토배경>

금감원, IT 및
전자금융관련
감독·검사업
무개선 추진

□ 금융감독원은 IT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업무의 선진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감독·검사에 대한 미흡한 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함.

○ 최근 인터넷 등 전자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컴퓨터, 현금자동지급기/출납기(CD/ATM), 전화기 등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가 급속히 확산됨.

○ 금융회사간 상호연계성이 강화됨에 따라 특정금융회사의 유동성 부족, 결제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한 결제불이행이 전체 금융시스템의 불안으로 파급되는 『시스템리스크(System Risk)』가 크게 증가함.

금융회사간
상호연계성
강화에 따라
시스템리스크
증가

- 그러나 지난해 전자금융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비상시 금융회사 전산망 안전대책』 등 여러 안전대책을 마련하였으나 금융회사의 이행실태 및 비상대응체계 구축상태가 미흡함.

- 또한 IT부문 실태평가를 분석한 결과 평가기준이 금융회사의 업무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해외 IT부문 및 결제시스템에 대한 감독이 미흡하는 등 문제점이 도출됨.

<개선방안>

□ 금융회사 업무특성과 규모를 감안한 IT부문 평가기준 마련

**IT부문
평가기준
마련**

- 금융회사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은행, 증권, 보험, 비은행으로 구분하고 규모에 따라 대·중·소로 구분하여 IT부문 평가기준을 마련함.

- IT부문실태평가의 중점점검항목을 금융회사 업무특성과 규모 등을 감안하여 실정에 맞게 대폭 축소 수정·보완함.

- 금융회사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자체감사기능 확대방안을 마련함.

- IT 및 전자금융업무중 비핵심업무에 대하여는 자체감사조직에 감사를 위탁하는 자체감사기능 강화방안을 마련함.

- 금융회사 자체감사조직의 IT 및 전자금융업무에 대한 감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 및 전문성 강화를 지도함.

- 소비자의 전자금융거래 이용 편의성 제고방안을 마련함.

- 전자금융거래를 소비자가 보다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 이용방법의 개선 작업을 추진함.

- 전자금융 이용자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IT 및 전자금융 관련 용어의 한글화 추진 및 관련 용어 설명집을 발간함.

- 금융회사의 전자금융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함.

- 해킹 및 컴퓨터 바이러스등의 전자금융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내 『침해사고 대응팀(CERT)』를 구성·운영함.

- 『금융정보 공유분석센터FS/(ISAC)』의 기능강화를 통한 해킹 및 컴퓨터 바이러스등의 침해사고 상시분석·점검 및 대응함.

- IT 및 전자금융업무 관련 안전대책의 이행실태 점검을 강화함.

- IT 및 전자금융업무 관련 안전대책의 이행 여부를 중점검사항목으로 선정, 운용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함.

- 각 검사국에서 상·하반기 연 2회 정기적으로 이행, 실태를 점검함.

**IT부문등
안전대책
이행실태
점검강화**

- 지급결제 시스템 및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함.
 - 결제리스크, 결제시스템, 결제수단, 전산시스템 등 결제업무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감독 및 검사를 강화함.
 -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자화폐, 휴대폰 등 새로운 전자지급 결제수단에 대한 감독·검사방안을 마련함.
- 국내·외 금융회사의 해외 IT부문에 대한 검사 및 지도를 강화함.
 - 정보의 해외 유출 방지 및 IT부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해외 IT부문에 대한 현장점검을 점차 확대 실시함.
 - IT부문 감독방향 수립, 효과적인 IT부문 검사기법 개발을 위하여 IT업무실의 해외 IT부문 검사 참여를 확대함.
- IT 전문인력의 효율적 운영으로 IT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함.
 - 금융회사의 IT규모를 감안한 최소투입기준 제시하여 운영함.
 - 은행 : 대형 연 60~80명, 중·소형 연 40~60명
 - 보험·증권 : 대형 연 24~40명, 중·소형 연 16~24명
 - 회사별 IT부문 리스크 규모를 감안 상·중·하로 차등 운영함.
 - 특수사항(파업 등) 발생 및 특정분야에 대한 일시적 IT인력 수요 증가시 IT업무실에서 IT검사원을 『풀제(Pool)』로 운영함.
- IT부문 검사 조직 및 인력 보강과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함.
 - IT부문 검사의 실효성 및 영속성 확보를 위하여 각 검사국은 IT부문검사 전담조직을 편성·운영함(겸무 가능).
 - 인력개발실의 국내연수 프로그램에 IT 및 전자금융업무 감독·검사과정을 보강하여 전문인력 양성을 강화함.
 - 매년 단계적으로 IT부문 전문가 신규 채용과 IT업무실에 IT검사 전문인력 추가 배치로 임점검사 지원을 강화함.

(김진익 선임연구원)

IT검사의 실효성 확보

해외보험동향

1. 미국, 금융기관 공시규제 시대와 보험회사*

〈신 보험규제모델의 출현〉

□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공시를 중시하는 새로운 금융규제모델 (disclosure based regulation)이 출현하고 있음.

공시중시의 새로운 규제모델 출현

- 이 모델에서는 기존의 건전성 규제(prudential regulation)감독을 보완하여 금융회사의 재정, 위험과 전략 등의 공시를 요구하고 있음.
- o 신 모델의 도입은 회계기준, 증권규제(투자자보호), 그리고 금융기관규제(보험계약자와 은행예금자보호)에 국제적으로 통합된 접근을 요구하고 있음.
- o 이 모델에서는 증권규제당국, 감사인, 그리고 평가기관들이 중요한 규제자로 기능함.
- 이들의 활동은 보험과 은행규제당국들의 조치를 보완하거나 대체함.
- 이 모델은 미래에 대한 가정(Assumptions)이 보험회사 재무 보고과정에서 갖는 역할 때문에 보험회사에 있어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며 이는 은행업에서도 마찬가지임.

* 본 자료는 LOMA, "Insurer Transparency in an Era of Aggressive Financial Disclosure Regulation", 2004 를 정리한 것임.

<신 모델의 목표 :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

- 광범위한 공시는 금융회사의 투자자, 고객, 채권자, 그리고 거래 상대자의 행위에 영향을 미침.

신규제모델의 목표는 시장자율임

- 만약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재무상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이탈할 것임.
 - 따라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회사들과 은행들은 건전성 위주의 재무관리를 할 것이며, 감독당국은 개입할 유인이 감소하게 됨.
- 규제당국은 이러한 효과를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이라고 칭하며 금융시장의 세계화와 금융거래속도의 증가로 인해 신 모델을 원함.
 - 시장참가들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과 전광석화라도 같은 속도로 끊임없이 사업을 하는 상황에서는 정보가 신뢰할 수 있을 때 신용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시가 중요함.

<신 모델들>

- 미국 자본시장에서의 재무보고규제 강화와 2001년, 2002년 회계 부정과 2002년 Sabanes-Oxley법의 통과에 따라 공시규정과 회계규정이 보다 엄격히 적용되게 될 것임.
- 또한 많은 국가의 증권규제당국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가 채택한 것과 유사한 새로운 규정들을 채택하고 있음.
- EU(2005년)와 기타 많은 국가에서의 국제재무보고기준의 개발과 도입이 예정되어 있음.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국가간
재무규제와
회계기준의
통합이
시도되고
있음

- 또한 이에 따른 보험계약에 대한 완결규정의 포함 등 일련의 공통 국제회계기준의 개발이 시도되고 있음.
-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와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간의 노워크협정은 국제재무보고기준(IFRS)과 US GAAP간의 수렴을 위한 공동작업 협약임.
- (1) 신 바젤Ⅱ 자본협정(국제적 은행에 적용) 초안과 (2) 신 보험회사 SolvencyⅡ(유럽내 보험회사에 적용)의 지급능력규정 목적에 부합하는 공시요건을 이용하며 양 규제안은 "시장규율"의 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공시요건을 채택할 것임.
- 중앙은행과 보험, 증권 그리고 은행업규제당국의 국제 조직들의 국제적 재무규제의 통일안의 개발과 동일한 체제 내로 회계규제의 통합을 위한 시도임.

〈증권규제당국의 역할〉

- 증권규제당국은 보다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운동을 이끌어 왔음.
- 완전한 증권시장을 위한 노력으로 자본시장을 통해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회사들에 대해 공시규정을 포함한 일정한 규정들을 적용했음.
- 이러한 규정들은 증권을 발행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일반목적 회계체계를 기준으로 하며 이러한 상황으로 증권규제당국들은 일반 목적 회계체계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며 영향을 끼침.

〈보험사와 은행에 대한 통합모델의 난제〉

- 주관적 가정(Assumptions)의 문제

통합모델의
난제는
주관적
가정과
규제당국간
이해의
차이임

- 새로운 모델은 보험회사들과 은행들에게는 난제를 안겨주는데 이는 규제당국이 대중에 공시하고자 하는 가치들이 미래에 관한 주관적 가정에 일부 의존하기 때문임.
- 새로운 국제감사기준 315 즉, “Understanding the Entity and Its Environment and Assessing the Risks of Material Misstatement”에 의하면 중대한 허위진술의 위험은 “요구된 판단이 주관적, 복잡할 때 혹은 공정가치 판단과 같은 미래사건의 영향에 대한 가정을 요구할 때” 높아짐.

□ 준비금에 관한 서로 다른 규제적 기대

- 증권규제당국은 일반목적 회계체제 내에서 공시되는 준비금에 관한 가정에 특히 관심이 많음.
 - 규제당국은 가능한 한 객관적인 증거에 근거하여 결정된 “실제적인” 준비금을 선호하며 비실제적 준비금은 결과에 대해 중요한 부실표시가 될 수 있다고 믿음.
 - 높은 보험준비금을 적립하는 보험사 또는 높은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는 은행들은 미래 보고이익을 평활화할 수 있는 자금을 갖는 것임.
 - 적은 준비금을 보고하는 보험사 혹은 은행은 현재 높은 이익을 보고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이지만 미래의 손실과 지급불능위험의 증가가능성을 숨길 수 있음.
- 일반적으로 보험과 은행의 규제당국은 지급능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많은 준비금에 대한 선입관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규제당국은 또한 독립적인 소속되었든 전문가 판단의 중요성을 인정함.

- 규제당국은 일반목적회계 혹은 증권규제당국의 희망과는 상관없이 보험회사의 준비금이 너무 높거나 낮은지에 대한 최종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음.
 - 미국에서 이러한 상황은 다음의 결과를 가져옴.
 - **보험업계** : 독자적 준비금규정을 가지고 있는 보험감독회계(SAP)제도가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주식회사화되고 현재 또한 일반목적회계제도인 미국 GAAP에 의해 재무보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속하고 있음.
 - **은행업계** : 미국의 은행규제당국들은 미국 GAAP에 따른 대출손실준비금에 대해서 증권거래위원회와 장기간에 걸친 논쟁을 벌이고 있음.
- 은행규제당국은 증권거래위원회보다 높은 준비금을 적립하게 하는 관행을 원함.
- 미국 은행의 경우 감독회계체계가 없으며, 오직 일반회계목적의 보고서가 작성됨.
- o 만약 투명성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보험회사와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게 보험 또는 은행규제당국이 공시를 요구하는 추가적 요건을 포함한 동일한 일반목적 회계제도에 의한 재무보고를 원할 것임.

<지급능력규제와 일반목적 회계의 통합>

금융권별

기준통합의

진척도는

상당히 다름

- 통합모델구축에 대한 노력
 - o 통합모델의 구축은 상당히 복잡하며 각각의 부분은 그 자체가 복잡함.
 - 따라서 비록 개념적 차원에서 이러한 모델에 대한 규제적 노력이 높더라도 세부사항에 대한 합의는 쉽지 않음.

보험권의
국제적
회계기준마련
은 지연

- 금융상품에 대한 국제적 회계기준의 설계는 상당히 진보적이며 이것은 은행의 국제적 지급능력기준도 마찬가지임.
- 양진영의 모델설계자들간의 대화는 있지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는 의문임.
- 보험에 대한 국제적 회계기준의 설계는 훨씬 덜 진척되었으며 상당히 다른 의견들이 있음.
- 국제보험감독자협회(IAIS)는 지급능력원칙을 개발하고 있으나, 바젤II와는 대조적으로 국제적 보험지급능력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어떠한 정부지원 노력도 없음(유럽의 Solvency II는 별도).
- 보험사들과 은행들이 현재 종종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험의 성격이 다르더라도 가능한 한 양쪽에 적용되는 동일한 회계와 지급능력제도가 바람직함.
-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금융기관(보험회사, 은행)이 아닌 계약(보험계약, 금융계약)으로 설계원칙을 삼은 결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임.

<향후 예상>

국제적
통합모델에
대한 압력이
지속됨

- 통합모델에 대한 지속적 압력
- 선진국간의 최근의 의견차이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정도의 정치적 지원이 공통의 국제적 규정을 갖는 동일한 국제적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될 것임.
- 이러한 국가들의 재무장관과 중앙은행들은 규정상의 차이가 이익을 숨기고 세금을 회피하는 많은 기회를 준다고 믿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모델구축에 대한 상당한 자극이 지속될 것임.
- 금융산업은 모든 선진국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갖기 때문에 도입될 모델에 대해 상대한 영향을 줄 수 있음.

o 보험회사에 대한 혜택

- 통합모델이 상당히 복잡하거나 결점이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면 보험산업은 단일의 통합된 국제적 지급능력규정을 가진 단일의 공통 국제 회계규정을 가짐으로써 상당한 혜택을 얻을 수 있음.
- 다국적 보험회사들은 규제준수를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그러한 통합모델설계에 참여한 보험사들은 규제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

(김진익 선임연구원)

2. 미국, 2004년 보험시장 전망*

<하드마켓 안정화>

9.11 테러 이후
유지되었던
하드마켓이
2004년
중반이후
안정화될 전망

- 9.11 테러사태 이후, 지난 3년간 견고하게 하드마켓이 유지되어 왔으며, 2003년에는 캘리포니아 화재 등의 재해로 인하여 많은 보험회사들이 손실을 기록하였음.
- 일반적으로 보험시장의 사이클은 보험회사 수익성으로 이어지게 되며, 하드마켓하에서 보험회사는 낮은 수익률을 나타냄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게 됨.
- 즉, 하드마켓하에서의 보험회사 대책으로는 보험요율을 인상하고, 수익이 적은 보험종목에 대한 언더라이팅을 강화하거나 일부지역 또는 전체 시장에서 저수익 종목(상품) 판매를 철회함으로써 수익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 2003년 미국에서는 대부분의 보험회사들이 수익을 실현하였으며, 2004년 전반적인 경제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험회사 수익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 반면에 이러한 시장 사이클은 현재의 회사 수익률외에도 장기적인 시장리스크에 의해서도 달라질 수 있으며, 미국 보험시장이 안고 있는 장기리스크는 다음과 같음.
- 즉, 이라크내에 미국이 주둔해 있는 동안 테러 위협과 관련한 불안정성이 여전히 상존해 있으며 석면위험(asbestos) 등 잠재적 위험 및 기타 보험 이슈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 하는 문제가 있음.

* 본 자료는 Insurance Journal, "Trends 2004 : Are you prepared?", 2004. 1 을 정리한 것임.

- 이러한 제반 여건들을 감안할 때, 전반적인 하드마켓 사이클은 2004년 중반까지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전반적으로 기업성/개인성 보험종목 모두 현행 보험요율 및 언더라이팅을 유지할 것임.
- 보험요율 안정화로 인하여 소비자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대리점 및 중개사는 보험비용 예측 능력을 제고할 수 있음.

〈전략적 인수합병〉

M&A 추세는
다소
진정되었으며,
향후 둔화 전망

- 1990년대말 이후 취약한 회사들은 합병되거나 청산되었음.
 - 보험산업은 이미 거대한 통합, 합병을 경험하고 있으며 소형 회사들은 수 년전 인수되었음.
 - 20년전 75,000개에 달하던 미국내 독립대리점은 현재 약 25,000개로 추정됨.
- 최근 들어 회사 인수 및 합병의 움직임은 다소 진정되었으며 점차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
 - 매각이나 합병을 원하는 우량 회사들은 대부분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며, 시장내에는 많은 우량 회사들만이 남겨져 생존 및 성장을 위한 경쟁체제에 있음.
 - M&A 추세는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데, 이는 높은 가격을 책정한 후 M&A를 추진하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적절한 계획의 수립 및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임.
- 또한, 현재 인수·합병을 계획하고 있는 회사들은 보다 “좋은” 회사가 아닌 단지 “대규모” 회사가 될 목적으로 합병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은행의
보험판매시
수수료는
낮아지는 반면,
보험판매에
직접
관여하면서
방카슈랑스
진전될 전망

<방카슈랑스의 진전>

- ☐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은행의 보험사업 참여가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 ☐ 현재 보험대리점 및 중개사들은 현저히 높은 수수료를 부담하면서 은행을 통해 보험을 판매하고 있음.
 - o 판매 과정에서 은행의 “기업문화”와 “이념” 등으로 보험대리점과 쉽게 융화되지 못함에 따라 다소의 반발이 나타남.
- ☐ 반면에, 은행을 통한 판매는 최적의 거래라는 사실 때문에 은행은 높은 수수료를 얻고 있으며, 과거 몇 년 동안 은행을 통한 구입시 높은 수수료 때문에 구입가격이 높았음.
 - o 그럼에도 실제로 은행 판매의 대부분은 성장, 이익마진을 나타내었음.
- ☐ 그러나, 향후에는 이러한 거래조건으로 인하여 추가 수수료를 받는 것은 불가능 할 것임.
 - o 즉, 현재의 보험가격보다 15~25% 저렴한 수준으로 은행을 통한 보험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o 이에 따라, 은행들은 현재의 수수료 수입시스템에서 우회하여 직접 보험을 판매하는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전망됨.

<온라인 보험시장 활성화>

- ☐ 미국 보험시장에서 인터넷은 주로 개인성 보험,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 부문에서의 경쟁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됨.

인터넷을 통한
보험구입은
기업성보험
보다는 주로
생명보험,
건강보험 등
개인성보험에서
활발할 전망

- 내년도 닛켄 사업은 인터넷 사용자 및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를 중심으로 소비자를 유출시킬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독립대리점 및 중개사들은 개인성 보험, 생명/건강보험 부문에서 매우 취약해질 것임.
- 반면, 기업성 보험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구입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됨.
- 대부분 고객들의 기업보험 니즈가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보다 대리점과 상담하는 편을 선호하기 때문임.

<다양화·전문화된 보험서비스(Agencies-diversify or niche)>

고객니즈에
부합한
다양화된
서비스 제공 및
니치마켓
선점을 통한
경쟁력 확보
전망

- 향후 보험중개업무는 다방면에 걸친 재무서비스를 필요로 할 것으로 전망됨.
- 예를 들어 State Farm사는 보험뿐만 아니라 재무적 니즈까지 원스톱 쇼핑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고객의 니즈에 부합하기 위해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한 은행을 설립하였음.
- 모든 종목의 보험판매 외에도 리스크관리, 급여서비스, 퇴직플랜 및 인적자원관리 카운슬링 등의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것임.
- 이 외에도 마진규모는 적으나 대량판매가 가능한 상품 또는 높은 마진을 올릴 수 있는 상품 등 특정 상품을 중심으로 한 전문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할 것임.
- 즉, 오늘날 많은 중개업들은 경쟁우위를 점하고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종목과 니치마켓 없이는 성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

(조혜원 선임연구원)

3. 미국, 직접판매채널 현황 및 전망*

<직접판매채널 활용도>

미국 보험회사,
대부분
DM·인터넷·
콜센터를 통한
보험판매 시행

-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다이렉트 메일과 인터넷을 통해 직접마케팅의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외에 응답회사의 2/3는 콜센터, 절반가량의 회사에서는 광고전단지를 활용하고 있음.
- o 건강보험을 판매하는 회사의 대부분은 콜센터, 다이렉트 메일을 사용하며, 퇴직관련 상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인터넷 및 콜센터를, 조사대상 3개 손해보험회사에서는 모두 다이렉트 메일, 인터넷 및 콜센터를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보험종목별 직접판매채널 활용도

구분	생명보험 (19개사)	건강보험 (10개사)	퇴직보험 (6개사)	손해보험 (3개사)
다이렉트메일	84%	80%	67%	100%
인터넷	84%	60%	83%	100%
콜센터	63%	90%	83%	100%
광고전단	53%	60%	17%	33%
신문/간행물광고	47%	30%	17%	67%
TV광고	21%	10%	0%	33%
라디오광고	16%	20%	0%	33%
이메일	11%	10%	17%	33%
텔레마케팅	5%	10%	0%	0%

- ☐ 직접판매채널 종류별 사용연수는 보험종목에 따라 다소 상이하
나, 다이렉트메일, 신문/간행물광고, 콜센터의 경우 장기간 사용
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인터넷은 보험종목에 관계없이 최근 3년
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본 자료는 LIMRA, "Direct Response Marketing : Trends and Outlook", 2002 를 정리한 것임.

직접판매채널 사용연수

구분	생명보험	건강보험	퇴직보험
다이렉트메일	18	21	13
신문/간행물광고	14	17	-
콜센터	13	10	15
광고전단	13	14	-
TV광고	12	-	-
라디오광고	11	-	-
인터넷	3	3	3

<직접판매채널을 이용한 상품판매 현황>

직판채널을
통한 판매는
생명보험→중
신보험→건강
보험 순

- 조사대상 회사들의 대부분은 직접판매채널을 통해 생명보험 상품을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강보험은 절반가량의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음.
- 정기생명보험은 85%의 회사에서 직판채널을 이용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종신보험은 응답회사의 65%가량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질병보험, 연금 및 장기간병보험은 생명보험보다는 판매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직접판매채널을 이용한 상품판매 현황

구분	판매 회사비율
정기생명보험	85%
종신보험	65%
질병보험	35%
연금	30%
장기간병보험	25%
치명적질병보험	15%
주택종합보험	15%
자동차보험	15%

정기보험은
단순한
상품구조,
가입률 증가
등으로
직판채널
활용도 높은 편

○ 정기보험을 판매하는 회사가 많은 이유로는 첫째, 소비자가 이해하기에 가장 쉬운 상품이며, 둘째, 정기보험 가입률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LIMRA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구당 정기보험 가입률은 1992년 40%대에서 1998년 60%대로 증가한 반면, 종신보험은 80%에서 72%로 감소하였음.

□ 일반적으로 몇몇 상품들은 직접판매채널을 통한 판매가 적합함. 특히, 정기생명보험 및 자동차보험과 같은 전통적 상품을 대부분 선호하는 반면, 종신보험, 의료보험과 같은 복잡한 상품은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직접판매채널을 통한 보험상품 선호도

구분	응답회사수			
	1순위	2순위	3순위	전체
정기생명보험	11	6	1	18
자동차보험	4	7	2	13
종신보험	2	1	3	6
치명적질병보험	1	2	3	6
장기간병보험	0	1	4	5
주택종합보험	0	1	2	3
상해보험	1	1	0	2
질병보험	0	0	2	2
특정질병 담보보험	0	0	2	2
의료보험	0	0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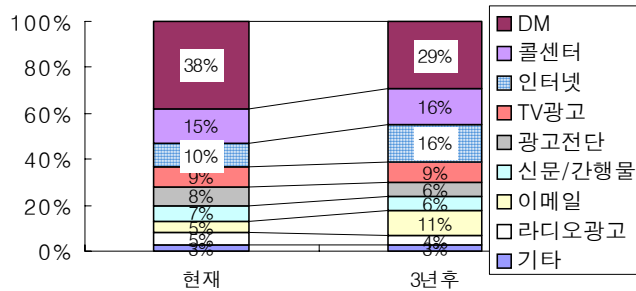
향후
직판채널은
DM이 점유율
확보하는
가운데, 인터넷
성장 전망

□ 현재 직접판매채널을 통한 판매의 40% 가량은 다이렉트 메일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콜센터는 보험판매량의 15%를 점유하고 있음.

○ 향후에는 전자적 방법을 통한 판매가 시장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되나 다이렉트 메일도 여전히 시장을 리드해갈 것임.

- 콜센터, TV광고, 광고전단지, 신문/간행물 광고 등을 통한 판매 점유율은 향후에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됨.

직접판매채널별 시장점유율 현황 및 전망



<직접판매채널 향후 전망>

생명보험과
건강보험은
콜센터,
손해보험은
인터넷을 통한
마케팅 유리

- 직접판매채널 종류별 향후 전망에 대한 조사 결과, 생명보험의 경우 콜센터가 가장 유망할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외에 인터넷, 이메일에 대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음.

직접판매채널 종류별 향후 전망

구분	생명보험					건강보험					손해보험				
	매우 좋음	←	→	매우 나쁨		매우 좋음	←	→	매우 나쁨		매우 좋음	←	→	매우 나쁨	
콜센터	5	12	1	1	0	4	8	0	1	0	2	5	0	1	0
인터넷	3	13	1	1	0	2	7	2	1	0	3	4	1	0	0
이메일	2	12	3	1	0	0	8	3	1	0	2	5	1	0	0
다이렉트메일	0	7	9	2	0	0	5	4	3	0	0	2	3	3	0
광고전단	2	3	8	3	1	0	2	5	3	1	0	1	5	2	0
라디오광고	0	4	9	2	2	0	1	6	3	1	0	2	4	2	0
TV광고	0	3	9	4	1	0	3	5	3	0	0	3	3	2	0
신문/간행물광고	0	4	6	7	0	0	2	4	5	0	0	1	4	3	0

- 건강보험의 경우, 인터넷, 이메일, 다이렉트메일 부문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채널을 이용한 보험판매에 대해서는 별로 낙관적이지 않음.
- 손해보험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마케팅이 가장 우세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콜센터 및 이메일도 성장 전망이 좋은 편임.

<인터넷의 영향과 활용>

인터넷은
판매보다는
마케팅
측면에서 많은
영향이 예상

- ☐ 인터넷은 판매 측면보다는 마케팅 측면에서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향후 3년후 9~10개 보험회사에서 적어도 어느 정도의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절반가량의 회사에서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함.
- ☐ 판매측면에 있어서의 인터넷의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음.
- IVANS에 의한 연구에 따르면 “독립적인 채널을 활용하는 보험회사의 69% 가량은 향후 인터넷이 판매채널로서 존속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부정적”으로 나타남.
- 반면, Tillinghast의 조사에 의하면 “대부분의 회사에서 향후 3년후 신정보기술을 이용한 판매가 전체 판매량의 10% 이상을 나타낼 것”으로 조사되었음.

향후 3년후 인터넷의 영향

구분	마케팅 측면	판매 측면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임	50%	22%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임	33%	50%
적게 영향을 미칠 것임	11%	28%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6%	0%

- 인터넷은 회사 웹사이트를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직접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접판매채널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실제로, 75%의 회사에서 자사 홈페이지에 상품 직접판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직접판매채널 지원을 위한 인터넷 활용

구분	응답률
웹페이지와 웹사이트를 연계시키고 있음	65%
웹사이트와 직접판매채널을 연계시키고 있음	75%
웹사이트에 상품 직접판매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75%
기타	85%

(조혜원 선임연구원)

4. 2003년 세계 재해/재난 피해 현황*

<2003년 자연재해 및 재난피해 현황>

2003년 자연재해
발생건수 142건
및 손실액
\$580억,
재난피해건수
238건 및 손실액
\$120억 발생

- 2003년도에는 폭염, 지진, 산불 및 매미, 이사벨과 같은 태풍 등 수많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으며, 미국, 영국, 덴마크, 이탈리아에서의 정전, 한국의 지하철 방화, 중국의 가스누수 등의 인위적 재난이 발생하였음.
- 즉, 세계 전체로 볼 때, 142건의 자연재해와 238건의 재난사고가 발생함.
- 2003년 재해, 재난으로 인한 전체 손실액은 약 \$700억에 달하며(보험손실액 \$185억 포함), 이 중 \$580억 달러(보험손실액 \$162억 포함)는 자연재해로 인한 것임.
- 중앙/남동유럽 지역에서의 폭염과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약 \$123억으로 추정되며, 포르투갈에서의 산불로 \$16억 달러의 피해를 초래하였음.
- 2003년 9월 한국에서는 210km/h의 강풍을 동반하였던 태풍 매미로 인하여 약 \$60억(보험손실액 \$5억)의 재산피해 및 13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음.
- 또한, 자연재해 및 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60,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자연재해 51,500명, 재난 8,000명).
- 인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과 네팔에서 발생한 홍수로 1,400명이 사망, 4,280명이 실종되었음.
- 재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방글라데시에서의 선박사고, 한국의 지하철 방화 사고 등으로 발생하였음.

* 본 자료는 Swiss Re, "Natural catastrophes and man-made disasters in 2003", Sigma No. 1/2004, 2004 를 정리한 것임.

재해/재난으로
인한
보험손실액은
\$185억으로
전체 손실액
\$700억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

- 이와 같은 인명피해는 1970년 이후 7번째로 많은 사상규모임.
- 2003년 자연재해 및 재난으로 인한 보험손실액은 \$185억으로 조사되었으며, 6개 자연재해로 인한 손실액이 전체 보험손실액의 2/3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남.
- 우선, 미국에서 4월초와 5월에 발생한 폭풍은 각각 \$32억, \$16억의 보험손실액을 초래하였으며, 허리케인 이사벨은 미국 및 캐나다에서 \$17억의 재물보험 손실액을 기록하였음.
- 또한, 10월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두 번의 대형 산불은 각각 \$11억, \$10억의 피해를 야기시켰으며, 12월 남부프랑스 지방에서의 홍수로 인해 \$10억의 보험손실액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됨.
- 전체 보험손실액 \$185억 중 \$23억은 인위적 재난사고로 인한 것으로 1987~2002년 평균 손실액 \$64억에 비하여 낮은 수준임.

전체
보험손실액의
2/3가량이
미국에서 발생

- 지역별 재해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북미지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3년 전체 보험손실액의 2/3가량이 미국에서 발생하였음.
- 한편, 유럽지역에서는 가뭄 및 산불로 인하여 거대한 경제적 손실을 나타내었으며 그 중 절반 가량은 남부 프랑스에서의 홍수에 기인한 것임.
- 한국에서의 태풍 매미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5억으로 세계 전체 보험손실액의 2.8%를 점유하였음.

2003년 재해/재난 피해 발생 현황

한국의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액은 전체
보험손실액의
2.8% 점유

지역	건수	점유율	피해자	점유율	보험손실액 (\$백만)	점유율
아메리카	78	20.5%	1,565	2.6%	13,899	75.2%
미국	32	8.4%	295	0.5%	11,222	60.7%
유럽	36	9.5%	423	0.7%	2,173	11.8%
프랑스	5	1.3%	41	0.1%	1,334	7.2%
아시아	178	46.8%	51,894	87.4%	1,447	7.8%
한국	4	1.1%	332	0.6%	524	2.8%
일본	7	1.8%	45	0.1%	411	2.2%
이란	10	2.6%	41,523	69.9%	-	-
아프리카	67	17.6%	4,900	8.2%	148	0.8%
남아공	6	1.6%	78	0.1%	112	0.6%
알제리아	4	1.1%	2,408	4.1%	32	0.2%
오세아니아	4	1.1%	6	-	339	1.8%
기타	13	3.4%	527	0.9%	483	2.6%
세계 전체	380	100.0%	59,399	100.0%	18,489	100.0%

<캐본드(Cat bond) 발행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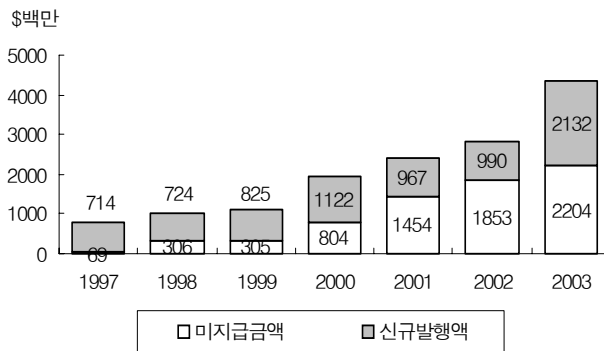
재해/재난보험
시장 성장,
대규모 자본력
필요에 따라
캐본드(Cat bond)
발행 증가

- ☐ 재해보험, 재난보험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다양하고 강력한 자본구조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의 역할이 중요시 되고 있음.
- o 아직까지 대부분의 재해/재난위험이 부보되어 있지 않으며, 전체 재해손실액과 보험손실액간의 격차가 큰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동 시장의 잠재성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o 재해보험의 특징 중 하나는 세계 전체 보험산업의 자본력을 초과하는 잠재적 손실규모를 가진다는 것임.
- ☐ 1996년 이후 약 \$75억 가량의 캐본드(catastrophe bond)가 발행 되었음.

캐본드(Cat bond)
발행으로 전통
재보험 대체
가능, 시장규모
지속적 상승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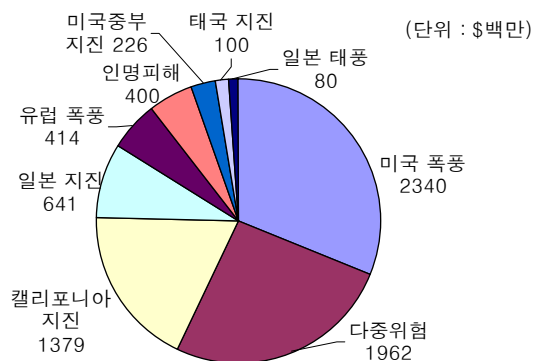
- 캐본드는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가 재해위험에 대하여 다년간 보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것으로 특히 허리케인, 폭풍 등과 같은 거대 재해에 있어서 전통 재보험을 대체할 수 있을 것임.
- 2003년 약 \$20억 가량의 캐본드를 발행, 연도말 약 \$43억의 채권 미지급액이 예상됨에 따라 2002년말 대비 5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전년도 하드마켓으로 인한 재보험 가격 상승
 - 신용리스크에 대한 추가 담보 수요
 - 보험회사, 재보험회사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따른 추가 자본력에 대한 수요
 - 신용위험 경감을 위한 고정 수익 포트폴리오 필요성 대두

캐본드(cat bond) 발행 현황



- 최근 캐본드는 단일 위험에 대해 발행하는 추세이며, 주로 미국 내 폭풍이나 지진위험에 대해 발행되었음.
- 반면, 2003년 캐본드 시장은 미국 외에도 일본, 유럽 및 태국 등에서의 위험을 담보하였음.

1996년 이후 캐본드(Cat bond) 발행 실적



(조혜원 선임연구원)

5. 영국, 보험회사 리스크관리 설문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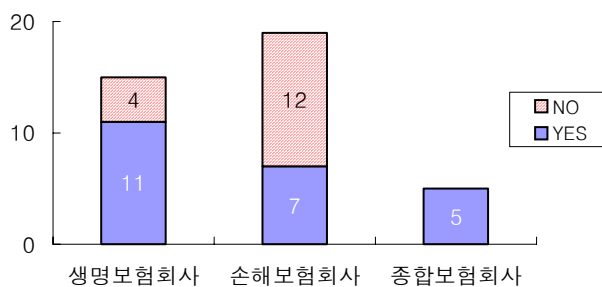
리스크관리
실태 설문조사
통해,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 파악

- 영국보험감독청(FSA)는 영국보험산업의 리스크관리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2002년 리스크 평가조사에 따른 리스크 관리실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 FSA는 조사기간 2003년 1~5월에 걸쳐 손해보험회사(19), 생명보험회사(11), 상회회사(4), 생·손보 겸영보험회사(5)등으로 이루어진 39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설문조사의 주요내용은 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업무와 구조에 나타난 리스크관리 접근방법과 최근의 실태와 관련된 내용임.
- 보험회사의 리스크 인식, 리스크의 평가와 통제, 리스크평가 기능, 경영정보 등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조사 주요내용>

설문조사의
주요내용은
리스크 평가와
감독

“리스크 위원회는 리스크관리부서를 감독하고 있는가”



* 본 자료는 FSA, “Review of UK insurer’s risk management practices”, 2003. 10 의 설문조사 내용을 요약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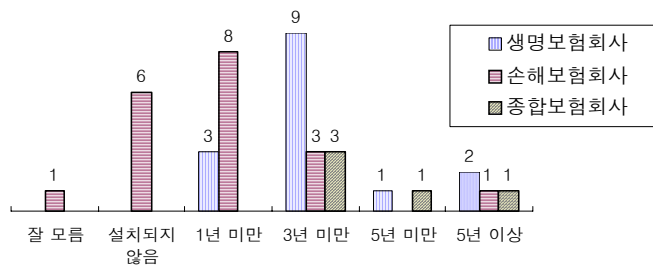
- 설문조사에 따르면, 절반 이상의 보험회사가 리스크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음.

**대형사 위주로
리스크**

**위원회를 통한
리스크 관리**

- 대형 생·손보 겸영회사와 생명보험회사는 리스크 위원회를 설치하여 리스크관리부서를 감독하고 있음.
- 중간 규모의 생명·손해보험회사는 감사위원회 기능을 확장하여 리스크와 내부감시 관련 문제를 감독하고 있음.
- 일부 손해보험회사는 독립적인 리스크 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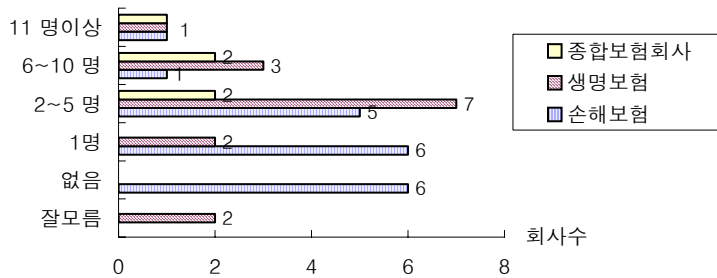
“독립적인 리스크평가 부서가 설치된 기간은 어느 정도인가”



**대부분
리스크평가
부서는 최근
1~3년 내에
설치됨.**

- 설문대상회사 중 32개 보험회사가 독립적인 리스크평가 부서를 설치하고 있음.
- 그러나, 대부분이 최근 1~3년 이내에 설치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소형 생·손보사에는 독립적인 리스크평가 부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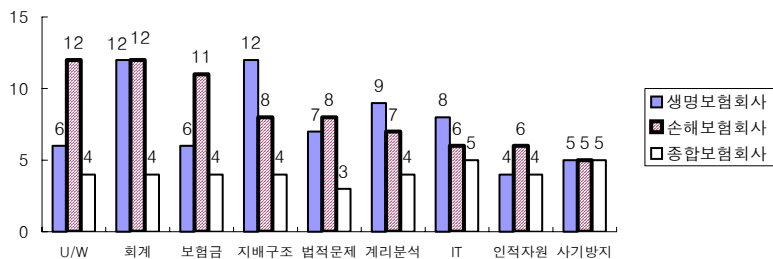
“리스크평가부서의 직원은 몇명인가”



평균적으로
리스크평가
부서의
직원수는 3명
수준

- 보험회사의 리스크평가부서가 보유한 인력은 은행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임.
- 가장 많은 인력은 보유한 회사의 경우 11명이며, 평균적으로 3명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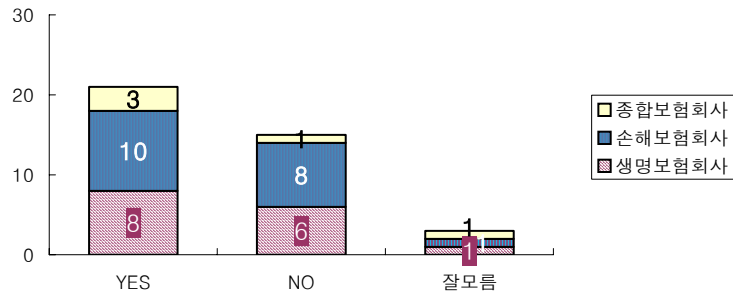
“리스크평가 부서가 가지고 있는 업무능력(skill)의 범위는”



리스크평가
부서의
주요업무는
재무,
언더라이팅 등

- 보험회사의 리스크평가부서가 보유한 인력에 비례하여 업무능력의 범위가 제한을 받고 있음
- 대부분 보험회사는 주로 재무, 언더라이팅, 보험금지급, 지배구조와 관련된 업무능력을 가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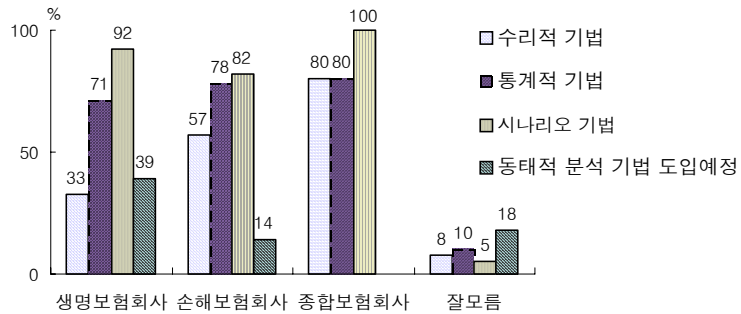
“경영진은 회사의 리스크 허용수준을 결정하는가”



경영진은 어느
정도 리스크
허용수준을
결정하고 있음

- ☐ 설문조사대상 보험회사중 절반정도가 리스크 허용수준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o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리스크 허용수준과 자본수준을 명시적으로 연계시키지 못하고 있음.
- ☐ 보험회사는 리스크 정보(risk information)와 보고(reporting)와 관련하여 회사가 직면한 중대한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해 리스크 눈금표(risk register) 또는 리스크 행렬표(risk matrix)를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됨.
 - o 조사대상 39개 회사중 29개 회사가 리스크 눈금표를 작성하고 있음.
 - o 리스크 눈금표를 작성중인 29개 회사들 대부분이 단순 엑셀이나 데이터 베이스, 자체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리스크를 기록하고, 통제하고 있음.
- 15% 정도의 보험회사가 전문적인 리스크 분석, 관리 및 보고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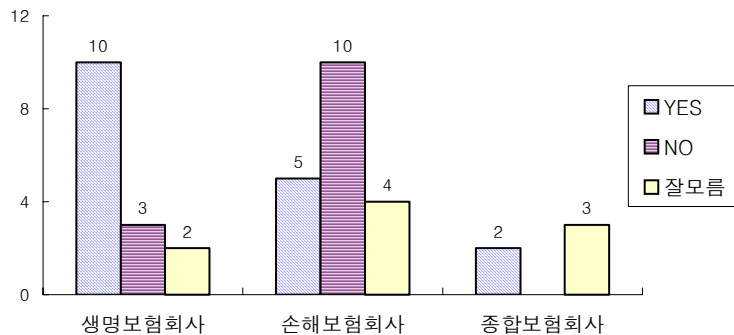
“보험회사는 자본요구량을 평가하기 위해 어떤 모델기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시나리오기법 사용

- 대부분 보험회사는 자본요구량을 평가하기 위한 모델기법으로 시나리오기법을 사용하고 있음.
- 보험회사는 자본요구량을 평가하기 위한 기법에 대한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 생명보험회사는 손해보험회사보다 자본요구량 평가 기법이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됨.

“손해관련 통계를 내부DB로 구축하고 있는가”



**손해관련
DB의 집적이
미미한 실정**

- 보험회사들은 보험관련 손해통계를 제외한 손해통계의 집적이 미미한 실정임
 - 조사대상 회사 중 16개 회사들은 손해관련 DB를 최근 구축하기 시작하였음.
 - 대부분의 대·중형 보험사들은 손해관련 데이터가 자사의 리스크 프로파일을 모형화하는 데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리스크
평가부서와
관련 부서간
협조 부족**

- 다수의 보험회사는 리스크 평가부서와 계리또는 재무부서와의 의사소통이나 협조가 미미한 실정인 것으로 파악됨.

(신동현 연구원)

6. 일본, 공적연금제도 개혁안 내용과 평가

일본, 개정
공적연금제도
2005년 시행

- 일본 정부는 소자녀·노령화의 급진전에 따른 연금재원의 부실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5년 시행을 위한 공적연금 개혁방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음.
- 일본의 공적연금 개혁은 인구·사회적인 변화 및 연금제도 개선을 목표로 5년 주기로 추진되고 있으며, 2002년 이후 소자녀·노령화의 급진전으로 연금재원에 큰 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
- 이에 현재 일본에서 최대의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적연금 제도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일본내의 평가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함.

소자녀·노령화
급속한 진전으로
연금재원 확보
곤란

- 일본은 고령화 진전으로 연금지급 부담이 빠르게 증대되는 반면 출산율 저하로 연금재원 확보가 점차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으로써, 공적연금의 수지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연금제도의 획기적 개혁이 요구되는 상황임.
- 지급액을 축소하지 않을 경우 보험료의 대폭 인상이 불가피함.
 - 후생노동성의 조사(2003년 11월)에 의하면 기초연금 보험료는 현행 월 13,300엔(자영업자 기준)에서 20,000엔으로, 후생연금 보험료는 연수입의 13.58%에서 22.8%로 각각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함.
- 또한 연금지급액과 납부보험료의 비율에 있어서도 현재 연금 수령세대와 젊은 세대간의 격차가 심각한 수준임.
 - 후생연금의 경우 현행 연금지급액은 납부보험료의 4배를 상회하나 앞으로는 이 비율이 점차 축소되어 최근 출생한 세대는 연금지급액이 납입보험료를 소폭 상회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됨.

지급금 줄이고
보험료 인상하는
방안의
공적연금 개혁안
국회 제출

○ 이에 따라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20대와 30대의 80% 이상이 연금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고 응답하는 등 젊은 세대의 불신과 불만이 확산됨.

□ 이러한 문제점이 부각되는 가운데 최근 일본정부는 연금제도의 지속성과 국민의 광범위한 신뢰확보를 위해 연금지급 규모를 점차 줄이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개혁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

○ 일본은 지난 2000년의 연금제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고령세대와 젊은 세대간 연금혜택 및 부담의 격차가 축소되지 않음에 따라 연금제도 자체의 존속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함.

* 후생연금 지급액의 5% 감축 및 지급개시 연령의 상향조정(60세 → 65세) 등

<일본의 공적연금제도>

공적연금제도는
기초 후생 기타
연금 등 3층 구조

□ 일본의 공적연금제도는 모든 국민이 가입하는 기초연금, 급여생활자들이 가입하는 후생연금 및 공제연금, 기타 추가적인 연금 등 3층 구조로 형성됨.

○ 기초연금은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자영업자+급여생활자 및 그 배우자)이 가입대상으로 가입 40년 경과 후부터 매년 약 80만엔을 수령함.

○ 민간기업 종업원 및 공무원은 기초연금 이외에 각각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에 가입함.

- 가입자는 보험료로 연봉의 13.58%를 납부함(연봉의 약 4%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보험료 포함).

**후생연금
보험료
고정방식으로
전환**

- 후생연금의 경우 연금지급액을 먼저 설정하고 여기에 맞추어 보험료를 조정(5년에 한번씩 인상)하는 현행 '지급액고정 방식'에서 보험료를 고정시킨 후 그 범위내에서 연금지급액을 조정하는 '보험료고정 방식'으로 전환하여 보험료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문제점을 해소함.
- 이를 위해 현재 연수입의 13.58%인 보험료(기초연금보험료분 포함)를 매년 0.345%씩 상향조정하여 2017년도까지 18.3%로 높인 다음 동 수준에서 고정함.
- 한편, 지급액고정 방식을 폐기함에 따라 후생연금의 연금지급 비율(소득대체율)은 점차 하락할 전망이다.
- 후생노동성은 표준세대(직장인 남편+전업주부)를 기준으로 볼 때 연금지급액이 현재 재직시 연수입의 59.3%에서 2023년도에는 50.2%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산됨.

**기초연금
보험료 및 국고
부담률 인상**

- 기초연금의 경우에는 재원 확충을 위해 보험료 및 국고부담률을 인상하도록 함.
- 급여생활자의 보험료는 그대로 두되, 자영업자의 보험료를 현행 13,300엔에서 2017년까지 16,900엔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임.
- 현행 1/3 수준인 기초연금의 국고부담률도 2009년까지 단계적으로 1/2 수준까지 높여 나갈 계획임.
- 또한 많은 민간기업들은 기업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공무원도 공제연금에 「직역상당 부분」이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사실상 기업연금과 유사한 연금혜택을 추가 제공하고 있음.
- 자영업자도 국민연금기금 등 세제상 혜택이 부여되는 연금제도에 가입함으로써 기초연금 이외의 연금혜택을 누릴 수 있음.

**연금개혁안의
골자는
보험료 인상과
연금지급액
축소가 핵심**

□ 이번에 국회에 제출된 「2004년 연금제도개정안」은 후생연금과 기초연금만을 대상으로 하고, 주요 골자는 향후 점진적으로 연금보험료 인상과 동시에 연금지급액을 축소하는 것임.

○ 이는 2004년도에만 2.7조엔이 소요되는 등 막대한 재원이 필요함에 따라 세계개혁(2007년 완료예정)과 병행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임.

□ 이 외에도 이혼 증가, 출산율 저하 및 비정규직 근로자 증가 등 사회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연금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선하도록 함.

○ 이혼시 배우자의 후생연금을 50%까지 분할·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육아휴직시 보험료면제 기간을 연장(1세 미만 → 3세 미만)하는 한편 파트타임 근로자의 후생연금 가입을 허용함.

**연금제도개혁안에
대한 평가는
대체적으로
부정적**

□ 이번 연금제도 개혁의 기본방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이나 핵심내용인 세대간 및 세대내의 격차 해소에서는 정부의 표방과는 달리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지적임.

○ 보험료고정 방식으로 전환하여 보험료의 지속적인 상승을 억제하고 동시에 연금지급액도 연수입의 50%(표준세대 기준)를 상회할 수 있도록 설정한 점은 높이 평가됨.

- 이혼한 배우자가 연금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상당한 진전으로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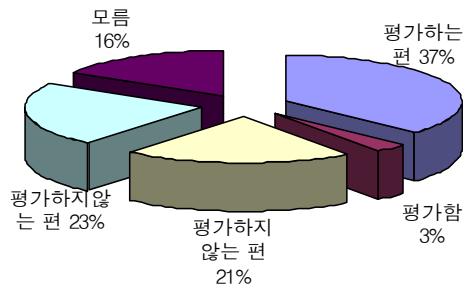
○ 반면, 연금납부액과 지급액의 비율이 2005년 기준으로 70세는 8.3배이나 30세는 2.4배로 세대간의 괴리가 여전하다는 지적임.

- 젊은 세대에 대한 당대의 연금지급액이 출산율 및 임금의 상승을 전제로 하고 있어 실제 지급액은 시산 결과보다 낮아질 가능성, 또한 표준세대와 여타 세대간의 연금지급률 격차도 오히려 확대될 전망이다.

연금제도개혁안에 대한 국민들
지지도 낮아 국
회에서 부결 가
능성 상존

- 일본경제신문의 여론조사(2월 16일자)에 의하면 연금제도 개혁안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계층이 60%에 달하는 등 연금에 대한 불신은 해소되지 못할 전망이다.

공적연금제도 개혁(案)에 대한 평가



- 이처럼 연금제도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가 낮음에 따라 연금제도 개혁법안의 국회통과가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됨.
- 정부는 연금제도 개혁법안이 정기국회 회기중(1월 19일~6월 16일)에 처리되어 금년 상반기중 공표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으나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여당도 법안처리를 하반기로 미루려는 움직임
- 야당인 민주당은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보험료 납부 없이 전부 국고로 지급하고 후생연금, 공제연금 등 나머지 연금은 일원화하여 개인의 소득에 따라 납부하고, 지급 받는 새로운 案을 당론으로 제시됨.
- 여당인 자민당에서는 7월로 예정된 중의원 선거를 의식하여 정기국회 처리를 미루고 선거후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려는 분위기가 확산됨.

연금제도개혁시
일본경제의 회복
에 부정적 영향
전망

□ 연금제도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보험료 인상에 따른 개인 및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 최근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경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있음.

○ 기업이 신규고용을 주저하는 등 소득개선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은 소비 회복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임.

- 연금지급액의 감소로 노후생활 자금의 부족이 예상됨에 따라 가계부문이 저축을 더욱 늘리고 소비를 억제하게 되는 효과도 예상됨.

○ 기초연금에 대한 국고부담이 크게 늘어남으로써 재정건전화 계획의 추진에도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 일본 제일생명경제연구소는 연금제도 개혁과 세제상의 공제 혜택 감소*로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2004년도 및 2005년도 GDP 성장률이 각각 0.12%p, 0.34%p 저하될 것으로 추정함.

*고령자 공제 및 배우자 특별공제의 폐지, 공적연금 공제 축소 및 주민세 증가 등

연금제도 개혁에 따른 민간부문의 부담 증가분

(단위 : 억엔)

	가 계	기 업	합 계
2004년도	7,155	1,641	8,797
2005년도	6,421	3,854	10,275

(이상우 선임연구원)

7. 일본, 자동차보험 직접판매 전문회사 현황

시장정체,
자동차보험
직접 판매 급증,
손해업계 경쟁
심화

- 일본의 손해보험업계는 최근 자동차보험의 시장정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직접판매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어 자동차보험 영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자동차보험의 수입보험료 실적이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직접 판매방식의 자동차보험이 소비자들의 인식 제고로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음.
- 최근에는 대형 손해보험회사들도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할인 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직접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외국계 손해보험회사, 일반기업 등에서 진입한 이업종 손해보험회사 등 시장경쟁이 3파전으로 진행됨.

직판채널에는
크게 일반기업,
외국계,
보험회사 등이
투자한 회사로
구성

- 현재, 일본의 자동차보험시장에서 직접판매방식을 주력으로 하는 손해보험회사는 Sony손해보험, Zurich보험, American Home보험, AXA손해보험, Mitsui Direct손해보험, Yasuda Life Direct손해보험 및 Secom손해보험 등 모두 7개사임.
- 이들 손해보험회사들은 크게 일반기업, 외국계 보험회사의 자본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루어져 있으며, 회사내 다이렉트를 주 채널로 운용하고 있거나, 직접판매만을 운영하는 회사가 대부분임.
- 일본에서 직접판매방식의 자동차보험의 출발은 '1996년 미·일 보험협상'의 결과 미국 AIG그룹의 American Home보험이 1997년 일본시장에 처음으로 진출한 것임.
- 이후, Zurich그룹, AXA그룹 등 외국계 보험회사가 진출하였으며, 1999년 소니가 설립한 Sony손해보험, 미츠이종합상사가 출자한 Mitsui Direct손해보험 등 일반기업의 진출이 늘어났음.

**직접판매회사는
주로
CM·TM·DM
방식으로
인지도 확산**

- 이러한 직접판매 전문 보험회사들은 전국적인 손해조사 및 보상 서비스 체계는 부족하지만 적극적이고 과감한 광고전략으로 소비자의 인지도를 넓혀 갔음.

- 직접판매방식의 보험회사들은 전업 대리점을 보완하는 대리점을 통한 직접판매를 하고 있는 대형 손해보험회사와는 달리 시간 제약이 없고, 대면접촉이 불필요, 저렴한 보험료 등 직접판매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설립됨.

- 직접판매를 즐겨 찾는 소비자를 겨냥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로서 자동차보험의 온라인 계약이 가능한 특징을 갖고 있음.

- 이들 회사들은 그룹 회사와의 제휴 및 독자적인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계약을 확대하고 있으며, 각사 모두 급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인터넷 사용자의 증가 및 인터넷 쇼핑에 대한 저변 확대가 인터넷상에서의 계약 증대에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으며, 1998년 Call Center Service를 개시한 Secom손해보험과 1999년 가을 전화로 계약 접수를 시작한 Sony손해보험이 타사보다 앞서 직접판매를 시작하였음.

**자동차보험
뿐만아니라
암보험 등의
건강보험 판매
병행**

- 주요 판매 상품인 자동차보험 외에 Sony손해보험과 Secom손해보험은 의료(암)보험도 판매하고 있음.

- 2003년 12월말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Sony손해보험의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Mitsui Direct손해보험, Yasuda, AXA, Zurich, American Home보험의 순으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0%~40%성장하여 연평균 31.9%의 성장을 기록함.

- 이러한 성장은 최근 일본에서 보험료 건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증가로 소비자의 보험료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직판에 의한
자동차보험시장
점유율은
약 2%이며,
수년내 10%까
지 확대 전망**

적극적인 광고전략으로 인지도가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음.

- 일본의 자동차보험시장은 수입보험료 기준으로 약 3조 7천억엔 규모로 직접판매방식의 자동차보험 비중은 2003년 12월말 현재 약 2%에 이르며, 5~6년 이내에 약 10%정도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것으로 일본 보험업계는 전망하고 있음.

- 직접판매방식으로 고객을 모집하는 주요 수단은 신문, 잡지 및 인터넷을 통한 광고이며, 신용카드회사 및 직접판매회사 회원에게 자료 송부, 비교 견적 사이트와의 제휴를 통한 광고 등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회사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Sony손해보험 및 Yasuda Life Direct는 TV 광고를 통해 좋은 효과를 얻고 있으며, 더욱이, Sony Group, Secom Group 및 Meiji · Yasuda Group은 회사의 인지도를 통해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각 사의 직접판매 비율은 Mitsui Direct 100%, Sony손해보험 약 90%, Yasuda Life Direct 약 40% 및 Secom손해보험 약 10%임.

**직접판매뿐만
아니라 모회사
의 오프라인
조직을 이용한
판매 병행**

- 이 가운데 Sony손해보험의 약 10%는 Sony생명보험의 Life Planner(LP)에 의해 이루어지며, Yasuda Life Direct는 약 60%가 Meiji · Yasuda생명보험의 영업직원 소개에 따른 실적임.

- Secom손해보험은 대리점을 통한 판매가 주축을 이루고 있으나 모두 직접판매 비율에서 현저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 직판회사들은 사고(손해조사)서비스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가지고, 보상서비스를 경험한 고객들로부터 만족도 조사를 통하여 보다 보상서비스를 개선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일본 자동차보험 직접판매 전문회사 현황

회사명	설립	직판비율	기타 판매방법	인터넷 판매비율	상품
Secom손보	1999년	약 10%	대리점	통신판매의 25%	자동차보험, 의료보험
Sony손보	1999년	약 90%	Sony생명 LP	" 약 50%	자동차보험, 의료보험
Mitsui Direct	2000년	100%	없음	" 75%	자동차보험
Yasuda Life Direct	2001년	약 40%	Meiji · Yasuda 생명직원소개	-	자동차보험
Zurich보험	1998년	약 80%	없음	" 약 50%	자동차보험, 의료보험
American Home	1997년	약 90%	AIG 직원소개	" 약 40%	자동차,상해, 의료보험
AXA Direct	1998년	약 60%	AXA생명 소개	" 약 60%	자동차보험

□ 각 사의 특징적인 서비스

다양한 할인혜택,
신속한 서비스,
웹사이트를
통한 다양한
컨텐츠 개발
및 제공

- ① Sony손해보험은 2003년 11월 휴대전화용 웹사이트개설 및 인터넷 할인 확대
 - ② Secom손해보험은 Secom 긴급 대처 직원이 현장으로 출동하는 현장 긴급출동 서비스 및 가족 Gold면허 할인
 - ③ Mitsui Direct는 고속 인터넷환경에 적합한 서비스 및 소비자 대상 다양한 캠페인 실시
 - ④ Yasuda Life Direct는 전화만으로도 계약 체결이 가능한 계약 시스템 제공 및 대부분의 사고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생략한 신속한 보험금 지급 실현 등이 있음.
- o 또한, 각 사는 자사 홈페이지 개선을 위해 힘쓰고 있는데, 빈번한 수정을 통해 소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외에
- ① Sony손해보험은 보험용어집을 충실히 하여 국회도서관의 검색 페이지에서도 링크가 가능하도록 설정함.

- ② Mitsui Direct는 최초로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 프로모션 사이트 「312405.com」 개설
- ③ Yasuda Life Direct는 고객의 안전운전 및 Car Life에 초점을 둔 콘텐츠 추가 등 서비스 강화에 힘쓰고 있음.
- 직접판매 전문보험회사의 성장에 대해 대형 손해보험회사들도 최근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할인을 통한 대응이 활발해지고 있음.
- 도쿄해상의 경우 지난해 금년 8월 1일부터 리스크세분형 자동차보험의 신상품을 개발하고, 대리점채널을 통하여 판매하지만 연령 및 사고경력 등에 따른 보험료 차등화 및 다양한 보험료 할인 혜택을 통해 직접판매회사에 대응하고 있음.

(이상우 선임연구원)

통계표

<표 1> 주요 경제지표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2002		2003			
		3/4	4/4	1/4	2/4	3/4	4/4
국내총생산 성장률		6.8	7.5	3.7	2.2	2.4	3.9
경상수지		547	1,876	-1,524	2,426	3,758	7,661
수 출		41,255	45,307	43,036	46,053	47,828	56,900
수 입		38,884	42,262	44,223	41,711	42,971	49,922
실업률		2.8	2.9	3.6	3.3	3.3	3.4
금리	국고채(3년)	5.30	5.11	4.62	4.16	4.11	4.82
	회사채(3년)	6.00	5.68	5.38	5.46	5.05	5.58
소비자물가지수		107.4	107.9	109.8	110.5	110.8	111.7
환율	원/달러	1,227.80	1,186.20	1,254.60	1,193.00	1,150.10	1,192.6
	엔/달러	121.70	118.79	117.99	119.77	110.60	107.30
종합주가지수		646.42	627.55	535.70	669.93	697.52	810.71
외환보유고		116,690	121,413	123,825	131,660	141,535	155,352

주 : 1) 금리, 환율, 주가지수는 월말, 마감기준임.

2)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000년 기준.

<표 2> 금융기관 순수신 추이

(단위 : 억원, %)

	2002		2003			
	3/4	4/4	1/4	2/4	3/4	4/4
보 험	68,236	76,573	45,805	50,356	47,189	88,743
생명보험	51,278	62,076	30,629	34,893	34,893	74,824
손해보험	16,958	14,497	15,176	15,443	12,296	13,919
은 행	92,267	138,510	23,484	73,895	-30,594	189,814
일반계정	111,084	140,221	45,937	144,380	1,512	221,476
신탁계정	-18,817	-1,711	-22,453	-70,485	-32,106	-31,662
증 권	-15,666	-2,879	35,535	-2,503	-6,525	5,843
투 신	49,664	-2,159	-80,618	-90,539	63,286	-178,020
총 금	-9,672	-2,463	24,512	-61,400	-21,375	-38,056

주 : 1) 보험사 순수신은 수입(원수)보험료에서 지급보험금(원수손해액)을 차감한 금액

2) 본 표는 다수의 동향보고서에서 정리한 것으로 한국은행 공식통계는 아님.

자료 : 보험개발원, 한국은행

<표 3>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성장률 및 구성비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2				FY2003		
		2/4	3/4	4/4	연간	1/4	2/4	3/4
생존 보험	보험료	22,121	23,611	24,311	91,424	23,901	26,555	37,028
	성장률	23.5	25.9	19.0	22.0	11.8	20.0	56.8
	구성비	19.4	16.2	21.0	18.6	21.0	23.1	23.9
사망 보험	보험료	52,684	53,949	54,756	211,701	55,609	55,989	57,714
	성장률	22.5	19.7	15.1	21.4	10.5	6.3	7.0
	구성비	46.4	37.6	47.3	43.1	48.8	48.8	37.3
생사혼합 보험	보험료	26,869	28,877	26,959	110,392	23,465	22,985	26,139
	성장률	-16.5	-12.4	-10.7	-14.1	-15.2	-14.5	-9.5
	구성비	23.6	19.9	23.3	22.5	20.6	20.0	16.9
변액보험	보험료	145	679	1,059	1,976	920	1,136	3,210
	성장률	-	-	-	-	887	682.7	372.6
	구성비	0.1	0.5	0.9	0.4	0.8	1.0	2.1
개인 보험계	보험료	101,818	107,116	107,084	415,493	103,895	106,665	124,091
	성장률	9.2	10.6	9.0	10.0	4.4	4.8	15.8
	구성비	89.4	73.6	92.6	84.7	91.1	92.9	80.1
단체 보험	보험료	12,098	38,332	8,613	75,175	10,108	8,094	30,836
	성장률	-32.5	-8.6	-35.9	-21.6	-37.3	-33.1	-19.6
	구성비	10.6	26.4	7.5	15.3	8.9	7.1	19.9
전체	보험료	113,917	145,448	115,697	490,668	114,004	114,759	154,927
	성장률	2.5	4.8	3.6	3.6	-1.4	0.7	6.5
	구성비	2.5	4.8	3.6	3.6	-1.4	0.7	6.5

주 : 1)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특별계정이 포함됨.

2) 성장률은 전년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 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4> 생명보험 종목별 지급보험금·지급보험금증가율·보험금지급률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2				FY2003		
		2/4	3/4	4/4	연간	1/4	2/4	3/4
생존 보험	지급보험금	12,142	12,532	16,439	52,624	13,605	13,687	15,399
	증가율	-32.4	-9.3	12.1	-18.9	18.6	12.7	22.9
	지급률	54.9	53.1	67.6	57.6	55.9	51.5	41.6
사망 보험	지급보험금	13,669	14,165	15,891	55,377	16,782	17,795	19,077
	증가율	4.3	24.4	46.4	19.8	44.3	30.2	34.7
	지급률	25.9	25.9	28.5	25.9	30.0	31.8	33.1
생사혼 합보험	지급보험금	22,374	24,649	35,355	104,155	33,347	31,324	28,627
	증가율	-21.9	-21.1	39.8	-10.4	53.1	40.0	16.1
	지급률	83.3	85.4	131.1	94.4	142.1	136.3	109.5
변액 보험	지급보험금	3	24	13	42	70	106	206
	증가율	-	-	-	-	4886	3143	757
	지급률	2.2	3.5	2.1	1.2	7.6	9.3	6.4
개인 보험계	지급보험금	48,187	51,371	67,698	212,197	63,805	62,911	63,310
	증가율	-19.3	-9.0	33.2	-6.6	42.0	30.6	6.4
	지급률	47.3	47.9	63.2	51.1	61.4	59.0	59.0
단체 보험계	지급보험금	14,451	31,001	17,369	81,983	15,306	12,639	16,793
	증가율	-45.1	-20.1	10.7	-29.5	-20.1	-12.5	51.0
	지급률	119.4	81.0	201.3	109.1	151.4	156.2	54.5
전 체	지급보험금	62,639	82,372	85,067	294,181	79,111	75,550	80,103
	증가율	-27.2	-13.5	27.9	-14.4	23.4	20.6	-2.8
	지급률	55.0	56.6	73.5	60.0	69.4	65.8	51.7

주 : 1) 보험금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2)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3)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 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5> 생명보험 종목별 사업비·사업비증가율·사업비율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2				FY2003		
		2/4	3/4	4/4	연간	1/4	2/4	3/4
생존 보험	사업비	3,340	3837	3,586	14,145	3,098	3,269	4,187
	증가율	41.4	23.1	-3.9	21.3	-8.4	-2.1	9.1
	사업비율	15.1	16.3	14.8	15.5	12.7	12.5	12.5
사망 보험	사업비	15,205	15896	15,208	60,359	14,523	14,764	15,913
	증가율	15.7	14.7	8.8	13.7	3.4	-2.9	0.1
	사업비율	28.8	29.1	27.2	28.2	25.9	25.6	25.6
생사혼합 보험	사업비	1,924	2326	1,877	8,119	1,712	1,739	2,188
	증가율	-35.0	-11.6	-21.8	-27.3	-14.1	-9.6	-6.0
	사업비율	7.2	8.1	7.0	7.4	7.3	7.6	7.6
변액 보험	사업비	-	-	-	-	-	-	-
	증가율	-	-	-	-	-	-	-
	사업비율	-	-	-	-	-	-	-
개인 보험계	사업비	20,468	22059	20,671	82,623	19,333	19,773	22,288
	증가율	10.8	12.5	2.8	8.8	-0.5	-3.4	1.0
	사업비율	20.1	20.6	19.3	19.9	18.6	18.5	18.5
단체 보험계	사업비	561	699	736	2,568	61.4	653	714
	증가율	-0.7	11.8	39.7	12.6	7.3	16.4	2.2
	사업비율	4.6	1.8	8.5	3.4	6.1	8.1	8.1
전 체	사업비	21,029	22758	21,407	85,191	19,947	20,426	23,002
	증가율	10.5	12.5	3.8	8.9	-0.3	-2.9	1.1
	사업비율	18.5	15.6	18.5	17.4	17.5	17.8	17.8

주 : 1) 사업비는 신계약비 이연을 감안하지 않은 실제 집행 사업비를 기준으로 함.

2)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이며 기타 사항은 앞의 표와 동일함.

3) 단체보험은 퇴직보험 포함된 실적이며, 개인보험 종목별 변액보험이 포함됨.

4) 증가율은 전년동기 대비(분기) 또는 전년 대비(연간)임.

자료 :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월보』, 각 월호.

<표 6>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원수보험료 성장률 및 비중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FY2002				FY2003		
		2/4	3/4	4/4	연간	1/4	2/4	3/4
화 재	보험료	755	910	750	3,219	825	761	881
	성장율	2.2	2.6	7.4	6.1	2.5	0.9	-3.1
	구성비	1.5	1.7	1.5	1.6	1.6	1.4	1.5
해 상	보험료	1,388	1,293	1,418	5,605	1,396	1,385	1,151
	성장율	9.6	-12.6	1.1	5.9	-7.3	-0.2	-11.0
	구성비	2.7	2.4	2.8	2.7	2.7	2.6	2.0
자동차	보험료	20,917	20,529	18,358	79,138	18,939	20,662	20,311
	성장율	7.5	6.5	1.9	6.1	-2.0	-1.2	-1.1
	구성비	40.7	37.4	36.7	38.4	37.0	39.2	35.7
보 증	보험료	2,235	2,413	2,530	9,362	2,423	2,261	2,259
	성장율	28.1	27.2	29.5	30.8	11.0	1.2	-6.4
	구성비	4.3	4.4	5.1	4.5	4.7	4.3	4.0
특 종	보험료	4,319	4,641	3,472	16,734	4,546	4,454	5,140
	성장율	27.2	18.5	11.6	20.6	5.7	3.1	10.7
	구성비	8.4	8.4	6.9	8.1	8.9	8.4	9.0
해외 원보험	보험료	121	146	153	564	137	155	163
	성장율	-2.1	63.8	-1.8	12.3	-4.6	27.3	11.9
	구성비	0.2	0.3	0.3	0.3	0.3	0.3	0.3
장 기	보험료	19,707	20,342	20,783	80,134	20,871	20,996	21,801
	성장율	11.0	9.6	7.8	10.0	8.1	6.5	7.2
	구성비	38.3	37.0	41.5	38.9	40.8	39.8	38.3
개 인 연 금	보험료	1,684	1,701	1,740	6,786	1,704	1,705	1,716
	성장율	0.4	1.7	4.8	1.6	2.6	1.3	0.9
	구성비	3.3	3.1	3.5	3.3	3.3	3.2	3.0
퇴 직 보 험	보험료	282	2,982	879	4,401	322	388	3,488
	성장율	38.9	50.7	127.3	53.6	24.7	37.6	17.0
	구성비	0.5	5.4	1.8	2.1	0.6	0.7	6.1
계	보험료	51,409	54,958	50,083	205,944	51,163	52,768	56,910
	성장율	10.9	10.5	7.4	10.2	3.4	2.6	3.6

주 : 1) 성장율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임.

2) 부수사업의 원수보험료는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의 원수보험료가 포함되었음.

자료 :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표 7> 손해보험 보험종목별 손해율, 사업비율 및 합산비율 추이

(단위 : %)

구 분		FY2002			FY2003		
		2/4	3/4	4/4	1/4	2/4	3/4
화재보험	경과손해율	46.9	57.0	54.3	62.7	63.9	61.6
	사업비율	46.5	48.7	51.4	48.4	47.1	48.4
	합산비율	93.4	105.7	105.6	111.1	111.0	110.0
해상보험	경과손해율	49.5	53.4	51.6	45.7	53.6	57.4
	사업비율	33.8	33.1	32.7	35.0	30.4	34.2
	합산비율	83.3	86.5	84.4	80.7	84.0	91.6
자동차보험	경과손해율	64.7	66.9	68.4	72.9	74.8	75.8
	사업비율	31.9	32.3	32.2	29.7	30.3	30.9
	합산비율	96.6	99.2	100.6	102.7	105.1	106.7
보증보험	경과손해율	42.4	77.7	42.0	33.8	10.1	23.8
	사업비율	10.7	-19.0	7.0	5.6	7.3	7.7
	합산비율	53.1	58.7	49.1	39.4	17.4	31.5
특종보험	경과손해율	46.0	41.4	47.5	43.1	50.9	51.0
	사업비율	17.6	19.8	23.6	25.1	23.4	23.4
	합산비율	63.6	61.3	71.1	68.2	74.3	74.5
해외원보험	경과손해율	53.6	54.5	50.4	46.5	47.7	48.5
	사업비율	59.1	56.8	53.0	54.1	76.9	76.4
	합산비율	112.7	111.1	103.4	100.6	124.6	124.9
장기보험	경과손해율	81.4	81.4	81.5	80.9	80.5	81.3
	사업비율	22.1	22.2	21.7	22.3	22.8	21.4
	합산비율	103.5	103.6	103.2	103.2	103.3	102.7
개인연금	경과손해율	113.7	114.4	118.7	114.6	115.6	116.1
	사업비율	11.2	11.0	11.2	11.0	10.9	10.5
	합산비율	124.9	125.4	129.9	125.6	126.5	126.7
전 체	경과손해율	71.1	73.5	72.9	73.7	73.8	75.2
	사업비율	25.3	24.4	25.5	24.7	25.2	24.8
	합산비율	96.4	97.9	98.4	98.4	99.0	100.1

주 : 1) 기간별 수치는 해당기간에 대한 누적치임.

2) 부수사업과 퇴직보험의 실적은 제외되었으며 특종보험에는 권원보험이 포함됨.

자료 : 손해보험회사, 『월말보고서』, 각 월호.

보험개발원(KIDI) 발간물 안내

■ 연구보고서

- 96-1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이후의 보험시장 전망과 대응방안 / 최용석, 1996.4
- 96-2 보험회사 종합금융기관화 전략 / 오영수, 1997.2
- 96-3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사회적 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 자동차보험 무보험
운전자 문제를 중심으로 / 서영길, 박중영, 1997.3
- 96-4 자동차보험 요율체계의 적정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7.3
- 96-5 보험회계제도에 관한 연구, / 김규승, 양성문, 장강봉, 1997.3
- 96-6 분리계정제도의 도입타당성과 세부도입방안 / 이근영, 박태준, 장강봉, 1997.3
- 96-7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 (I) : 총론 / 오영수, 이경희, 김란, 1997.3
- 96-8 생명보험 가격자유화 방안 : 예정이율 및 계약자배당을 중심으로 /
정봉은, 노병윤, 목진영, 1997.3
- 96-9 생명보험 모집조직의 효율화 방안 / 김규승, 박홍민, 장재일, 1997.3.
- 97-1 보증보험의 발전방안 연구 / 이희춘, 신동호, 이기형, 이준섭, 1997.5.
- 97-2 남북 경험 증대 및 통일에 대비한 보험산업 대응방안 연구 : 독일 모델
을 중심으로 / 신동호, 안철경, 조혜원, 1997.11
- 98-1 보험산업의 M&A에 관한 연구 : 주요국의 M&A 추세 및 유인을 중심
으로 / 김호경, 박태준, 1998.1
- 98-2 생명보험회사의 적정성장에 관한 연구 / 이원돈, 이승철, 장재일, 1998.2
- 98-3 생명보험 예정사업비의 합리적 결정에 관한 연구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8.2
- 98-4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II) : 연금개혁과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이경희, 1998.3
- 98-5 주요국의 새로운 보험판매채널 활용사례분석 및 국내사의 운용전략 /
정재욱, 정영철, 한성진, 1998.3
- 98-6 보험기업 경영진단시스템 : 생명보험회사를 중심으로 / 김호경, 김혜성, 1998.3
- 98-7 퇴직연금 계리 및 재정 / 성주호, 김진억, 1998.6
- 98-8 생명보험 예정이율의 안전성 분석 및 운용방안 / 이원돈, 이승철, 장강봉, 1998.10
- 99-1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III) : 의료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역
할 / 오영수, 이경희, 1999.2
- 99-2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제도에 관한 연구 / 이득주, 서영길, 장동식, 1999.3

99-3	국민연금 민영화방안에 관한 연구 : 국민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접근방안 / 성주호, 김진익, 1999.3
99-4	손해보험 상품개발시스템 및 전략에 대한 연구 / 신동호, 이희춘, 차일권, 조혜원, 1999.3
99-5	생존분석기법(Survival Analysis)을 이용한 생명보험 실효·계약 분석 / 강중철, 장강봉, 1999.3
99-6	보험사기 성향 및 규모추정 :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 박일용, 안철경, 1999.7
99-7	사업비차배당제도의 도입 및 대응방안 / 노병윤, 장강봉, 1999.12
99-8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방안 / 안철경, 박일용, 1999.12
2000-1	손해보험의 부가보험요율 산출 및 운영방안 연구 / 이희춘, 조혜원, 2000.3
2000-2	ART를 활용한 손보사의 위험관리 방안 연구 / 신동호, 2000.3
2000-3	생명보험회사 투자포트폴리오 결정요인과 투자행동 / 목진영, 2000.3
2000-4	생명보험상품의 손익기여도 분석 / 노병윤, 장강봉. 2000.3
2000-5	보험산업의 전자상거래 구축 및 효율적 운영방안 / 안철경, 박일용, 오승철 2000.3
2000-6	금융겸업화에 대비한 보험회사의 경영전략 / 김현수, 2000.6
2000-7	보험회사 지식자산의 가치측정모형 연구 / 이도수, 김해식. 2000.8
2000-8	환경변화에 대응한 생보사의 상품개발전략 / 류건식, 이경희. 2000.9
2000-9	향후 10년간 국내보험산업 시장규모 및 트렌드 분석 / 동향분석팀. 2000.11
2000-10	보험회사의 판매채널믹스 개선방안 연구 / 정홍주. 2000.12
2001-1	사이버시장 분석 및 향후 과제 / 안철경, 장동식, 2001.1
2001-2	OECD 국가의 생명보험산업 현황 및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정세창, 권순일, 김재봉, 2001.1
2001-3	손해보험 종목별 투자수익 산출 및 요율 적용 방안 / 이희춘, 조혜원, 2001.1
2001-4	생명보험회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분석 / 류건식, 이경희, 2001.3
2001-5	보험회사의 북한 진출에 관한연구 / 신동호, 안철경, 박홍민, 김경환, 2001.3
2001-6	생명보험회사의 예정이율 리스크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이도수, 2001.4
2001-7	보험회사 CRM에 관한 연구 : CRM 성공요인 및 성과분석을 중심으로 / 안철경, 조혜원 2001.8
2001-8	생명보험산업의 자산운용규제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 김재현, 이경희, 2001.10

- 2001-9 건강보험에서의 보험회사 역할 확대방안 / 박홍민, 김경환, 2001.10
- 2001-10 노령화사회의 진전에 따른 민영장기간병보험 발전방안 / 김기홍, 2001.12
- 2001-11 국제보험회계기준 연구 / 김해식, 2001.12
- 2002-1 국내외 보험사기관리 실태 분석 / 안철경, 김경환, 조혜원, 2002. 3
- 2002-2 기업연금시장 활성화와 보험회사 대응전략 / 박홍민, 이경희, 2002. 3
- 2002-3 보험회사 리스크 감독 및 관리방안 연구 / 류건식, 정석영, 이정환, 2002. 5
- 2002-4 생명보험회사의 시장지위별 마케팅 경쟁 / 신문식, 김경환, 2002. 5
- 2002-5 생명보험사 RBC제도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천일영, 신동현, 2002. 10
- 2002-6 생명보험회사의 고객유지전략 / 신문식, 장동식, 2002. 10
- 2002-7 방키슈랑스 환경에서의 보험회사 대응전략 / 정세창, 박홍민, 이정환, 2002. 12
- 2002-8 생명보험사 보험리스크 평가에 관한 연구 / 류건식, 신동현, 배윤희, 2002. 12
- 2003-1 민영건강보험의 언더라이팅 선진화 방안 / 오영수, 이경희, 2003. 3
- 2003-2 보험회사의 실버산업 진출방안 / 박홍민, 권순일, 이한덕, 2003. 3
- 2003-3 보험회사 사이버마케팅의 활용전망 / 신문식, 장동식, 2003. 3
- 2003-4 생명보험사 RAS체제에 관한 연구 / 류건식, 김해식, 정석영, 2003. 7
- 2003-5 보험소비자를 위한 보험교육방안 / 이기형, 조재현, 2003. 11
- 2003-6 보험설계사 조직의 개편방안 / 신문식, 이경희, 이정환, 2003. 12
- 2004-1 부유층 시장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산관리사업 운영방안 / 신문식, 이경희, 2004. 3

■ 연구조사자료

- 96-1 주요국의 보험브로커제도 및 관련법규 현황 / 김기홍, 김평원, 정봉은, 유지호, 1996.2
- 96-2 독일 보험감독법, 1996.2
- 96-3 주요국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제도 운영현황 / 이기형, 김란, 조혜원, 1996.10
- 96-4 캡티브 보험사 설립에 관한 연구 / 김평원, 오평석, 안철경, 조혜원, 1996.12
- 96-5 미국 보험회사의 파산과 지불능력규제 / 이재복, 1997.3
- 97-1 국제보험세미나 (IIS) 발표 논문집 (제 33차), 1997.7
- 97-2 태평양보험회의 (PIC) 발표 논문집 (제 18차), 1997.9
- 98-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 (I) / 김영옥, 차일권, 1998.2
- 98-2 손해보험 가격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 서영길, 박중영, 장동식, 1998.3
- 98-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8.3
- 98-4 보험회사의 적대적 M&A와 대응수단에 관한 연구 / 김호경, 박상호, 장재일, 1998.8
- 98-5 MAI협상의 진전과 국내보험산업에의 시사점 / 정영철, 한성진, 1998.8
- 98-6 보험회사의 리스크 증대와 대응 / 이기형, 박중영, 장기중, 1998.10
- 98-7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 : 의료사고위험을 중심으로 / 신동호, 차일권, 1998.11
- 99-1 전문직 위험과 배상책임보험(III) : 임원배상책임보험 / 엄창희, 1999.1
- 99-2 최근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현황 및 제도 변화 / 김호경, 박상호, 1999.3
- 99-3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1999.3
- 99-4 미국의 퇴직연금 회계제도 연구 / 김해식, 1999.6
- 99-5 우리나라 보험산업의 구조조정 : 외국사례 및 생명보험산업을 중심으로 / 정봉은, 이승철, 1999.7
- 99-6 주요국의 보험법제 비교 / 이원돈, 정봉은, 신동호, 안철경, 1999.7

- 99-7 지진재해와 지진보험 : 일본의 지진보험을 중심으로 / 이상우, 1999.7
- 99-8 주요국의 보험계리인제도 / 최용석, 노병윤, 1999.8
- 99-9 생명보험 계약심사제도 / 장강봉, 1999.11
- 99-10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자동차보험본부, 2000.2
- 2000-1 세계 재보험시장의 발전과 규제환경 / 엄창희, 2000.3
- 2000-2 보험사의 지식경영 도입방안 / 김해식, 2000.3
- 2001-1 보험회사 겸업화 추세와 국내 보험회사의 대응전략 / 이경희, 2001.1
- 2001-2 자동차보험 의료비통계를 이용한 자동차사고 상해에 관한 분석 / 보험2본부, 2001.1
- 2001-3 지방채보험 제도 도입방안 / 안철경, 엄창희, 2001.3
- 2001-4 금융·보험 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 조사 / 동향분석팀, 2001.3
- 2001-5 종업원복지 재구축을 위한 보험회사의 역할 / 오영수, 박홍민, 이한덕, 2001.6
- 2001-6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 / 보험1본부, 2001.11
- 2001-7 보험환경 변화와 보험제도 변화(II) / 보험연구소, 2001.11
- 2002-1 보험니드에 관한 소비자 설문조사 / 보험연구소, 2002.3
- 2002-2 국내 유사보험 감독 및 사업현황 / 김진선, 안철경, 권순일, 2002.9
- 2003-1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3
- 2003-2 보험회사의 경영리스크 관리방안 / 천일영, 주민정, 신동현, 2003.3
- 2004-1 2004년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4.3

■ 정책연구자료

- 97-1 금리변동에 따른 보험회사의 금리리스크 분석 / 이원돈, 노병윤, 장강봉, 1997.10
- 97-2 '9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7.11
- 98-1 '9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8.11
- 99-1 200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1999.11
- 99-2 예금보험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산업 중심으로 / 이승철, 1999.12
- 2000-1 200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0.10
- 2001-1 신용보험의 활성화 방안 연구 / 신동호, 김경환, 2001.1
- 2001-2 200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1.11
- 2001-3 세계금융서비스 산업의 점업화와 감독기구의 통합 및 시사점 / 정세창, 권순일, 2001.12
- 2002-1 200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2.11
- 2003-1 주요국의 방카슈랑스 규제 / 안철경, 신문식, 이상우, 조혜원, 2003.7
- 2003-2 200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03.12

■ 연구논문집

- 1호 보험산업의 규제와 감독제도의 미래 / Harold D. Skipper, Robert W. Klein, Martin F. Grace, 1997.6
- 2호 세계보험시장의 변화와 대응방안 / D. Farny, 전천관, J. E. Johnson, 조해균, 1998.3
- 3호 제1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8.11
- 4호 제2회 전국대학생 보험현상논문집, 1999.12

■ Insurance Business Report

- 1호 일산생명 파산과 시사점, 1997.5
- 2호 OECD 회원국의 기업연금제도 / 정재욱, 정영철, 1997.10
- 3호 손해보험의 금융재보험 동향 / 이기형, 김평원, 1997.11
- 4호 금융위기에 대한 대책과 보험산업 / 김호경, 1997.12
- 5호 멕시코 보험산업의 IMF 대응사례와 시사점 / 정재욱, 1998.3
- 6호 주요국 기업연금보험 개요 및 세제 / 양성문, 1998.3
- 7호 일본의 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대응 / 이기형, 장기중, 1998.5
- 8호 구조조정에 따른 보험산업의 대응전략 : 상품, 마케팅, 자산운용, 재무건정성을 중심으로 / 노병윤, 안철경, 이승철, 1999.2
- 9호 보험산업에서의 정보기술(IT)의 활용 : 손해보험 중심으로 / 최용석, 1999.3
- 10호 자동차보험 가격자유화의 영향과 대책 / 박중영, 1999.3
- 11호 IMF체제 이후 보험산업의 환경변화와 전망 / 양성문, 김해식, 1999.3
- 12호 최근의 환경변화와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강중철, 목진영, 1999.10
- 13호 21세기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보험회사의 전략적 대응방안 / 오영수, 최용석, 이승철, 1999.12
- 14호 중국의 WTO 가입과 보험시장 개방 / 정희남, 2002.4
- 15호 주 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보험산업의 영향과 대응 / 동향분석팀, 2002. 9
- 16호 2010년 보험산업 트렌드 분석 및 시사점 / 조혜원, 2003.5
- 17호 유럽보험회사 파산사례의 리스크 분석 및 감독방안 / 신동현, 2003.5
- 18호 미국 배상책임보험의 최근 현황과 시사점 / 이기형, 조재현, 2003.8

■ 영문 발간물

- Environment Changes in the Korean Insurance Industry in Recent Years :
- 1호 Institutional Improvement, Deregulation and Liberalization / Hokyung Kim, Sango Park, 1995.5
 - 2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0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1.4
 - 3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1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2.2
 - 4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2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3.2
 - 5호 Korea Insurance Industry 2003 / Insurance Research Center, 2004.2

■ CEO Report

- 2000-1 일본 제일화재의 파산에 따른 국내 손보산업에의 시사점 / 양성문, 김혜성, 2000.5
- 2000-2 일본 제백생명의 파산에 따른 국내 생보산업에의 시사점 / 보험연구소, 2000.6
- 2000-3 최근 금융시장 불안과 보험회사 자산운용 개선방안/김재현, 2000.10
- 2000-4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적발 및 방지활동과 기대효과 / 안철경, 2000.11
- 2001-1 부동산권리보험 도입현황과 시사점 / 신문식, 권순일, 2001.8
- 2001-2 자동차보험 가격경쟁 동향과 향후과제 / 서영길, 기승도, 2001.8
- 2001-3 일반 손해보험 가격자유화 추진 경과와 향후 과제 / 이희춘, 문성연, 2001.10
- 2002-1 금융재보험의 도입과 향후과제 / 보험연구소, 2002.4
- 2002-2 PL법 시행에 따른 PL보험 시장전망과 선진사례 시사점 / 손해보험본부, 2002.6
- 2002-3 종신보험상품의 예상 리스크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2.6
- 2002-4 주 5일 근무제와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본부, 2002.9

- 2002-5 CI(Critical Illness)보험의 개발과 향후 운영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2.10
- 2002-6 자동차보험시장 동향 및 전망 / 자동차보험본부, 2002.10
- 2003-1 장기손해보험 상품운용전략 / 장기손해보험팀, 2003.2
- 2003-2 200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팀, 2003.3
- 2003-3 인구의 노령화와 민영보험의 대응 / 오영수, 2003.6
- 2003-4 국가재해관리시스템 개편에 따른 보험제도 운영방향 / 손해보험본부, 2003.7
- 2003-5 생명보험산업에서의 경험통계 활용방안 / 생명보험본부, 2003.7
- 2003-6 OECD의 기업연금 재정안정화 논의와 시사점 / 동향분석팀, 2003.8
- 2003-7 퇴직연금시장 전망과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류건식, 남효성, 박홍민, 2003.12
- 2004-1 자동차보험 예정기초율 연구 및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2
- 2004-2 보험회사의 방카슈랑스 제휴 성공전략 / 연구조정실, 2004.2
- 2004-3 보험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와 향후과제 / 생명보험본부, 2004.2
- 2004-4 자동차보험 손해를 악화원인 분석 및 전략적 시사점 / 자동차보험본부, 2004.2
- 2004-5 생명보험가입자의 사망원인 분석 및 시사점 / 생명보험본부, 2004.3

정기간행물

- 월간 _____
- 보험통계월보
- 계간 _____
- 보험동향
- 계간 _____
- 보험개발연구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및 제공자료

구분 내용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속간행물 구독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간행물별로 다름
제공자료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5~10회/년) · 정책연구자료(3~5회/년) · 기타 보고서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5~10회/년) · 정책연구자료(3~5회/년) · 기타 보고서	-연구조사보고서 · 연구보고서(10~15회/년) · 조사연구자료(5~10회/년) · 정책연구자료(3~5회/년) · 기타 보고서	- 간행물별 연간 구독료는 다음과 같음 · 보험개발연구 (연간 3회~4회 ₩ 30,000) · 보험통계월보 (월간 ₩ 50,000) · 보험동향 (계간 ₩ 20,000)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3~4회) · 보험동향(계간)	-연속간행물 · 보험개발연구(3~4회) · 보험동향(계간)	-	
	-본원 주최 각종 세미나 및 공청회 자료 -보험통계월보 -영문발간자료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개발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368-4230, 4407 팩스 : 368-4099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067-25-0014-382) / 한미은행 (110-55016-257)
예금주 : 보험개발원
- 지로번호 : 6937009

가입절차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의 Knowledge Center에서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 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개발원 보험자료실, 교보문고, 영풍문고, 을지서적, 서울문고, 세종문고
부산 : 영광서적

보협동향

2004년 봄호(통권 29호)

2004年 4月 1日 第1刷發行

發行人	임	재	영
編輯人	오	영	수

發行處 保 險 開 發 院

서울特別市 永登浦區 汝矣島洞 35-4
登 錄 1997. 7. 15. (바-2873)
代表電話 (02) 368-4000
印 刷 所 대 화 인 쇄
電 話 (02) 2265-1330

定價 6,000원

과본은 바꾸어 드립니다.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
동향분석팀(☎368-4177, 368-4183)으로 하여 주십시오.